

# 第13回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

THE 13TH JOINT CONFERENCE OF  
KOREA-JAPAN & JAPAN-KOREA ECONOMIC COMMITTEES

1981. 6. 10~12 SEOU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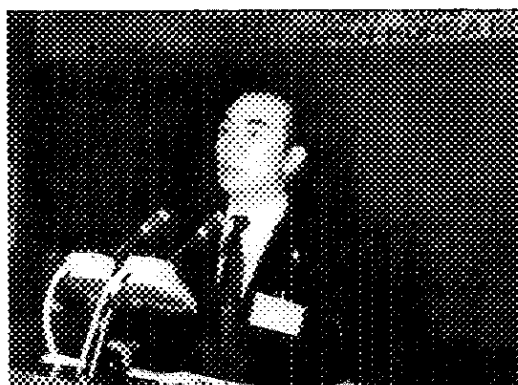
## 報 告 書

韓 日 經 濟 協 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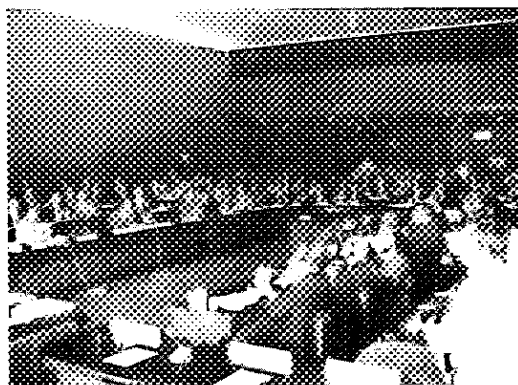


□ 第13回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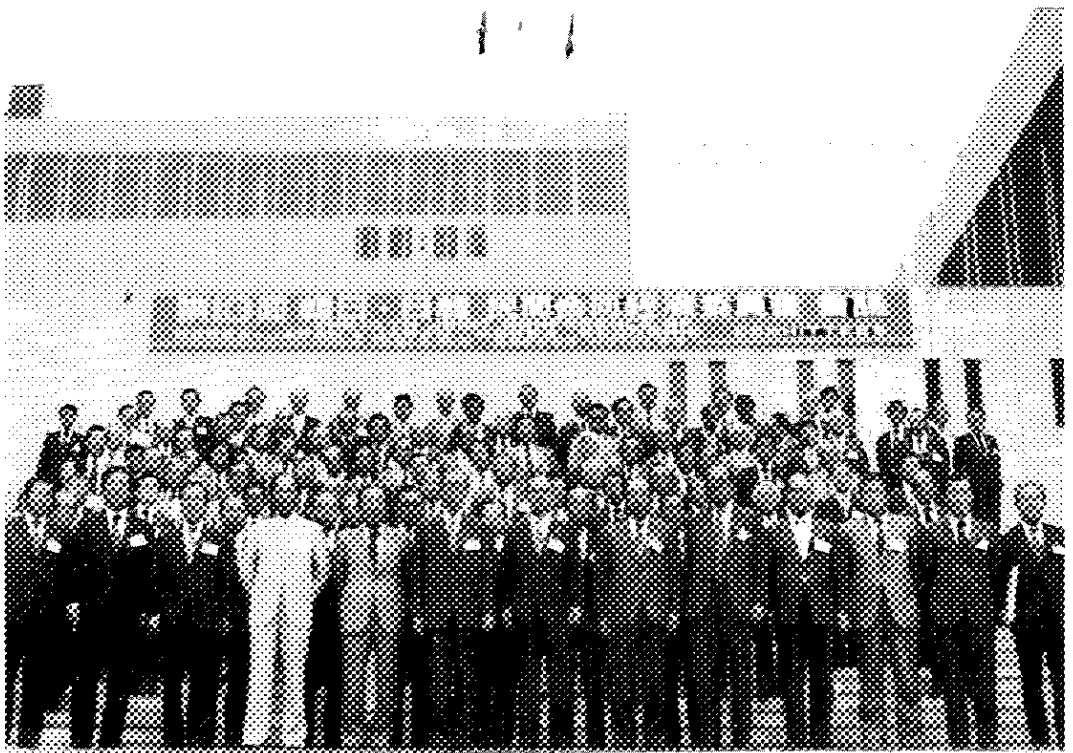
1981年 6月 10日 世宗文化會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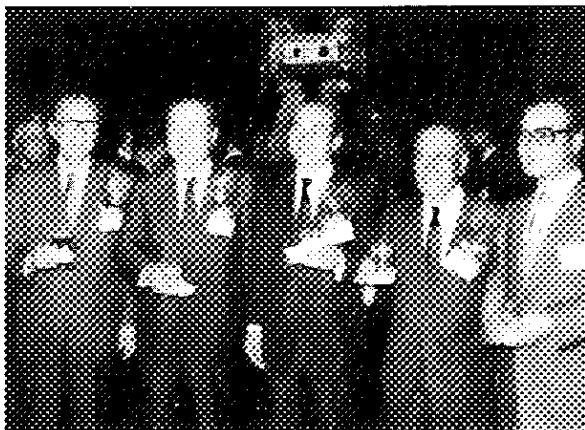
□ 朴泰俊 韓国側 團長 人事



□ 合同會議에 參席한 兩側 代表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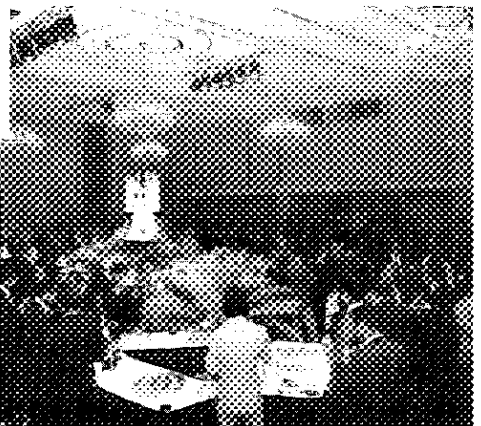


□ 兩側 代表團의 記念 撮影



□

리십순에 參席한 日高輝 日本側 團長  
申秉鉉 副總理  
朴泰俊 韓國側 團長 및  
稲山嘉寛 日本經團連 會長  
李承潤 財務部長官 (左로부터)



□ 리셉션

## 目 次

1. 両側団長 人事	3
가) 韓国側	3
나) 日本側	9
2. 致辭(副総理兼, 經濟企劃院 長官)	11
3. 祝辭(駐韓日本大使)	15
4. 経過報告	17
5. 會議日程	19
6. 會議議題	21
7. 両側代表団名单	23
가) 韓国側	23
나) 日本側	31
8. 第5次 經濟社会發展 5 箇年計劃 說明	37
9. 基調演説	53
가) 韓国側: 韓日 經濟協力의 問題点과 解決 方向	53
成均館大学校 經商大学 教授 安 霖	
나) 日本側: 日本經濟의 動向과 앞으로의 日韓關係	63
(株) 日本長期信用銀行, 副頭取 秋田 兼 三	
10. 議案	73
(1) 太平洋 經濟共同體構想	73
(2) 第6回 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會議 結果報告	77
(3) 長期大型技術開發研究事業 推進을 爲한 共同協力	79

(4) 經濟協力長期構想 研究委員會 設置 .....	85
(5) 中小企業協力 專門委員會 ( 仮称 ) 設置 .....	89
(6) 尖端技術의 移轉 .....	101
(7) 第 8 回 貿易擴大均衡委員會 經過報告 .....	111
(8) 訪韓國 輸入等 促進및손의 活動結果報告書 ( 要約 ) .....	115
(9) 貿易部門 合同會議資料 .....	119
(10) 駐韓日本商社의 法的地位및 오과去來에 對한 認定課稅問題 .....	141
(11) 東北亞地域 荷主団体間의 協力 .....	145
(12) 海運協力에 關하여 .....	147
11. 共同聲明 .....	149
12. 閉 會 辭 .....	153
가) 韓國側 .....	153
나) 日本側 .....	155
13. 參考事項 .....	157
가) 協會의 沿革 .....	157
나) 定 款 .....	158
다) 會員名單 .....	161

## 人 事

### 韓日經濟委員會 委員長 朴 泰 俊

「히다카・메루」團長,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參席하신 「이나야마・요시히로」經團連 會長을 비롯한 日本側代表團 여러분.

그리고 韓國側代表團 여러분.

本人은 이제 우리 大韓民國에 있어서 新歷史 創造의 章을 열어준 第5共和國의 出帆과 때를 같이하여, 새로운 次元에서 韓日間의 民間經濟協力關係를 模索하기 爲한 第13回 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를 開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1965年의 韓日國交正常化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兩國은 經濟分野를 비롯한 政治, 社會, 文化 등 諸部門의 交流를 通하여 보다 깊은 理解와 幅넓은 協力關係를 發展시켜 왔읍니다. 그리하여 이제 兩國은 軋레야 軋 수 없는 生活共同體를 形成하게 된 것이 事實입니다.

日本과 마찬가지로 賦存資源이 貧弱한 韓國은 經濟開發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日本의 成功的인 發展事例를 거울삼아, 「輸出第一主義의 對外指向의 高度成長」政策을 追求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高度成長의 過程에서 日本의 資本, 技術 및 貿易協力 등은 韓國의 經濟發展을 爲하여 多大한 寄與를 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協力關係의 裏面에는 相對的으로 不利한 條件에 놓여 있었던 韓國의 經濟에 慢性的인 貿易逆調 및 對日依存度의 深化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現象이 惹起되는 등, 相互間의 協力이 私心없는 理解의 바탕위에 선 眞正한 協力

關係로 昇華되지 못했던 側面도 있었음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現在 韓日兩國을 에워싸고 있는 外部的 環境은 激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멀게는 「이란·이라크」 戰爭,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侵攻과 極東에 있어서의 軍事力の 膨脹을 비롯하여, 가까이로는 「폴란드」 事態를 둘러싼 東西對立, 美國의 「레이건」 行政府와 「프랑스」의 「미테랑」 社會黨政府出帆 그리고 새로운 中東戰爭의 危機 등 現今의 國際情勢는 激變을 거듭하고 있으며, 經濟的인 側面에 있어서도 70年代의 世界經濟를 주름지게 했던 油價波動은 다소 鎮靜되는 機微를 보여주고 있으나, 國際高金利 및 國際通貨體制가 不安定한 狀況下에서의 世界經濟는 아직도 累瀆된 不況의 突破口를 찾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實로 不確實性和 不安定性이 支配하는 時代에 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1962年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施行한 以後, 그동안 年平均 10%以上の 눈부신 成長을 記錄해 온 韓國經濟도 '70年代 初半의 油價波動을 始發로한 世界的인 景氣後退와 더불어 '79年의 10.26 事態로 인한 政治的·社會的 不安 등으로 因하여 1980年度에는 5.7%라는 前例없는 「마이너스」 成長을 記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第5共和國의 出帆과 더불어 韓國은 急速度로 政治的·社會的 安定을 回復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經濟成長에 대한 熱火같은 國民的意志의 蘇生으로 因하여, 우리 經濟는 다시금 本來의 成長軌道를 되찾기 始作하였으며, 그 結果 今後의 經濟事情은 계속 好轉될 것으로 展望되고는 있으나, 油價의 繼續的인 不安과 物價上昇, 그리고 國際収支赤字幅의 擴大 등은 繼續 不安要因으로 尚存하여, 앞으로의 經濟發展을 危脅하는 要因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時点에서 本人은 韓日兩國의 經濟協力도 兩國間의 共同利害나 繁榮을 위한 單純한 協力の 次元을 넘어서, 이제는 共同的 經濟安全保障體制를 構築하여야 할 重要的 轉換點에 處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韓國經濟는 '70年代의 官主導型 成長政策을 脫皮, 民間主導의 發展을 指向하고 있으며, 新興工業國隊列의 先頭走者로서 그 基盤을 確固히 하는 同時에 우리 經濟體制의 自由化, 國際化를 爲하여 總力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來年부터 始作되는 第5次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에서는 처음으로 社會發展이라는 用語를 公式化하면서까지, 經濟開發과 社會發展의 均衡을 圖謀함으로써 正義로운 福祉社會建設을 追求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韓國經濟의 새로운 跳躍期를 맞이하여 本人은 앞서 말씀드린 『共同의 經濟安全保障體制構築을 爲한 日本側의 私心없는 同伴者的 努力』이야말로 여태까지 未盡한 感이 없지 않았던 韓日經濟協力關係에 새로운 里程標를 樹立하는 原動力이 될 것으로 確信하고 있습니다.

本人은 이 자리에서 韓日兩國이 同伴者的 位置에서 協力해 나아가야 할 基本方向을 大體로 다음 두가지로 要約하여 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兩國間의 經濟協力을 爲한 國民的協調基盤의 擴大이며, 다음은 兩國間 經濟協力の 質的深化라고 하겠습니다.

첫번째의 韓日兩國의 經濟協力을 爲한 國民的協調基盤의 擴大問題는 새삼스럽게 強調할 必要도 없을만큼 當然한 時代的 要請이라 하겠습니다.

지난날의 兩國間의 經濟協力關係를 돌이켜 보면 주로 企業間의 垂直的協力乃至는 平面的企業結合關係에 置重해 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兩國의 民間「베이스」에서의 水平的乃至는 大衆的協力關係를 이룩하는 데로 그 力點을 옮겨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國民과 國民사이, 그리고 多樣한 產業과 產業間의 폭넓은 同伴關係를 定立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國家間의 經濟協力の 眞正한 意義는 모든 分野에 있어서의 國民의 經濟水準을 向上시킴으로써 健康하고 余裕있는 文化生活을 서로 交流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러한 共同的 目標을 達成할 수 있기 爲한 必要하고도 充分한 條件은 아직도 成熟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賦存資源이 貧弱하고 資本動員能力이 不足한 開發途上國의 經濟發展過程이 흔히 그러하듯이, 高度成長과정에서 惹起된 不均衡成長의 問題와 이로 因한 經濟의 二重構造化의 問題는 우리에게도 例外가 아니어서 農業部門이나 中小企業 등 相對적으로 落後된 部門은 앞으로의 次元 높은 經濟・社會 發展을 가로막는 要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本人은 이번 會議을 通하여 여러분께서 中小企業의 近代化에 특히 留意하셔서 設備의 改替, 技術과 生産性向上 및 流通構造의 効率化를 期하는 것은 勿論이고, 大企業과의 協業化, 系列化 및 專門化를 期함으로써 全體 經濟의 體質을 強化하는데 必要한 새로운 次元의 協力方案을 論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農業部門의 開發이나 人力資源開發 또는 社會福祉充當의 部門에 대하여서도 格別한 關心을 가져 주시기를 希望합니다.

두번째의 兩國間 經濟協力の 質的深化라는 問題는 從前의 兩國間의 經濟協力方式이나 그 範圍를 物量的 擴大뿐만 아니라 質的인 側面에서 좀더 強化하고 改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요컨대 兩國의 經濟協力體系를 經濟各 部門에 있어서의 單純한 同伴關係의 確立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를 質적으로 昇華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遠大하고 高尚한 目標을 이루기 爲하여 本 會議을 通해 서로가 한 걸음씩 接近하는 努力과 誠意를 보여야만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韓國은 지난 20年間 高度成長政策을 追求하는 過程에서 눈부신 經濟發展을 이룩하였으나 한편으로는 資源의 非效率的 配分, 一部 重化學部門에 대한 過剩投資, 老朽施設 및 斜陽技術의 導入과 같은 一連의 試行錯誤를 經驗한바 있으며 그 結果 重化學工業部門에 대한 投資의 再調整이라는 試練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本人은 이번 會議를 통해서 우리의 重化学工業 再調整이나 産業合理化를 爲한 構造改編에 必要한 補完的 支援이라든지, 各 産業部門別 最尖端技術의 導入등과 같은 技術革新問題, 知識情報産業發展을 爲한 基盤造成, 그리고 韓國의 國際收支 改善을 爲한 兩國間 貿易의 均衡있는 擴大나 國際經濟協力 등 諸部門에 關하여 長期的인 眼目에서의 綜合的이고도 密度있는 協力體系를 設計하여 주실 것을 期待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兩國의 均衡있는 貿易擴大와 機械工業部門의 協力方案을 모색하기 爲하여 努力해온 兩專門委員會의 活動을 致賀하는 同時에 그 合意事項이 秩序있게 履行되기를 希望하며, 또한 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의 設置問題도 具體적으로 論議되어 早速한 時日內에 그 活潑한 活動이 展開되기를 期待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強調한 바와 같이 韓日間經濟協力を 爲한 國民的 協調基盤을 擴大하는 方案의 하나로서 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를 新設할 것을 提案합니다.

本人은 特히 兩國間の 貿易不均衡是正을 爲해 보여주신 對韓輸入等促進使節團의 誠意와 그간의 勞苦에 대하여 再三 深甚한 謝意를 表明하는 바입니다.

이제부터 3日동안 열리게 되는 本 13回 合同委員會에서는 資本提携, 機械工業開發, 「플랜트」建設을 爲한 第三國共同進出, 資源共同開發 등 一般的인 經濟協力分野뿐만 아니라 尖端技術의 移轉, 貿易障壁除去를 爲한 常設窓口設置, 根源的인 貿易逆調是正을 爲한 貿易協力分野 등 兩國間の 共同關心事에 대한 率直하고도 眞摯한 討議를 進行하여 어느때보다도 더욱 알찬 成果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兩國代表團 여러분의 健闘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81. 6. 10

韓日經濟委員會委員長 朴 泰 俊

## 人 事

日 韓 經 濟 委 員 會

委 員 長 日 高 輝

이번 第13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가 開催됨에 즈음하여 이렇게 많은 兩側 代表團이 한자리에 모여 攄정을 敦篤히 함과 同時에, 内外의 새로운 事態에 対応하는 兩國 民間經濟交流의 諸般問題에 關하여 討議할 機會를 가지게 된 것을 기뻐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貴國에 있어서는 民間經濟界의 總意에 依拠, 對日經濟關係窓口의 一元化를 도모하여 民間經濟團體, 代表的인 經濟人 등을 網羅한 「韓日經濟協會」가 設立되었읍니다만, 本 合同委員會 會議에는 今回부터 新設된 韓日經濟協會를 母體로해서 構成된 韓日經濟委員會의 멤버가 韓國代表團으로서 參加하신 것이며, 이것은 다시 말하면 貴國經濟界의 總意를 代表할뿐 아니라 全斗煥 政權에 依한 新體制를 象徵하는 것으로서 眞實로 意義깊은 일로서 “카운터파트너”의 立場에서 深甚한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韓日兩國内外의 情勢를 돌이켜보면 過去 1~2年間 冷酷한 國際環境속에서 國內經濟는 어느 쪽이나 停滯狀態에 빠져 昨年の 兩國間 貿易은 輸出入 모두 1975年以來 5年만에 前年을 下回하는 結果가 되었읍니다.

貴國에 있어서는 全斗煥 大統領閣下の 領導下에 第5共和國으로서 새롭게 發足되자 政治는 安定을 되찾고 經濟面에 있어서는 回復의 方向으로 나아가 今年 1/4分期에는 成長率이 前年同期에 比해 1.2% 增加되어 回復基調로 돌아섰고 將來에 밝은 展望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함께 기뻐해 마지않읍니다.

日本에 있어서는 昨年の 經濟成長率은 實質 4.2%, 前年比 1.4% 減少로 政府 当初予想을 꺾 下回하는, 소위 景氣의 「陰影」은 밝아지지 않고 民間企業에 있어서는 第1次, 第2次 오일 쇼크에 계속되는 原油價 上昇에 의한

原価高를 吸收하기 위해, 계속 모든 合理化, 生産性向上 其他를 勞使 서로 協助하여 推進하고 있습니다만, 한편 政府는 大量의 国債発行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는 財政의 不均衡을 是正하고 財政再建을 図謀하기 爲하여 予算의 緊縮, 増稅없는 歳出의 削減, 行政改革 등에 努力을 傾注하고, 財政 本来의 機能을 回復하여 民間經濟와 財政이 양바퀴가 되어 日本經濟의 運營에 対処할 수 있게 되도록 期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環境속에 함께 自由主義陣營의 開放体制下에 있는 兩國이 손을 잡고 困難한 國際的 條件을 克服하고 經濟의 伸展을 図謀하기 爲한 手段, 方法을 찾아내어 그것을 協議하는 것이 이 會議의 目的입니다.

韓日 兩國間の 經濟協力은 1962年以來 貴國의 第1次부터 第4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에 따른 그 內容에 따라서 官民 제작기의 立場에서 具體的 協力の 方案을 協議하고 實行해 왔습니다.

貴國은 내년부터 第5次 經濟社会發展 5個年計劃을 實施하게 되어 오늘 그 計劃의 全貌에 관해 公表前에 解説을 듣게된 것은 時宜適切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第1次 經濟開發計劃以來 20年의 오랜동안에 걸쳐 一貫해온 兩國經濟協力の 基本姿勢를 軸으로 하여 一層 그 紐帶를 強化 擴充하는 具體策을 協議하고 策定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兩國間 貿易不均衡의 狀態는 短期的으로 改善될 問題는 아니라 할지라도 重大한 課題입니다. 去年은 日本側으로서 「訪韓國輸入 등 促進 使節團」을 官民 合同으로 派遣하여 相當한 成果를 거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더욱이 改善에의 努力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또한 資本, 技術의 交流에 있어서 새로운 觀點에서, 時代에 副應하는 措置가 강구되도록 하는 것도 매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의 會議가 眞實로 共存共榮의 열매를 거두는데 寄與할 수 있도록 韓日 兩國代表團 여러분의 協力を 衷心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致

辭

副總理 申 秉 鉉

前田大使, 日高團長, 稻山顧問, 朴泰俊會長 그리고 韓日兩國代表團 및 内外貴賓 여러분!

오늘 第13回 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에 臨하여 本人은 여기오신 日本代表團 여러분을 衷心으로 歡迎함과 아울러 이자리에서 致辭의 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韓日間の 經濟協力關係가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을 克服하고 오늘날과 같이 各分野에 拡散 發展하게 된것은 오로지 여기 모이신 兩國의 指導的 經濟人의 꾸준한 努力에 힘입은바 크다고 믿어 이를 致賀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世界經濟는 큰 試鍊을 겪고 있으며 특히 韓國經濟는 第2次 石油波動과 이에 따른 世界各國의 景氣沈滯 등의 外部的要因에, 内部的으로는 79年 10.26事態以後의 社會的不安定 등의 要因이 겹쳐 지난 1980年中에는 經濟開發計劃施行以後 처음으로 "마이너스" 成長을 記錄하였고 높은 物價高와 國際收支의 惡化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經濟는 今年들어 第5共和國 出帆을 前後한 政治 및 社會安定에 힘입어 活力과 安定基調를 되찾고 있으며 輸出増大를 先導로 沈滯된 景氣의 回復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情勢의 推移속에서 우리는 來年부터 實施하게 되는 第5次經濟社會發展5年計劃을 마련하고 있는데 本人은 이 機會에 本計劃의 政策基調에 關하여 말씀드리고 아울러 韓日間の 經濟協力關係에 關한 몇가지 所信을 披瀝하고자 합니다.

1980年代에도 우리는 繼續하여 우리 經濟의 基本目標을 國力の 持續的인 伸長을 通하여 自主國家安保能力的 提高와 國民生活水準向上을 圖謀함과 同時に 世

界속에서의 韓國位置를 浮刻시키려는데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經濟는 1970 年代의 高度成長을 追究하는 過程에서 “인플레이” 構造의 慢性化와 一部投資의 非効率化 및 所得分配의 不均衡 等の 副作用을 派生시켰고 또한 一部産業의 지나친 保護와 規制로 經濟體質이 脆弱된 點도 事實입니다.

따라서 1980 年代 經濟政策의 基本方向으로는 物価安定에 政策運用의 最優先을 두어 經濟의 安定基盤을 다지고 市場經濟의 暢達로 經濟의 効率性提高와 産業構造의 合理化를 期하며 國民의 基本需要充足과 社會開發充實에 政策의 優先順位를 두어 經濟成長惠沢의 均露化를 期할 것입니다.

同時에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爲해서 輸出主導의 持續과 開放政策의 積極化를 期하고 國際化時代에 対応하여 國內外市場에서 競爭力을 갖는 比較優位産業의 發展을 圖謀할 것입니다.

위와같은 政策은 한마디로 表現하면 最近의 沈滯에도 不拘하고 韓國 經濟 第2의 跳躍을 爲한 意志라 할것이며 그要諦는 市場經濟原理에 立脚하여 經濟社會 全般의 能率을 向上하고 自由貿易原理에 依拠한 國際化속에서 韓國經濟發展의 活路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世界經濟의 趨勢를 보면 南北問題의 深化와 資源民族主義의 抬頭, 그리고 國際經濟의 地域化와 先進國의 保護主義化傾向 等이 自由貿易에 對한 障害要因으로 나타나고 또한 一部地域의 政治不安 等の 政治的要因이 自由스럽고 安定된 世界貿易의 擴大를 阻害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情勢를 勘案할때 韓日間의 經濟協力 및 貿易關係도 새로운 次元에서 그 “비전”을 再定立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兩國의 經濟協力關係는 兩國의 安全保障이란 次元에서 새롭게 認識하여 長期的眼目으로 相互補完的인 經濟體制를 構築해가는 데에 協助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같은 見地에서 年年히 深刻해지는 韓日間의 貿易不均衡問題도 다루어져

그 解決의 方途가 模索되어야 할 것인데 그 基本方向은 短期的으로는 日本側의 貿易政策上的 配慮로 一部韓國商品에 對한 輸入制限措置를 緩和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長期的으로는 動態的인 比較優位를 勘案해서 兩國의 産業構造를 調整함으로써 根本的인 解決이 되도록 相互努力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今世紀의 亞細亞時代 文明의 開花와 經濟的 進歩를 爲해서 韓日兩國은 中樞的役割을 할것이 期待됩니다.

即, 資源이 不足하고 國際化속에서 經濟의 活路를 찾아야하는 韓日兩國은 太平洋沿岸國家의 經濟開發과 交易擴大에 積極 參與하여 먼 앞날의 共同經濟圈 形成을 展望하며 相互協力하여 共同的 利益增進을 圖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같은 “비존”을 가지고 兩國이 相互協力할때 兩國經濟는 그만큼 發展할 것이며 나아가 世界經濟發展에도 크게 寄與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今番 會議에서는 보다 넓은 視野와 展望속에서 韓日間의 經濟問題가 다루어져 兩國의 協力擴大과 紐帶強化가 이룩되기를 祈願합니다.

끝으로 日本經濟界의 卓越한 指導者이신 日高團長을 비롯한 團員여러분의 韓日兩國經濟協力에 對한 깊은 關心과 努力에 對하여 깊은 敬意를 表하며 本人의 致辭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 祝 辭

駐 韓 日 本 国 大 使  
前 田 利 一

오늘 第 13 回 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의 開會式에 招待를 받고 여러분을  
뵈을 機會를 얻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오늘의 會議開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韓國側關係者, 특히 韓日經濟協  
회의 여러분께 대해 真心으로 感謝드림과 同時에 日本代表團 여러분의 來韓  
에 對해서 歡迎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本 合同委員會도 이번이 第 13 回째라는 것입니다만 今年은 特別히 重要な 意  
義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韓國에 있어서 全大統領의 領導 아래 第 5 共和  
國이 出發했습니다. 더우기 來年부터는 第 5 次 5 個年計劃이 시작되며 現在  
銳意作業中이라고 듣고 있습니다만, 80 年代 前半의 이 時期를 맞아 韓國이  
第 2 의 跳躍을 目標로 새로운 理念下에 大統領을 위시하여 政治・經濟・社會  
의 關係諸位에서 一致團結하여 나라의 發展을 위해 邁進하려고 하는데 對하  
여 敬意를 表하고자 합니다.

이에 對하여 日本側에 있어서도 稻山 經團連會長, 日高 委員長을 비롯한  
多數의 經濟界의 實力者가 來韓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兩國 經濟關係者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劃期的인 것이며 結實있는 討議가 있기를 期待합니다.

저는 赴任한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以前에 오래동안 韓國에서 勤務했기  
때문에 韓國國民 全員の 活力과 勤勉, 実行力에는 재삼 敬服하고 있는 바  
입니다. 現在 韓國 經濟는 여러가지 困難에 直面해 있습니다만 반드시  
韓國의 여러분은 이것을 克服하여 第 2 의 跳躍을 할 것이라고 確信하고 있  
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日本으로서도 協力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兩國의 經濟關係는 貿易・資本의 交流, 經濟・技術協力 등 幅넓은 分野에  
걸쳐 있습니다.



現在 貿易에서 커다란 問題는 貿易不均衡이 있습니다. 이것은 兩國의 産業 貿易構造에 起因하는 問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解決될 수 있는 問題가 아니며 꾸준한 努力의 蓄積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會議에서도 커다란 테에마로 되어있기 때문에 現實을 바탕으로 充分한 議論이 行해질 것을 期待하고 있습니다. 또 今後는 中小企業協力, 에너지 등에 對한 協力 등 새로운 分野에서의 協力 擴大가 期待됩니다.

한편 貿易上の 摩擦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摩擦은 兩國間의 貿易・經濟關係가 緊密하면 할수록 보다 더 일어나기 쉬운 것입니다. 兩國이 쓸데 없이 感情에 흐르게 되는 일 없이 冷靜한 意見・情報交換을 通하여 相互理解를 깊게함과 同時に 相互의 共通利益의 增進이라고 하는 大局的인 見地에 서서 解決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必要할 것입니다.

兩國의 經濟交流에 關係되는 具體的인 問題에 關해서는 會議에서 充分히 論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雙方 忌憚없는 議論을 다하여 意義있는 成果를 낳을 수 있도록 真心으로 祈願하면서 人事에 대합니다.

## 經 過 報 告

1980年3月17일부터 3日間 東京에서 開催된 第12回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以後 現在까지 同 合同會議의 共同聲明에서 採擇된 合意事項等에 따라 兩國國內委員會가 推進한 主要事務에 關하여 報告하고 社團法人 韓日經濟協會가 設立된 經緯에 對하여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1. 兩國 國內委員會는 第12回 會議 終了後 各己 自國 政府關係機關에 會議內容을 報告하고 要望事項을 傳達하였습니다.

2. 第6回 韓日・日韓 機械工業協力 專門委員會 合同會議가 80年5月20일부터 3日間 日本國 伊豆 長岡에서 張炳贊, 浦川淸人 兩國委員長 以下 各 委員이 參席하여 韓日間 機械工業部門 協力에 關하여 討議하였으며 會議內容은 내일 全體會議에서 報告되겠습니다.

3. 上記 機械工業協力 專門委員會 合同會議에서 合意된바에 따라 長期大型 技術開發 共同研究를 爲한 機構設置에 關하여 韓國科學技術院이 案을 作成하였으며 이것은 내일 全體會議에서 提案되겠습니다.

4. 第8回 韓日・日韓 貿易 大均衡委員會 合同會議가 80年10月21일부터 4日間 大韓民國 濟州島에서 金禹根, 京本善治 兩國委員長 以下 各 委員이 參席하여 對韓 輸入等 促進團 成果에 對한 Follow-up 및 韓・日 貿易協力等에 關하여 討議하였으며 同 會議內容은 내일 全體會議에서 報告되겠습니다.

5. 韓日・日韓 經濟協力長期構想 研究委員會 設置 合意에 따라 그간 兩國 實務者間の 基本的協議가 있었으며 이에 對한 基本案이 來日 全體會議에 上程되겠습니다.

6. 日本의 對韓 輸入等 促進使節團이 訪韓 80年 7月 9日부터 11日間 韓國 商品 購買推進 活動이 있었으며 日本側에서는 購買契約의 履行, 督勵, 調整을 爲 하여 訪韓 Mission 調整委員會를 設置하였으며 그 結果는 來日 全體 會議에서 報告되겠습니다.

#### 7. 韓日經濟協會 設立經緯

1) 過去 12回까지의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의 幹事役割을 韓國 側에서는 大韓商工會議所, 全國經濟人聯合會 및 韓國貿易協會의 3 經濟團體가 2年씩 輪審制로 맡아 왔었습니다만 窓口를 一元化하는것이 便利하겠다는 意見이 經濟界에서 나왔습니다.

2) 1981年 2月 4日 上記 3 經濟團體와 中小企業協同組合 中央會 및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의 代表들이 모여 發起人會를 가졌고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의 朴泰俊會長이 發起人 代表로 選任되었습니다.

3) 1981年 2月 12日 創立總會를 開催, 定款採擇, 任員選任, 81年度 事業計劃을 確定하였으며 2月 23日 法令에 따른 政府承認을 받고 法院登記를 마쳤습니다.

4) 定款, 會員等은 會議資料와 함께 同封한 會員名單을 參考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會 議 日 程

6.10 (水)

12:20 日本代表團 金浦空港到着 ( JAL 951 便 )

13:20 LOTTE HOTEL 到着

16:00 開會式

世宗文化會館大會議室

(1) 韓國側 團長 人事

(2) 日本側 團長 人事

(3) 致辭 (副總理 兼 經濟企劃院長官)

(4) 祝辭 (駐韓日本大使)

(5) 經過報告

(6) 議長選出

(7) 議題採擇

(8) 第 5 次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 說明

— 經濟企劃院 —

(9) 基調演說

1. 韓國側

「韓日經濟協力の 問題點과 解決方向」

成均館大學校 經商大學 教授 安 霖

## 2. 日本側

「日本經濟의 最近 動向과 日韓經濟交流의 將來」

(株) 日本長期信用銀行 副頭取 秋田兼三

18:00 休會

18:30 RECEPTION (韓日共同主催)

LOTTE HOTEL

20:30

2層 Crystal  
Ball room

### 6.11 (木)

10:00 合同會議

世宗文化會館大會議室

11:45

12:00 午餐 (韓日經濟委員會 主催)

PLAZA HOTEL

13:45

22層 德寿 hall

14:00 合同會議

世宗文化會館大會議室

16:00

18:00 RECEPTION (駐韓日本大使 主催)

日本大使官邸(城北洞)

19:30

### 6.12 (金)

08:00 兩側團長團 朝食會 및 共同聲明 合意

LOTTE HOTEL

10:00 合同會議

LOTTE HOTEL

共同聲明 採擇

2層 Crystal  
Ball room

韓國側 團長 人事

日本側 團長 人事

閉會

11:00 記者會見(兩側團長團)

13:30 JAL 952便 出國

## 會 議 議 題

### 1. 經濟協力

- (1) 環太平洋經濟共同體構想에 對한 說明
- (2) 第 6 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 報告  
・長期大型技術開發研究事業을 爲한 協力專門機構設置
- (3) 韓日・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의 設置
- (4) 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設置

### 2. 產業技術

- (1) 尖端技術의 移轉

### 3. 貿易增進

- (1) 第 8 回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會議報告
- (2) 對韓輸入等促進使節團 活動結果에 對한 報告
- (3) 貿易協力
- (4) 東北亞地域 荷主團體間의 協力
- (5) 海運協力

## 韓國側 代表團 名單

(가나다順)

姓 名	團 體 會社職位	團 體 / 會 社 名
顧問 金 元 基		前 韓國貿易協會 會長
" 金 永 善		前 駐日本大使
" 金 容 完		全國經濟人聯合會 名譽會長
" 柳 琦 諄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會長
" 劉 彰 順		韓國貿易協會 會長
" 李 秉 喆		三星物產株式會社 會長
" 鄭 壽 昌		大韓商工會議所 會長
" 鄭 周 永		全國經濟人聯合會 會長
團 長 朴 泰 俊	會 長	韓日經濟協會
	"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
副團長 金 宇 中	副 會 長	韓日經濟協會
	會 長	大宇實業株式會社
" 朴 大 振	副 會 長	韓日經濟協會
	社 長	大韓投資金融株式會社

姓 名	團 體 會社職位	團 體 / 會 社 名
副團長 朴 龍 學	副 會 長	韓日經濟協會
" 李 健 熙	會 長	(株) 大 農
" 李 健 熙	副 會 長	韓日經濟協會
" 李 孟 基	"	三星物產株式會社
" 李 孟 基	副 會 長	韓日經濟協會
" 鄭 世 永	社 長	코리아라인株式會社
" 鄭 世 永	副 會 長	韓日經濟協會
" 鄭 寅 旭	社 長	現代自動車工業株式會社
" 鄭 寅 旭	副 會 長	韓日經濟協力
" 鄭 春 澤	社 長	江原產業株式會社
" 鄭 春 澤	副 會 長	韓日經濟協會
" 趙 重 勲	銀 行 長	韓國外換銀行
" 趙 重 勲	副 會 長	韓日經濟協會
" 許 愼 九	會 長	(株) 韓 進
" 許 愼 九	副 會 長	韓日經濟協會
團 員 姜 聲 振	社 長	(株) 金 星 社
" 姜 信 浩	社 長	三寶證券株式會社
" 姜 泳 琇	"	東亞製藥株式會社
" 景 周 鉉	"	興亞海運株式會社
" 景 周 鉉	"	三星物產株式會社



<u>姓 名</u>		<u>團 體 會社職位</u>	<u>團 體 / 會 社 名</u>
團 員	高 応 振	會 長	韓国機械工業協同組合聯合會
"	郭 泰 石	社 長	韓国電子株式會社
"	具 滋 暎	會 長	(株) 리 키
"	權 達 顔	社 長	京畿化學工業株式會社
"	金 光 均	"	建設實業株式會社
"	金 光 浩	技 術 理 事	三星電子工業株式會社
"	金 基 鐸	社 長	三華實業株式會社
"	金 萬 重	會 長	三都物產株式會社
"	金 命 年	社 長	大林水產株式會社
"	金 奉 殷	銀 行 長	韓国長期信用銀行
"	金 鳳 鶴	會 長	天馬物產株式會社
"	金 相 汶	會 長	起亜產業株式會社
"	金 相 鴻	"	(株) 三 養 社
"	金 錫 元	社 長	雙竜洋灰工業株式會社
"	金 善 根	社 長	晉州耐火株式會社
"	金 瑗 暎	理 事	韓國外換銀行
"	金 禹 根	副 會 長	韓國貿易協會
"	金 仁 得	會 長	韓國스리트工業株式會社
"	金 正 培	專 務 理 事	三星電子工業株式會社
"	金 鎮 河	社 長	高麗貿易株式會社
"	金 昌 圭	"	湖南에틸렌株式會社
"	金 採 謙	副 社 長	雙竜洋灰工業株式會社
"	金 洪 錫	社 長	韓國投資信託株式會社

	姓 名	團 體 會 社 職 位	團 體 / 會 社 名
團 員	金 炯 德	社 長	忠南紡績株式會社
"	南 基 棟	"	東洋시멘트工業株式會社
"	盧 載 鉉	"	韓國綜合化學工業株式會社
"	羅 翼 鎮	"	東亜貿易株式會社
"	閔 錫 源	會 長	正友開發株式會社
"	文 樸	社 長	半島商事株式會社
"	朴 南 奎	"	朝陽商船株式會社
"	朴 相 天	專 務 理 事	曉星物產株式會社
"	朴 承 復	社 長	샘표食品工業株式會社
"	朴 容 晔	"	斗山產業株式會社
"	朴 永 郁	"	現代綜合商事株式會社
"	朴 鶴 善	"	三養食品工業株式會社
"	朴 興 植	"	和信產業株式會社
"	白 慶 福	會 長	大韓證券業協會
"	徐 廷 翰	社 長	韓國合金鐵工業株式會社
"	徐 載 軾	"	韓國프라스틱工業株式會社
"	孫 尚 模	"	國際商事株式會社
"	孫 烈 鎬	"	東洋錫鋅工業株式會社
"	安 京 模	"	產業基地開發公社
"	梁 在 港	理 事 長	韓國電氣工業協同組合
"	禹 容 海	社 長	(株) 雙 竜
"	柳 惇 佑	社 長	大韓投資信託株式會社
"	柳 績 佑	"	豐山金屬工業株式會社

姓 名		團 體 會社職位	團 體 / 會 社 名
團 員	尹 煜 鉉	社 長	金星計電株式會社
"	尹 泰 葉	專 務 理 事	全國經濟人聯合會
"	李 東 煥	社 長	코리아제 목스株式會社
"	李 範 魯	社 長	南鮮物產株式會社
"	李 尚 秀	專 務 理 事	韓・日經濟協會
"	李 相 喆	社 長	코오롱 商事株式會社
"	李 恩 馥	理 事 長	韓國生產性本部
"	李 元 洪	社 長	韓國放送公社
"	李 殷 澤	"	三星造船工業株式會社
"	李 在 潤	技術經營 研究室 長	韓國科學技術院
"	李 載 沆	副 會 長	大韓商工會議所
"	李 鍾 國	會 長	(株) 南 洋 社
"	李 鍾 壽	社 長	서울鑄鉄工業株式會社
"	李 竣 鎔	"	大林產業株式會社
"	李 昌 雨	會 長	(株) 釜山파이프
"	李 春 林	社 長	現代重工業株式會社
"	李 孝 益	社 長	三益樂器製造株式會社
"	李 勲 東	"	朝鮮耐火化學工業株式會社
"	林 東 昇	理 事	韓國貿易協會
"	張 炳 贊	社 長	利川電機工業株式會社
"	張 在 澈	社 長	韓國証券金融株式會社
"	張 相 泰	"	東國製鋼株式會社

姓 名	團 體 會社職位	團 體 / 會 社 名
團 員 張 盛 煥	社 長	大韓貿易振興公社
" 張 致 赫	會 長	高麗合纖株式會社
" 丁 世 鎮	社 長	(株) 鍾 根 堂
" 鄭 昇 翼	"	聯合鉄鋼工業株式會社
" 鄭 海 德	"	半島木材株式會社
" 趙 錫 來	"	東洋나이론株式會社
" 趙 旭 來	"	曉星機械工業株式會社
" 趙 漢 英	"	光進電子工業株式會社
" 朱 昌 均	"	日新製鋼株式會社
" 全 賢 宰	"	(株) 天 友 社
" 崔 塘	"	三星電管工業株式會社
" 崔 善 來	副 社 長	(株) 金 星 社
" 崔 鍾 賢	社 長	(株) 大韓石油會社
" 崔 鍾 煥	會 長	三煥企業株式會社
" 崔 亨 奎	社 長	大韓電線株式會社
" 韓 相 淵	"	汎洋專用船株式會社
" 韓 英 國	常 務 理 事	롯데製菓工業株式會社
" 韓 在 烈	副 會 長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 洪 起 錫	理 事	太原物産株式會社
" 洪 鍊 錫	社 長	味 元 株式會社
" 黃 慶 老	"	三陟產業株式會社
" 黃 敦	理 事	韓國貿易協會
幹 事 閔 完 基	部 長	大韓商工會議所
" 金 學 光	課 長	大韓商工會議所

姓 名	團 體 會 社 職 位	團 體 / 會 社 名
幹 事 權 東 洙	部 長	全國經濟人聯合會
〃 鄭 鉉 九	課 長	全國經濟人聯合會
〃 張 垣	部 長	韓國貿易協會
〃 李 奉 柱	課 長	韓國貿易協會
〃 具 滋 運	部 長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 柳 建 榮	課 長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 申 德 鉉	部 長	韓日經濟協會
〃 崔 熙 國	部 長	韓日經濟協會

## 日本側 代表團 名單

顧問	稻 山 嘉 寛 INAYAMA Yoshihiro	韓日經濟委員會 經濟團體連合會	顧問 會長
團 長	日 高 輝 HIDAKA Teru	日韓經濟委員會 山一證券(株)	委 員 長 取締役相談役
副團長	五 島 昇 GOTO Noboru	日韓經濟委員會 東京商工會議所 東京急行電鐵(株)	副 委 員 長 副 會 頭 取締役社長
	大 島 健 司 OSHIMA Kenji	日韓經濟委員會 小野田CEMENT(株)	副 委 員 長 取締役社長
	柴 山 幸 雄 SHIBAYAMA Yukio	住友商事(株)	取 締 役 會 長
	植 田 三 男 UEDA Mitsuo	日商岩井(株) 訪韓MISSION調整委員會	取 締 役 社 長 委 員 長
	梅 田 善 司 UMEDA Zenji	川崎重工業(株)	取 締 役 社 長
團 員	阿 部 良 夫 ABE Yoshio	三井物產(株)	常 務 取 締 役
	赤 澤 璋 一 AKAZAWA Shoichi	富士通(株)	代 表 取 締 役 副 社 長
	秋 田 兼 三 AKITA Kenzo	(株)日本長期信用銀行 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 委員會	取 締 役 副 頭 取 委 員 長
團 員	新 井 永 吉 ARAI Eikichi	(株)東海銀行	特 別 顧 問
	荒 瀬 晃 二 ARASE Koji	三井造船(株)	常 務 取 締 役
	長 亨 CHO Toru	東洋ENGINEERING(株)	取 締 役 副 社 長
	藤 木 和 雄 FUJIKI Kazuo	日本輸出入銀行營業 第一部	部 長

團 員	福 本 敦 郎 FUKUMOTO Atsuro	丸紅(株)	專 務 取 締 役
	古 澤 實 FURUSAWA Minoru	(社)日本貿易會企劃部	部 長
	合 田 茂 GODA Shigeru	住友重機械工業(株)	專 務 取 締 役
	濱 野 和 彦 HAMANO Kazuhiko	三菱重工業(株)	常 務 取 締 役
	平 田 誠 之 HIRATA Seishi	(株)神戸製鋼所 ENGINEERING 事業部 海外 PROJECT 推進室	部 長
	堀 憲 明 HORI Noriaki	(株)日本興業銀行外国部	副 部 長
	伊 藤 守 男 ITO Morio	(株)東食	常 務 取 締 役
	岩 崎 和 義 IWASAKI Kazuyoshi	日本商工會議所 海外技術協力幹旋本部	副 本 部 長
	上 田 昌 史 KAMIDA Masashi	富士通(株)海外事業本部事業管理部	部 長
	栗 山 昭 児 KURIYAMA Shoji	(株)TOMEN	專 務 取 締 役
	京 本 善 治 KYOMOTO Zenji	(社)日本貿易會 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專 務 理 事 委 員 長
	滿 島 啓 二 MAJIMA Keiji	日綿實業(株)	取 締 役 副 社 長
	松 平 英 人 MATSUDAIRA Hideto	兼松江商(株)	常 務 取 締 役
	松 井 弥 之 助 MATSUI Yanosuke	伊藤忠商事(株)	取 締 役 副 社 長
	松 本 浩 和 MATSUMOTO Hirokazu	川崎重工業(株)營業總轄本部輸出營業總轄部	部 長
	三 好 正 也 MIYOSHI Masaya	(社)經濟團體連合會	常 務 理 事
	長 村 登 志 雄 NAGAMURA Toshio	(株)東京銀行	專 務 取 締 役

團 員 西 川 登	豊田通商(株)	専 務 取 締 役
NISHIKAWA Noboru		
野 口 幸 洋	日興證券(株)國際金融部	次 長
NOGUCHI Yukihiro		
能 村 竜 太 郎	太陽工業(株)	代表取締役会長
NOMURA Ryotaro		
小 倉 義 信	(株)住友銀行國際第一本部	常 務 取 締 役 本 部 長
OGURA Yoshinobu		
坂 本 義 行	日本商工會議所國際部	参 與 部 長
SAKAMOTO Yoshiyuki		
薩 美 智 行	YANMAR DIESEL(株) 貿易本部	副 本 部 長
SATSUMI Tomoyuki		
瀬 戸 光	三菱電機(株)SEOUL 駐在 員事務所	所 長
SETO Hikaru		
田 路 俊 郎	日商岩井(株)企劃本部 韓國貿易室	専 門 部 長 室
TAJI Toshiro		
竹 中 他慶太郎	大倉商事(株)	代 表 取 締 役 副 社 長
TAKENAKA Taketaro		
竹 内 宏	(株)日本長期信用銀行 調査部	取 締 役 部 長
TAKEUCHI Hiroshi		
田 中 正 光	日綿實業(株)東京機械第一 本部	本 部 長 補 佐
TANAKA Masamitsu		
浦 川 清 人	石川島播磨重工業(株) 日韓機械工業協力専門委員會	代表取締役副社長 委 員 長
URAKAWA Kiyoto		
山 田 勝 久	山一證券(株)	取 締 役
YAMADA Katsuhisa		
山 田 實	丸紅(株)機械總轄部 PLANT 本部	部 長 副 本 部 長
YAMADA Minoru		
山 田 泰 三	三菱商事(株)	常 務 取 締 役
YAMADA Taizo		
山 口 英 治	日韓經濟協會	専 務 理 事
YAMAGUCHI Hideharu		



團 員	巽 啓 吾	(株)三和銀行	專 務 取 締 役
	TATSU Keigo		
	吉 田 俊 朗	(社)日本船主協會	理 事 長
	YOSHIDA Toshiro		
随 行 員	新 井 四 郎	豊田通商(株) SEOUL 事務所	所 長
	ARAI Shiro		
	藤 田 忠	東京急行電鐵(株)	社 長 秘 書
	FUJITA Tadashi		
	原 田 紀 男	住友商事(株)海外業務部	部 長 付
	HARADA Toshio		
	日 笠 泰 治	石川島播磨重工業(株) 重機輸出部	課 長
	HIGASA Taiji		
	平 山 修	(社)日本船主協會國際部	係 長
	HIRAYAMA Osamu		
	木 戸 健 二	大倉商事(株)第一鐵鋼輸出 部	次 長
	KIDO Kenji		
	古 島 義 雄	(株)日本長期信用銀行國際 業務部	調 査 役
	KOJIMA Yoshio		
	森 亮 人	伊藤忠商事(株)海外市場第 二部	部 長 役
	MORI Akihito		
	森 田 純 穂	小野田 CEMENT (株) CEMENT 營業部	次 長
	MORITA Mizuho		
	長 島 朗	三菱重工業(株)社長室 海外部	部 長 代 理
	NAGASHIMA Akira		
	中 島 清 香	兼松江商(株) SEOUL 支店	支 店 長
	NAKAJIMA Kiyoka		
	大 橋 文 雄	日商岩井(株)秘書室	室 長 補 佐
	OHASHI Fumio		
	大 槻 正 安	(株)東京銀行 SEOUL 支店	支 店 長
	OTSUKI Masayasu		
	佐 藤 芳 春	丸紅(株) ASIA 室 ASIA 第一課	課 長
	SATO Yoshiharu		

幹 事	金 學 鳳	日韓經濟協會	事 務 局 長
	KIM Hak Bong		
	朴 和 鉉	"	事 業 局 長
	PARK Hwa Hyun		
	高 橋 榮 一	日韓經濟委員會	事 務 局 長
	TAKAHASHI Eiichi		

## 第五次經濟社会發展五個年計劃 說明

1981. 6.10 16:00

世宗文化會館 大會議室

說明者 : 姜 慶 植

經濟企劃院企劃次官補

### 가. 序 論

#### 1. 第五次經濟社会發展五個年計劃의 意味

經濟企劃院 企劃次官補입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第五次經濟社会發展 五個年計劃의 概要에 대해 說明하게된 것을 無限한 榮光으로 생각합니다만, 時間이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事項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함을 罪悚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來年度에 시작해서 86年度에 끝나는 第五次經濟社会發展五個年計劃에 대해 案을 作成해서 現在 지의 마무리段階에 가 있으며 現在計劃으로는 7월 말까지 關係部處와의 協議를 모두 끝내고 8月頃에 最終案으로 確定할 計劃입니다.

第五次經濟社会發展五個年計劃은 第五共和國의 期間과 一致하기 때문에 第五共和國의 經濟政策의 基調라는 뜻에서도 그 意義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第五次經濟社会發展五個年計劃은 여러 가지 面에서 從來의 經濟開發計劃과는 다른 것

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題目이 종래의 經濟開發五個年計劃에서 經濟社会發展五個年計劃으로 바뀌어서 社会部門이 追加가 되었고 開發에서 發展이라는 用語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經濟問題가 社会部門까지 包含하여 이를 解決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問題意識에서 題目부터가 달라졌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五個年計劃을 作成하고 執行해 오는 過程에서는 어떤 數量的인 目標에 많이 執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第五次經濟社会發展五個年計劃은 이른바 誘導計劃(Indicative Plan)方式을 導入하였습니다. 그래서 計劃作成過程에서 지난해부터 韓國開發研究院에서 여러차례 關係專門家, 關聯業界의 代表者가 모여 広範한 討論을 가짐으로서 計劃作成에 參與의 幅을 넓히려고 努力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第5次經濟社会發展五個年計劃 자체가 예컨대 80年代에 우리의 輸出이 520億弗이나 530億弗이나 550億弗이나 하는 그런 數量的인 側面보다는 오히려 現在 우리가 当面하고 있는 問題가 무엇이며 거기에서우리가 選擇할 수 있는 代案이 무엇이나, 各各 그 選擇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가지 代案을 놓고 檢討해서 거기에서 現在의 問題를 確認하고 그에 대한 対応方向에 對해 一種의 最適案을 導出코자하는 方式을 採択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第五次經濟社会發展五個年計劃은 이렇게 보면 計劃案이 最終 確定되어 發表되더라도 그 最終的 係數나 숫자보다는 오히려 오늘의 韓國經濟가 当面하고 있는 課題가 무엇이며 이에 어떻게 対応해 가야 할 것이냐 하는 方向設定에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2. 韓國經濟의 基本課題

저희들이 생각하는 80年代 前半期の 国内外 与件자체가 順坦하지 않은 것은 다시 말씀드릴 必要가 없겠습니다. 에너지事情이라든가 그리고 貿易環境이라든가 이러한 國際的与件이 우리에게 결코 順調롭지 못합니다. 거기에 더해

서 国内的으로는 最近의 經濟 沈滯, 그동안의 高度成長過程에서 생긴 여러가지  
 不均衡問題, 그에 따른 不滿足 등 不安定要因이 그대로 같이 潛在해 있습니다. 이  
 러한 어려운 條件下에서 여러가지 豫見되는 問題들 같이 解決하면서 經濟發展  
 을 어떻게 이룩해 가느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基本課題라 하겠습니다. 아  
 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는 国土가 매우 좁습니다. 人口密度가 세계에서 2位  
 이며, 더구나 国土의 7割이 산이기 때문에 平地에 對한 密度를 보면 세계에서 우리  
 처럼 人口密度가 높은 나라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賦存資源도 充  
 分하지 못합니다. 現在 人口가 3,800 萬, 人口增加率이 1.5 %로 앞으로 家族  
 計劃을 잘해 가더라도 2050 年頃에 가면 6,100 萬名이 넘는 人口가 우리나  
 라 땅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條件下에 어떻게하면 우리가 生  
 活水準向上과 同時に 雇傭機會를 擴大해가면서 살기좋은 나라를 建設해 가느  
 하는 것이 저희들의 五次計劃뿐만아니하고 우리들의 經濟를 運用하는데 基本的인  
 課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와같은 長期的인 課題를 떠나 가지고 우선 当面  
 하고 있는 80 年代 上半期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어느程度的 成長, 安定, 國  
 際收支管理라는 傳統的인 어려운 課題를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 勞動力, 즉 經濟活動人口가 매년 3 % 정도 增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每年  
 새로운 勞動力이 45 萬 내지 50 萬 정도씩 勞動市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래서 每年 45 萬個 以上の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失業問題라는 심  
 각한 問題에 直面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우리의 生活水準  
 을 向上시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보았을때 무엇보다도 7 - 8 %의 成長은 持  
 続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 우리가 解決해야 될 当面課題라고 하겠습니다.  
 두번째 物價安定에 있어서는 지난해 都売物價가 年末對比 40 % 이상 올라갔고  
 今年度도 20 % 水準으로 올라가겠습니다만 資源이 없는 나라에서 交易을 해서  
 살아가야하는 우리의 現實에서 볼 때 그와같은 높은 物價 上昇勢下에서는 對外  
 競爭力을 維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뿐만아니라 이와같은 높은

物価上昇은 여러가지 社会問題를 蔓延시켜서 社会不安定, 더 나아가서는 政治不安定으로까지 連結되어지기 때문에 物価安定을 기필코 達成해야하겠습니다. 셋째는 國際收支가 지난해에도 57億程度 經常收支 赤字가 記錄되어 있습니다.今年에도 50億달라 程度의 赤字가 豫想됩니다. 이는 GNP의 約8% 程度의 金額이 되는데 이와같이 對外負債가 繼續的으로 累續되어 간다는 것은 國家經濟運用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말할 必要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7-8%의 成長, 10% 水準의 物価安定, 그리고 國際收支의 管理라는 세가지 어려운 課題를 동시에 解決하는 길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經濟를 運用하는데 있어서의 基本的인 課題라고 생각합니다.

### 3. 經濟運用方式의 轉換

이와같은 세가지 課題를 同時に 解決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이 있겠느냐에 對해 여러차례의 討論과 專門家の 意見聴取를 해온 결과 從來의 方式을 그대로 採択해서는 解決이 어려우며 무엇인가 새로운 經濟運用方式을 취해야 한다는 쪽으로 結論을 集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經濟運用이 여러가지 條件에 비추어 보았을 때 能率을 極大化시키고 安定을 維持하면서 均衡的 發展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體制에로의 經濟運用方式을 새로이 導出하지 않고는 어렵다, 즉 從來의 “先成長 後安定 내지 後分配”라는 方式을 가지고는 經濟運用을 하기가 어려운 段階에 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安定을 為主로 하여 安定바탕 위에서 成長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機會均等を 통하여 分配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方式으로의 運用基調의 轉換이 不可避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課題와 條件속에서 第五次經濟社会發展五個年計劃의 5가지 選択課題를 集約해 보겠습니다.

#### 나. 開放經濟政策의 積極化

結局 우리나라의 經濟運用을 해 나가는 데에는 5가지 基本的인 選択이 있다

고 생각되어 집니다. 첫째는 우리 國內의 資源, 國土, 人口 등의 與件에서 보았을 때 우리 經濟는 앞으로 계속해서 對外開放戰略을 追求해 갈 수 밖에 方法이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간 對外開放을 너무 심하게 했을 경우 우리 經濟의 安定性 面에서 問題가 있고 對外與件이 예를들어 石油波動 같은 것이 왔을 때 經濟運用에 너무나 影響을 많이 받기 때문에 對內指向的으로 經濟를 運用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었으나 우리의 與件에 비추어, 보았을때 그것은 不可能한 選擇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 1. 輸出主導戰略의 持續

결국 우리는 앞으로 輸出主導로 經濟를 發展시켜 나갈 수 밖에 方法이 없겠습니다. 다만 輸出主導로 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競爭力이 問題가 되겠습니다. 이 競爭力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物價가 安定되어야 하겠고, 賃金이 安定되어야 하겠고 무엇보다도 非價格競爭力을 培養하기 위해서는 生産性を 높이고 品質을 改善하는 方向으로의 努力이 絶對적으로 必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렇게 볼 때 技術革新, 人力開發등이 우리 輸出의 앞날을 左右하고 우리 經濟의 앞날을 左右하는 큰 課題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특히 重工業部門에서 機械, 특히 部品들을 많이 開發하여 이 部門의 輸出을 늘려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輸出을 늘려가고 對外開放政策을 追求해 가는데 몇 가지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課題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첫째가 輸出에 對한 支援制度가 되겠습니다. 機械部門의 輸出을 늘려간다는 이야기는 어차피 상당한 부분 延拓輸出이 不可避한 것이며 이에 따라서 많은 資金이 必要하고 그 資金도 또 低利의 資金이 必要한 것은 지극히 當然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資金, 특히 低利의 資金을 物價가 높이 올라가는 環境下에서는 動員할 길이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결국 힘들더라도 物價安定을 통해서 貯蓄을 늘리고 또 利子率을 낮추어 갈 수 밖에 없으며, 높은 物價의

狀態하에서 利率만을 낮추는 그러한 方式으로는 執行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 2. 輸入開放의 促進

둘째 競爭力을 確保하고 品質을 改善하는 側面에서는 輸出만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問題가 있습니다. 輸出産業, 內需産業하는 區別자체가 앞으로 産業構造가 점점 복잡해지고 또 高度化됨에 따라서 그 區別이 어려운 狀態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보며 內需産業, 輸出産業의 區別없이 均衡있는 一定水準의 品質, 競爭力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海外市場에서 競争에 이기기 위해서는 國內市場에서도 外國商品과의 競争에서 이기는 그러한 經濟體質로 되지 않을 수 없겠다는 뜻에서 우리 産業의 競爭力을 提高하기 위하여 輸入自由化問題가 論議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海外競争을 國內에 導入하여 國內內需産業의 品質改善, 生産性 向上을 促進할 수 밖에 다른 길 이 없지 않은가 생각되어 집니다.

## 3. 技術導入促進

셋째로는 技術導入의 促進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海外로부터 技術導入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技術導入件數는 日本에 비해 매우 低調합니다. 숫자를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와같은 技術導入 가지고는 도저히 品質改善, 生産性 向上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과감한 技術導入이 不可避하고 또한 合作投資도 보다 과감하게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4. 經濟安全의 確保

問題는 이와같은 對外開放戰略을 追求해 가는 過程에서 두가지 考慮點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첫째는 對外債務가 계속 累積되어가는데 대한 憂慮입니다. 사실 우리가 輸出을 促進하는 自体가 對外債務를 줄여가기위한 하나의 方便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對外債務가 상당한 水準으로 累積되어 있고 이 對外債務累積을 憂慮하면서 對外開放, 對外依存의 深化를 憂慮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 SERVICE RATIO가 13.2%程度 水準으로 普通 憂慮하는 20%水準보다는 훨씬 밑돌고 있으며 五次計劃期間동안을 놓고 볼 때 今年을 고비로 漸次 낮아져서 11%未滿, 10%-11%程度 되지 않을까 하며 對外負債管理面에서는 憂慮할 바가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經濟安全의 問題입니다. 우리가 大部分의 資源을 海外에 依存하고 있고 輸出市場을 海外에 依存하고 있는 이러한 事情下에서 經濟를 運用할 때 對外 衝擊에 弱하기 때문에 이러한 過程에서 우리의 經濟의 安全保障을 維持해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食糧의 自給問題라든가 여러가지 開發輸入의 問題라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原資材를 海外에 依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輸入先을 多邊化한다든가 國內儲蓄을 늘린 다든가 海外開發輸入을 늘린 다든가 하는 이런 方式으로 우리의 經濟安全性을 確保해 갈 수 밖에 없지 않는가고 생각합니다.

#### 다. 開放體制下에서의 産業政策

두번째 우리 經濟가 当面하고 있는 問題는 결국은 世界를 相對로 우리가 發展하기 위하여 우리의 産業을 어떻게 選擇해 가야하느냐는 産業政策에 關한 問題가 되겠습니다.

##### 1. 競爭力, 僱傭機會擴大基準으로 自律選擇

무엇보다도 基準은 우리가 다른나라보다 잘 살 수 있기 위한 産業이

育成되어야 하겠습니다. 競争力, 動態的 競争力이 있는 産業이 育成되어야 함은 지극히 當然한 것입니다.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年 45万 - 50万名씩 勞動人口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雇傭機會를 擴大할 수 있는 그러한 部門의 産業이라야 되겠다는 것이 두번째의 考慮事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지금까지 政府에서 어떤 戰略産業을 選択하고 또 官主導로 育成하는 方式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經濟가 어느정도 複雜해지고 規模가 커지고 高度化됨에 따라 政府에서 어떤 産業을 選択하기가 어려운 段階에 와 있으며 따라서 어떤 産業을 할 것이냐의 問題는 民間企業이 自律的으로 選択하는 體制로 運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 2. 機械工業

여기에 우리 經濟가 當面하는 몇가지 어려운 問題가 있습니다. 重化學部門에서 競争力確保를 어떻게 빠른 時日안에 해 나가느냐가 첫째 課題가 됩니다. 특히 機械工業部門의 競争力을 어떻게 빠른 時日안에 確保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現實의 問題가 되겠습니다. 이 部門을 앞으로 輸出産業으로 育成해 나가지 않고는 우리나라 發展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機械, 電子를 包含한 廣義의 機械工業은 우리의 戰略産業으로 계속 育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外國과의 競争에서 이길 수 있을 程度로 競争力이 있는 PATTERN으로 育成되어야 한다는 점이 첫번째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機械工業은 技術經驗蓄積에 時間이 걸리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는 하루이틀에 되는것이 아니고 10年, 20年, 또 어떤 先進國의 경우 100年 單位로 이것이 蓄積되어 왔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몇년 單位로 따라가야 하며 이는 어려운 것이지만 무엇인가를 하면서 이를 克服하지 않고는 方法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機械工業 育成에 必要한 莫大한 資金所要를 인프레를 隨伴하지 않고 어떻게 動員하느냐 하

는 어려운 課題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 3. 部品工業

두번째 機械工業育성과 關聯하여 問題가 되어 지는 것은 部品工業입니다. 現在 機械工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部品이 모여서 조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各 部品の 品質이 均質되게 어느 정도 水準으로 올라가지 않고는 어렵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一部에 치우친 育成方式으로는 어려우며 全般에 걸친 均衡的인 産業發展이 要求됩니다.

### 4. 素材工業

세번째 어려운 問題는 素材工業쪽입니다. 鉄鋼, 石油化學등입니다. 이 部門은 資本은 集約的이고 雇傭效果는 적으나 우리의 立場이 어느 程度 安定的으로 素材를 確保한다는 것도 經濟運用에서 매우 重要하고 따라서 이런것을 均衡시키는 方向으로 運用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産業을 選択하는 過程에서 傳統的으로 우리가 苦悶해야 될 部分은 소위 生産性이 낮은 部門을 어떻게 處理해 들어가느냐 하는 問題로서 農業과 流通部門이 問題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比較優位를 維持해 나갈 수 있는 産業을 健全하게 育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技術 및 人力開發部門에 力點을 두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 라. 市場經濟의 暢達

세번째, 우리가 当面하고 있는 課題는 經濟運用의 方式에 關한 것입니다. 위에서 産業을 選択할 때 政府가 選択하는 것이 아니라 民間企業이 自律적으로 選択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經濟運用方式을 民間主導方式, 市場經濟暢達의 方式으로 바꾸지 않고는 能率을 올리기 어려운 段階에 와 있지 않는

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1. 競争促進, 機會均等

經濟運用에 있어서 競争을 促進하고 機會를 均等히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創意力을 發顯시키고 市場經濟體制를 構築하는 것이 우리의 세번째 課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의 保護의 規模를 줄이고 그리고 競争을 促進하고 또 金融自體의 運用도 自律化하는 여러가지 制度改善이 따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制度改善自體가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生活, 慣行과 連結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그와같은 制度改善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 經濟主體의 役割

여기서 問題가 되는것은 첫째 政府의 이와 같은 經濟運用基調를 바꾸어가는 過程에서 政府의 役割을 어떻게 再定立해 가느냐 하는것이 하나의 큰 어려운 課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直接的인 關聯者, 直接的인 介入者의 立場을 떠나 그 規則을 設定하고 그리고 그 規則을 그대로 지키느냐 안지키느냐를 監視하는 機能, 그리고 標準化, 規格化등 檢査機能面에서의 役割, 즉 間接支援을 하는 役割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政府와 民間과의 役割을 다시 어떻게 配分하느냐 하는 問題가 되겠습니다. 이는 現實적으로는 그렇게 쉬운 問題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와 같이 共同運命체처럼 모여서 어떤 事業을 推進하던 關係로부터 脫皮하여 이제는 責任限界를 分明히 하는 方式으로 經濟運用方式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市場經濟構造에로의 轉換을 보다 더 効果적으로 追求해가는 過程에서 제일 問題가 되는 것은 우리들의 意識構造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意識이 어떻게 形成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課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 마. 經濟安定基盤의 定着

네번째 저희들이 当面하고 있는 選択課題는 物価問題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成長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物価가 올라가는 것은 不可避하다고 物価 上昇을 받아들이는 方向으로 經濟를 運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物価가 올라가서는 成長自体가 어려운 그러한 段階에 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市場經濟機能을 제대로 發顯시키려면 인프레 狀況속에서는 機能을 發揮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資源이 없는 나라로써 交易을 통해 經濟를 運用해 나가는 立場에서 인프레下에서 競爭力을 키워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다시 말할 必要도 없는 것입니다.

### 1. 安定為主財政金融政策의 定着

이와같은 物価安定自体에 對해서 反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問題는 物価安定을 위해서 例를들어 通貨를 安定的으로 管理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財政赤字를 줄인다, 그런 過程에서 糧食赤字를 줄인다는등 具體的으로 어떤 階層間的 利害問題와 直結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여러가지 어려운 課題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이와같은 利害調整의 어려움을 解決하여 通貨의 安定管理基調가 되지 않고는 物価安定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 2. 生必需品價格安定으로 國民生活安定

이렇게 物価安定基盤을 마련해 가면서 價格의 直接規制등 經濟活動에의 直接介入을 줄여가지고 價格機能을 市場에 맡기고 公正去來秩序를 形成하는 方式으로 基礎生必需品部門에서는 需給을 管理하는 그런 政策으로 根源的으로 經濟運用方式을 바꾸어 가야 하겠읍니다. 특히 物価安定은 賃金安定과 直結되며 生計費安定, 食料品, 住居費, 그리고 여러가지 保健, 教育, 医療 SERVICE등 이런 部門

의 安定面에서도 物価安定이 絶對적으로 큰 核心課題라고 생각합니다.

#### 바. 社会開發의 擴大

다섯번째 마지막으로서의 選択課題는 社会開發입니다. 우리는 第五共和国에서 福祉國家를 指向해 가고 있습니다. 福祉國家의 定義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가지 구구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一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처럼 正當하게 勞力하지 않고 놀면서 잘 살수 있는 그런 社會는 결코 아니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았을 때 福祉國家를 實現하기 위해서는 그 첫 條件이 무엇보다도 失業者가 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經濟成長이 잘 되지 않아 失業이 늘어나는 狀況下에서 福祉國家는 있을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成長이 되면서 雇傭問題가 解決되는 것이 福祉國家의 첫째 要件이 되겠고, 두번째 物価가 올라가는 狀況下에서 福祉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雇傭增大와 物価安定 이 두가지가 그 어떤 福祉 PROGRAM보다도 于先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課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1. 成長惠沢의 拡散과 基本需要充足을 위한 社会開發擴大

여기에 세번째 課題가 되는 것은 能率만 極大化되어 가지고는 社会安定을 確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側面에서 競争을 促進시켰을때 競争脱落者問題가 있으며 그리고 基本的으로 低所得層 問題가 있고 絶對 貧困層 問題가 있습니다. 그래서 大韓民國 國民으로서는 最小限度 基本的으로 어느정도 需要를 充足해야 하는 問題, 즉 基本需要充足의 問題도 소홀히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部門에 우리의 能力에 맞추어 상당한 配慮를 해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2. 社会開發擴大에 따르는 國民의 適正負擔

다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問題가 있습니다. 첫째는 負擔이 따른다는 이

야기 입니다. 福祉部門의 支出을 늘이려면 그만큼 負擔이 따르는데 負擔은 結局 税金으로 充当하는 수 밖에 方法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6年度 租稅負擔을 22%까지 올리는 問題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福祉支出自体를 가지고 反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租稅負擔을 올리는 問題라면 모든 사람이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税金負擔없이 福祉部門支出을 늘인다는 것은 不可能하기 때문에 결국 税金負擔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与件이 南北對決에 있습니다. 그래서 GNP의 6%가 國防費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絶對經費를 支出해야하는 狀況下에서 어떻게 經濟發展을 하면서 또 基本需要를 充足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基本的으로 어려운 課題가 되고 있습니다.

### 3. 福祉支出의 優先順位

그 다음 問題로 우리가 租稅負擔을 높여 福祉支出을 한다면 그 福祉支出의 優先順位가 問題가 되겠습니다. 어떤 部門에 이것을 써야되겠느냐는 물론 基本的 需要側面도 配慮해야 되겠습니다만 力點을 두어야 할 점은 貧困의 世襲을 막는 쪽에 써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現在의 貧困層 子女가 繼續해서 貧困層으로 남는 것을 막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두가지 問題가 解決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教育이요 둘째는 身體가 健康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營養, 保健管理 및 教育機會를 어떻게 擴大하느냐 하는 것이 貧困을 世襲化하지 않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社會開發이라 하더라도 教育, 保健, 營養등의 側面에 配慮를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最小限 사람이 살아가는데 必要한 上水道問題, 下水道問題등의 配慮도 해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와같은 社會開發을 해 나갈 때는 무엇보다도 負擔이 따른다는 것을 깊이 銘心해야 하며 이를 맞추어 가지 않을 때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 要約 및 結論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国内外与件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經濟運用은 對外開放指向의 일 수 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競爭力이 問題가 되는데 産業의 競爭力을 키우자면 比較優位産業을 育成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을 어떻게 選拔하느냐는 方法은 市場機能에 맡길 수 밖에 없고 市場機能을 제대로 살리려면 物價安定이 되어야 겠고 그와 같은 過程, 즉 經濟能率을 올리는 過程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不均衡問題를 是正하기 위해서 社会開發部門에서 어느 程度 調整해서 均衡을 맞추어 갈 수 밖에 없다는 5가지 課題로 集約이 되겠습니다. 結局 우리는 過去에 經濟가 거의 없는 狀態에서 即, 無의 狀態에서 지난 20年間 經濟建設을 하여 오늘날 GNP는 4.5倍以上 規模로 키워 왔으며 1人當 GNP도 1961年度에 비해 3倍以上 키워 왔습니다. 또한 여러 面에서 發展을 이루어 왔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그러나 經濟發展段階에 맞춰서 經濟運用方式도 그때 그때 달라져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過去에 成功했던 方法 自体가 앞으로도 그대로 成功하리라는 保障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現在 우리는 우리의 發展段階에 맞추어 하나의 큰 轉換을 해야 할 時點에 와 있지 않은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같은 轉換을, 즉 지금 말씀드린 5가지 基本的 課題들을 適切히 잘 解決하지 않고는 7~8%의 成長, 10%線의 物價安定 그리고 國際收支의 管理, 이와 같은 어려운 課題들을 같이 解決하기가 어렵고 特히 우리가 南, 北對決하고 있는 마당에서 北韓을 經濟力으로 누르고 우리의 經濟優位를 確保해가면서 國際社会에서 우리가 몇몇하게 模範國家로 행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結局 우리는 그와 같은 課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國民的 에너지를 總 集結해 나갈 수 밖에 方法이 없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께서는 企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企業家は 우리 經濟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無에서 有를 創造해가는 創造者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企業家 여러분에게 期待하는 바가 매우 크며 特히 國際協力이 不可避한 立場에서 日本의 企業家 여러분에게도 期待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時間關係上 5 個年計劃의 仔細한 內容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重要的 概要에 對해서만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時間이 넉넉하면 仔細한 內容을 말씀드릴 機會가 있기를 期待하며 이만 끝낼까 합니다. 感謝합니다.

## 〈基調演說〉

### 韓日經濟協力の 問題點과 解決方向

成均館大學校 經商大學

教授 安 霖

韓日 두 나라의 經濟界指導人士들이 모인 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에서 「韓日經濟協力の 問題點과 解決方向」에 關하여 私見의 一端을 披瀝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우선 謝意를 表明합니다.

韓國의 近代化作業에 있어서, 韓國이 스스로 加工貿易立國과 輸出優先政策을 採擇하고 工業化政策을 推進하는 여러 段階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主軸이 되어 各 段階에 適合한 協力方案을 主體的으로 實踐하였고 나아가서는 各己 相對國 政府에 適切한 政策建議을 함으로써 國家間的 經濟協力方式에 示範的인 典例를 남겼다는 데 對하여 充分한 評價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1962 年에 시작하여 今年으로 끝나는 4 次에 걸친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의 實踐에 依하여 一旦 近代的인 新興工業國家의 經濟的與件을 갖추으로써 소위 아시아의 停滯性에서 벗어나서 急速히 合理主義, 能率主義, 功利主義가 支配하는 現代工業社會로 移行하였습니다.

출근 10% 前後의 高度成長率을 堅持하여오다가 79 年에 6.4%, 80 年에 -5.7%라는 經濟後退를 경험하였으며, 81 年에는 6%의 成長率을 豫

想하고 있습니다. 80 年の急降下는 油價波動과 世界景氣鈍化 以外에도 政權交替期の 政治的・社會的 衝擊에 그 原因이 있었던 것입니다. 事實 인즉 韓國經濟는 70 年代末에 들어가 質的으로나 量的으로나 더욱 伸張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77 年에는 4 次 5 個年計劃을 2, 3 年 앞당겨, 史上 처음으로 經常收支의 黑字를 記錄하는 등 一大 轉換期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貿易自由化에의 展望을 밝게 하여 78 年 5 月에는 第一次로 321 個 品目, 同年 9 月에는 299 個 品目을 自由化하여 80 年代 中期에는 93 %의 自由化率을 實現할 豫定입니다. 外換自由化面에서도 外換全面集中制를 크게 緩和시키고 經常貿易 및 貿易外去來支給의 自由化를 계속 擴大함으로 써 80 年代 中盤까지는 IMF 8 條國에의 移行과 OECD 加入의 先行的條件을 갖출 것으로 展望됩니다. 특히 今年末에는 資本自由化의 첫段階로서 國際投資信託을 실시할 豫定입니다. 韓國經濟의 發展이 이처럼 圓滑하게 進行된다면 韓國經濟의 國際化, 自由化는 80 年代末에는 거의 先進國水準에 到達하여 應分の 國際的責任을 履行할 것으로 믿읍니다.

80 年代를 맞아 韓國經濟는 큰 轉換期에 處해 있으며 轉換하는 過程에 있어서 이미 蓄積된 潛在成長率을 實現시킬 수 있으리라고 展望됩니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습니다. 比較優位는 勞動集約型으로부터 技術・資本集約型으로 轉換되고 있으며 이러한 生産性이 높은 産業으로의 移轉이 機敏性있게 進行되고 있습니다. 또 既存技術蓄積 以外에도 80 年代에는 年 3 %의 새로운 熟練勞動人口의 自然增加를 期待할 수 있습니다. 輸出市場의 계속적인 擴大 以外에도 安定된 國內市場擴大의 가능성을 豫期할 수 있습니다. 重化學工業部門의 迅速한 再調整과 더불어 앞으로 選別的 大型投資가 期待됩니다. 이와 同時에 素材産業이 國產化되고 中小機械工業部門이 擴大되어 産業聯關度の 波及效果가 크면 클수록 投資가 投資를 부르

는 經濟擴張이 可能해집니다. 新興工業國家로서 先進工業國과 開發途上國에 對한 中間緩衝的 役割이 漸高될 것이며, 資本自由化 등 前向的인 國際經濟에의 參與意志는 信賴를 扶植할 것이며, 經濟開發과 社會開發의 均衡을 期한 第5次經濟計劃은 明朗한 現代福祉社會의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民族的 에베르기와 信念, 企業人의 旺盛하고 創意的인 事業慾, 勤勞者의 誠實性和 勤勉性, 高水準의 教育程度 등은 福祉社會 實現을 指向한 韓國의 前進를 계속 保障할 것입니다.

나는 以上과 같은 韓國經濟의 發展段階의 變화와 새로운 環境을 土臺로 하여 至今까지의 韓國經濟協力의 問題點을 回顧하는 동시에 새로운 環境에 알맞는 解決方向을 摸索하고자 합니다.

다음에서 資本協力, 技術協力 및 貿易協力 등에 대하여 時間上 잘된 점은 덮어 두고 앞으로 改善의 必要가 있는 점만을 喚起하고자 합니다.

于先 資本協력을 總括한다면 80年末 現在로 導入된 日本資本은 借款이 34億 9,000萬弗(公共借款 10億 4,000萬弗, 商業借款 24億 5,000萬弗)로 全體借款의 19.2%, 直接投資는 6億 2,000萬弗로 全件數의 74.9%, 全金額의 56.3%를 차지하고 있으며 日本資本 總額은 41億 1,000萬弗에 達하고 있습니다.

資本協力の 基本性格을 보면 1966年~73年間에는 請求權資金을 中心으로 한 日本國家資本에 依한 파이롯트(pilot)投資가 先導하였고 이것은 日本民間資本進出의 터잡기役割을 하였었습니다. 74년부터 韓國이 重化學工業部門으로 移行하자, 民間商業借款이 延拂輸出形式으로 役到하였습니다. 商業借款은 大企業 對 大企業의 垂直關係에서 프로젝트別로 플랜트輸出이라는 형태로 供與되었습니다.

한편 對韓直接投資는 71년에 美國을 앞지르기 시작하였지만 小規模였고 輕工業 특히 雜製品部門에 集中되었고 76年以後에 겨우 化學, 金屬, 機

械部門에 注入되었습니다.

韓國政府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民間借款에 對하여 支拂保證을 하였고 各種 인센티브를 附與하였고 빠른 投資回收를 可能하게 하였습니다. 東南亞의 一部國家에서는 日本借款을 高利貸金이라고하여 떠들고 있지만 韓國에서는 거의 是非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資本協力이 韓國經濟에 寄與하였다는 證據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資本協力方式에 있어서 若干의 問題點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日本資本을 가지고 世界에서 購買를 한 것이 아닙니다.

韓日經濟協力の 具體的으로 資本協力の 基本方式은 日本의 大企業과 韓國의 大企業間에 프로젝트別로 進行되었으며, 對韓 플랜트輸出이라는 형태를 띠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當然히 韓國의 國內産業間的 聯關 또는 波及效果를 特定産業에 局限시키거나 重複投資 또는 過剩投資를 招來하였습니다. 이리하여 經濟協力の 效果는 拡散되지 않고 國民의基盤이 弱하게 되었습니다. 더우기 素材工業이나 中小機械工業의 育成을 等閑視하였습니다. 이리하여 現在의 韓日間 分業體系는 日本의 重化學工業特化, 韓國의 輕工業特化를 基軸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貿易에 投影되어 交易條件을 不利하게 할뿐만 아니라 對日入超의 論理的, 潛在的 要因을 만들고 있습니다.

韓日經濟協力の 國民의基盤을 擴大하기 위하여는 日本側은 앞으로 農業開發工業(agro-industry), 中小企業近代化 특히 中小機械工業, 公害産業을 防止하기 위한 福祉産業部門, 基礎科學 등 教育部門, 食品加工業 등에 格別한 關心을 가지기를 希望합니다. 日本에서 이미 中小企業을 中堅企業이라고 부르는데 이에는 意味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精密機械·化學·金屬工業分野에서 日本의 關聯中堅企業群이 한 組가 되어 가지고 地域別로 원셋트移轉을 實施하는 方案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技術導入은 件數 995 個로서 全體의 57.6%, 代價支給額 1億 6,800

萬弗로서 全體의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技術에 있어서도 對日依存이 甚하나 75年以後 그 比重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重化學工業化에 따라서 技術導入先을 多邊化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導入된 技術은 所謂 後發技術로서 標準化段階의 技術입니다. 이것은 웬만한 나라들이 쉽게 模倣할수 있으므로 同質的인 工業化體質을 實現하여 競爭단계에 들어 갑니다. 우리는 이제 成長段階의 尖端技術이 必要하게 되었습니다. 日本의 技術保護는 本能的으로 恪別한바 있어 우리는 歐美에 期待를 걸지 않을 수 없습니다. 先進國에서 有効성이 적어진 輸入技術도 受容體制와 適應能力이 一定한 技術進步率을 實現하고 있는 限 後發國도 利益을 누릴 수 있는데, 이제는 그 限界에 到達했습니다. 거듭 主張하거니와 現在 韓國이 要請하고 있는 技術은 標準化段階의 普遍的인 技術이 아니라 製品의 高級化를 志向하는 成長期段階의 尖端技術인 것입니다. 71年以後의 新開發技術은 導入技術의 10% 未滿으로 推定하고 있습니다.

當面課題로서 製品의 高級化, 高技能化를 위하여 電子·纖維部門의 高級技術의 移轉을 바라고 있으며, 將來에는 에너지節約, 代替에너지技術, 其他 廣範한 시스템技術의 移轉에 관하여 恪別한 關心을 表明합니다.

다음으로는 韓日間の 宿痼나 다름없는 貿易不均衡問題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貿易規模는 1965년에는 2億달러를 약간 上廻하던 것이 79년에는 100億달러, 80년에는 89億달러에 達하였습니다. 80年の 對日輸出은 30億 3,900萬달러로서 全體의 17.4%, 對日輸入은 58億 7,200萬달러로서 全體의 26.3%입니다. 對日輸入 依存度는 1965年の 35.9%에서 80년에는 26.3%로 低下되었으나 對日入超는 慢性化되어 65年の 1億 2,260萬달러에서 79년에는 33億330萬달러, 80년에는 28億3,300萬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總貿易收支赤字에서 對日入超가 차지하는 比重은 79년에 75%, 80년에 59%였습니다.

다. 1966年~80年間の 韓日貿易을 總決算하면 對日輸出 181億 8,040萬달러, 對日輸入 372億 2,580萬달러로서 總對日貿易收支赤字累計는 190億 4,540萬달러라는 巨額에 達하였습니다. 이것은 前記한 바와같이 借款, 直接投資까지 包含하여 日本이 韓國에 供與한 資本協力總額 41億 1,000萬弗의 약 4.6 倍에 該當됩니다. 對日入超는 10億달러 水準을 유지하여 오다가 70年代 後半부터는 더욱 惡化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써 알수 있는 바와같이 1965年 國交正常化 以後 16年에 걸친 韓日經濟關係는 對等한 關係가 아니라 對日依存關係를 더욱 深化하게 하였습니다. 韓國側의 立場에서 보면 對日入超分을 80年度를 除外한 나머지 年度에 있어서는 對美國出超分으로써 決濟하여 왔다고 解釋하여도 過言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韓國, 日本, 美國 등 三國間協力에 있어서 어딘가 釋然치 않은 問題를 남길 素地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市場多邊化에 依하여 第3國에의 出超로써 決濟源을 擴大하여갈 것을 期待합니다.

이와 같은 韓國의 慢性的인 對日入超貿易은 本 經濟委員會에서 뿐만 아니라 兩國政府間에서도 年例行事처럼 舉論되고 있으나 시원스러운 對策이 없었다는 점을 遺憾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原因을 整理하면서 슬기로운 互惠的 對策을 定立할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國際收支赤字는 원래 國內經濟 內部에 그 原因이 있다는 意味에서 對日入超의 第一次的 要因은 韓國에 있다고도 指摘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同時에 兩國에 있어서 政策的, 政策外的인 複雜한 原因이 潛在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로 韓國의 對日資本技術의 偏重된 依存性은 그대로 貿易依存性 特別히 輸入依存性을 通하여 慢性的인 對日入超現象을 固定化시켰습니다.

둘째로 韓國의 産業構造의 未熟으로 因한 競爭力의 相對的喪失에도 原因이 있습니다. 競爭力을 強化하기 위하여 産業構造를 高度化하고 工業化政策에 의하여 輸出을 擴大하는 努力을 할수록 對日輸入이 더욱 增大한다는 矛盾이 現在의 狀況입니다.

그것은 輸出用的 原資材의 一部, 中間財 등을 日本에 依存하고 있고 또 各種 部品の 導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與件下에서의 輸出優先型的 重化學工業政策은 輸出産業과 內需産業(大部分은 中小企業임)이라는 二重構造를 形成하여 이 兩部門間的 系列化, 專門化, 協業化 등 有機的인 聯關度가 낮게 되었습니다.

특히 74年以後의 韓國의 重化學工業政策으로의 移行은 從來의 原資材輸入以外에도 機械類, 産業機材 등 中間財輸入을 誘發하여 對日貿易逆調를 深化시키고 있습니다. 對日貿易赤字의 最近의 要因을 보면 그 赤字의 約 70%가 機械類輸入에 基因하고 있습니다.

韓國側은 對日入超改善을 위하여 重化學工業部門의 再調整, 素材工業 및 中小機械工業部門의 育成에 의한 國產中間財代替, 輸入先轉換, 交易條件의 改善, 國內市場의 安定化 등에 注力하고 있으나 相當한 時日이 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韓國의 貿易依存度는 80年現在 80%로 深化되고 있으며 輸出入市場도 55% 前後에서 日·美市場에 偏重되고 있어 構造的인 弱點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輸出入商品構造도 아직은 脆弱합니다. 輸出商品은 主로 先進國의 規制對象이 되고 있는 纖維類, 輕工業製品이며, 輸入商品은 需要의 價格彈力性和 關係없이 거의 必需原理에 의하여 輸入되는 原資材 및 資本財이므로 短期的으로는 輸入代替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脆弱한 貿易構造는 아직도 高度化되지 못한 工業構造가 그대로 投影된 때문입니다. 興味있는 例를 들면 偶然하게도 輸出104億弗을 達成한 해는 日本이 1967年, 韓國이 1977年이었



는데, 그때 輸出工產品中 重化學製品輸出率은 日本이 64.2%, 韓國이 39%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韓國은 日本의 半쯤되는 重化學工業水準을 가지고 同量の 輸出을 하였읍니다. 이로써 輸出戰線에 總力을 기울인 意味를 理解하실 줄 압니다. 81年度の 重化學工業化率(全製造業生産에서 重化學工業生産이 차지하는 比重)의 計劃値는 52%이므로 어려운 事情은 如前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흔히 貿易逆調와 關聯하여 協力の 새로운 方向으로 垂直的分業에서 水平的分業으로의 轉換, 또는 同伴關係 등의 表現을 쓰지만 이러한 政策轉換은 兩國의 産業構造의 調整, 따라서 産業政策, 貿易政策 등의 綜合的調整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常識입니다. 따라서 本 委員會에서도 이미 論議된 그러한 長期協力構想은 別途로 中長期研究課題로 미루고 緊急한 問題부터 解決해야 하겠읍니다. 무슨 艱難한 方法은 없읍니다만 順理대로 韓國이 日本에 많이 輸出하고 輸入을 節度있게 選別하는 수 밖에 없읍니다. 이를 위하여는 貿易擴大均衡委員會에서도 建議한 바 있는 特化係數가 큰 1, 2次產品의 安定輸出을 위한 長期契約, 商品의 高級化, 新規商品의 開發과 契約栽培, 크레임의 迅速解決, 協力輸出의 方案 등을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對日逆調의 要因으로서 日本의 關稅 및 非關稅障壁을 다시 들게 됨을 펴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日本의 産業保護와 關聯되는 問題로, 꾸준한 政策調整이 必要합니다. 關稅率의 引下, 特惠關稅制度의 運營改善은 勿論이거니와 輸入許可制, 輸入事前許可制, 輸出自律規制, 輸入窓口的一元化, 行政上的의 窗口規制, 複雜하고 閉鎖적인 日本 特有의 商去來慣習과 流通構造 등 非關稅障壁의 緩和를 要請할 수 밖에 없읍니다. 韓國의 農水產品, 纖維 등 輕工業製品, 金屬製品 등은 계속 여러 政策의 轉換點에서 規制對象이 되어 왔읍니다.

끝으로, 나는 日本이 宣言한 環太平洋經濟共同體의 構想에 對하여 非常한 關心을 가집니다. 韓日長期經濟協力構想도 基本的으로는 그러한 構想 속의 二國內의 雙務的인 協力이라고 생각합니다. 韓日兩國間에 있어서도 日本이 素材産業의 一部를 讓與한다든지, 同一産業內에서도 比較優位性에 立脚하여 具體의 品目베이스에서 産業內分業을 調整할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日本이 急速度로 시스템화된 知識産業으로 移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海外資源의 共同開發, 플랜트輸出, 建設輸出, 海外投資, 海外金融會社設立, 에너지開發, 海洋開發, 動態的인 地域別分業體제의 造成 등 協力課題는 山積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協力は 결코 競爭的, 對抗的 摩擦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兩國의 産業構造를 高度化하는데 있어서 補完的, 調整的 役割을 할 것입니다. 日本은 이미 70年代末에 世界GNP의 1割을 차지하는 經濟大國으로 飛躍하여 그 經濟的, 道德的 責任은 避할 道理가 없습니다. 韓國도 先發中進國으로서 海外投資, 延拂輸出 등에 있어서 國際的 責任의 一端을 分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0年代 後半부터 시작한 海外投資는 80年 6月 現在 1億 4,000萬弗에 達하며 其中 약 80%를 開途國이 차지하고 있고, 醫療救護 등의 無償援助와 保健衛生, 農水産分野의 技術援助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對外經濟協力は 아시아地域에 集中되고 있습니다. 韓日兩國은 아시아地域의 여러 國家들이 疑心함이 없이 共同生活圈에 參與할 수 있도록 互惠平等의 國際行動原理를 表明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韓日間의 經濟關係는 오늘날 日本에 있어서 質的으로는 美國에 다음가는 重要性을 띄우고 있다고 判斷합니다. 日本의 世界와의 往復貿易量을 보면 美國 500億달러, 韓國 90億달러, 西獨 60億달러, 英國 40億달러, 프랑스 20億달러입니다. 또 日本의 國別出超額을 보더라도 美國 100億달러, 韓國 30億달러, 西獨 16億달러, 英國 9億달러, 프랑스 3億달러 程度입니다. 이와같은 數

字以外에 韓日間の 빈번한 人物交流에서 비롯되는 社會的, 文化的關係의 深化를 생각한다면 韓日關係의 重要性은 더욱 高調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意味에서는 韓國의 工業化가 進展된 現在와 같은 條件下에서 서로 負擔感없이 對等한 互惠的關係를 定立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 사이의 經濟協力の 最終目的과 眞價는 生活水準의 向上을 通한 精神的인 文化生活의 高揚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現在의 어느 世代, 어느 階層의 利害의 授受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널리 國民과 國民과의 幅넓은 理解와 接觸에 基礎를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國民的基盤을 擴大하여야 되겠다는 當爲의 目標을 設定한다면 우리는 50年, 100年 앞을 透視하는 遠大한 協力を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目標가 遠大하고 高尚할수록 目前의 小利를 버리게 되고 參與 協力の 本質과 姿勢를 理解하게 될 것입니다.

80年代는 人類의 產業文明의 段階에 있어서 흔히 知識產業의 새로운 時代가 開幕될 것이라고 期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으로 美國의 힘이 相對적으로 떨어지고 中東產油國의 힘이 加重하는 한편 開發途上國의 構造的인 隔差는 조금도 改善되지 않은 가운데서, 世界의 多元化, 分極化가 더욱 進行될 展望이 큼니다. 어떻게 보면 不確實性, 不安定性이 더해가며, 소위 「不均等發展」이 더욱 顯在化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韓日 두 나라만이라도 緊密한 經濟協力を 結實시켜 確實性을 扶植하여 간다는 것은 世界에 대한 崇高한 責務라고 自負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韓日關係는 날이 갈수록 地理的, 文化的, 歷史的인 共同體意識을 깊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日本의 古代國家形成期에 즈음하여 韓國의 清純한 傳統文化가 傳授되어 飛鳥文化 등 神秘로운 古代文化를 꽃피운 韓日蜜月時代는 現代의 意味에서 再現되어져야 할 兩國關係定立의 精神의 道標가 아닐 수 없습니다.

感謝합니다.

## 〈基調演說〉

### 日本經濟의 動向과 앞으로의 日韓關係

日本長期信用銀行  
取締役副頭取 秋田兼三

오늘 朴泰俊團長님을 비롯한 韓國側代表團 및 日本側代表團 여러분을 모시고 最近의 日本經濟의 動向과 앞으로의 日韓關係에 對해서 말씀드리게 된것을 無限한 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一九八〇年度의 日本經濟의 概要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一九八一年度の 展望에 言及한 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日韓關係에 關해서 저의 私見을 披瀝하고자 합니다.

#### (1) 第二次石油波動的의 影響과 國內「인플레」의 防止

日本經濟에 있어서의 一九八〇年度는 第二次石油波動的의 影響을 크게 받아, 그것을 克服하기 위한 努力이 傾注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즉 日本의 都売物価는, 一九七九年 부터 八〇년에 걸친 油価의 急騰과 이에 따른 円「레이트」의 下落을 反映하여 八〇年 봄까지 大幅的인 上昇을 記錄하였습니다. 이러한 輸入物価의 上昇이 物価의 先高期待를 불러 일으켜, 在庫投資가 急速히 擴大됨으로써 國內의 全般的인 物価上昇으로 進展할 可能性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政府는 數次에 걸쳐 公定利率을 引上하고 公共投資를 延期하는등 強力한 物價對策을 實施하였습니다.

이러한 緊縮政策이 浸透된 結果, 一九八〇年度에 들어서는 企業들이 景氣後退를 豫想하여 賃金引上에 慎重을 期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勞動組合들도 石油波動을 考慮하여 妥當한 線에서 賃金引上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結果로, 一九八〇年の 여름 부터는 物價가 安定되기 시작하여, 国内「인플레이」의 防止에 成功할 수 있었습니다.

## (2) 消費支出의 低調

「인플레이」가 鎮靜됨에 따라 緊縮政策이 一段落지어 지고 八月에는 公定利率이 引上되었습니다.

그러나 個人消費의 伸張率의 鈍化가 여름 以後에도 繼續되었고, 또한 住宅投資는 每期마다 不振度가 增大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中堅中小企業의 設備投資에 暗影이 깃드는등 最終需要의 回復이 遲延됨에 따라, 在庫調整이 相當히 長期化되고 景氣는 一九八〇年 봄부터 年度末까지 停滯를 繼續하였습니다.

實質 個人消費支出의 低調가 繼續된 理由로서는 첫째로 實質所得의 低下를 들 수 있으며, 여기에 冷夏의 影響이 添加되었습니다.

덥지 않은 여름을 맞아 冷房機, 冷藏庫등 여름用 家電製品, 麥酒등의 飲料, 여름 레저등의 支出이 抑制되었는바, 여기서 節減된 費用의 一部만이 다른 支出에 轉用되었기 때문에 總體的인 消費는 鈍化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冷夏로 因한 農作物의 凶作 때문에 農家所得이 減少되어, 農家消費의 低下를 招來한 面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冷夏가 個人消費支出全體의 停滯에 끼친 影響은 極히 적었고 가장 큰 要因은 實質所得의 増大가 低下되었기 때문이 었습니다. 즉 一九八〇年度の 消費가 鈍化한 主要原因은 消費性向이 安定的으로 推移하는 가운데 實質可處分所得이 低下한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實質可處分所得이 增大되지 않은 까닭은, 基本的으로는 安定的이었던 春季賃金引上率로 因해 名目定期收入의 伸張이 6 ~ 7 % 였던데 反하여 消費者物價는 7 ~ 8 %로 若干 높은 上昇率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名目收入의 減少는 「보너스」收入의 增加와 妻의 收入등으로 커버 되기는 하였읍니다만, 物價上昇의 「마이너스」效果를 相殺하기 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消費支出의 低調 以外에도 景氣停滯의 主要한 要因으로 住宅投資의 不振을 들 수 있습니다. 住宅投資가 下落된 原因은 長期的인 要因과 短期的인 要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一九八〇年度는 이 두가지 要因이 겹쳐진 해 였다고 말 할 수 있겠읍니다.

長期的 要因으로서는 一九七五年以後로 世帶數가 安定的인 推移를 보이고 있다는 것, 人口의 移動이 甚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既存住宅의 平均年齡이 젊어지고 있다는 것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長期的要因들로 미루어 본다면, 一九七五年以後는 住宅需要가 크게 늘지 않는 時期라 생각됩니다.

短期的要因으로서는 첫째로 위에서 말씀 드린 實質所得의 低下를 들 수 있겠읍니다. 둘째로는 地價의 急騰입니다. 住宅取得費를 垜地購入費와 住宅建築費로 나누어 보면, 日本은 外國과 比較해서 垜地購入費가 特히 비싸고 이것이 住宅取得을 어렵게 만드는 큰 要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要因들에 添加해서 一九八〇年度의 住宅金融公庫의 融資限度가 前年對比 二萬戶나 削減된 것이 住宅投資不振의 하나의 要因이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 (3) 設備投資의 增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消費支出의 低調, 住宅投資의 下落등 때문에 一九八〇年度의 日本經濟는 景氣沈滯의 局面에 處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實質의 GNP는 4.7%라는 成長率을 記錄하였읍니다. 이것은 主로 設備投資와 輸出이 增加基調를 持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一九七八年の後半期以後 設備投資는 自律的인 上昇局面에 들어섰으며, 그 後 一九七九年後半以後의 第二次 石油波動의 發生과 金融緊縮의 進行에도 不拘하고 堅實한 伸張을 持續하였습니다.

그 背景에는 一九七三年의 第一次 石油波動以後 一九七七年까지 設備投資가 沈滯를 繼續하였기 때문에 企業의 改替投資必要性이 커진 事實이 存在합니다. 또 企業은 第一次石油波動以後에 減量經營에 努力을 기울임으로써 損益分岐點을 引下하였던 까닭으로 景氣가 沈滯된 狀況下에서도 利益을 確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景氣가 沈滯된 時期였음에도 不拘하고 企業들이 長期的인 眼目에서 設備投資를 實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全體的으로 設備投資가 增加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內容을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은 特徵을 指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製造業의 設備投資가 前年度에 이어서 相當한 「템포」로 增加하고, 또한 電力業의 設備投資가 大幅的으로 增加됨으로써, 非製造業이 一九八〇年度에 는 相當히 크게 伸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製造業 가운데서는 素材型에 비해 加工型인 自動車, 電氣機械, 一般機械 등 産業의 設備投資의 増大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一九七九年度以後 輸出과 設備投資를 中心으로 需要가 擴大되는 가운데, 加工型産業의 需要増大가 컸고 需給上의 「갭」이 急速히 縮小된 때문입니다. 더욱이 自動車産業에 있어서는 美國과 유럽의 메이커들에 對抗하기 위한 世界的인 小型車開發競争에 있어서 技術革新 및 研究開發의 必要性이 높아져, 이것이 設備投資의 大幅増大의 하나의 要因이 되었습니다.

設備投資動向의 세번째 特徵은 「에너지」節約投資의 增加라 하겠습니다. 「에너지」節約投資가 活潑해진 理由로서는 第二次石油波動을 體驗한 까닭에 앞으로도 石油制約은 避할 수 없는 長期的인 課題라는 判斷이 企業들 사이에 定着한 點을 들 수 있습니다. 長期的으로 「에너지」節約을 強力하게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는 判斷이 있을 때, 既存設備은 「에너지」節約이라는 觀點에서 보았을 때 不滿  
足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러한 「갭」을 補完하기 위해 「에너지」節約  
投資가 急増하였다고 생각됩니다.

設備投資의 네번째 特徵은 이 해의 中盤以後, 中堅中小企業의 設備投資에 「슬  
로우 다운」하는 움직임이 보였던 點입니다. 中堅中小企業은 適應力이 敏捷하기  
때문에 景氣變動에 迅速한 反應이 可能하며, 또한 中堅中小企業 쪽이 金融動向  
에 左右되기 쉽기 때문에, 一九七九年度以後의 金融緊縮의 侵透, 一九八〇年度  
以後의 景氣沈滯에 隨伴하여 中堅中小企業의 設備投資가 鈍化하였다고 생각  
됩니다.

#### (4) 輸出의 增加

設備投資와 더불어 一九八〇年の 景氣를 지탱하는 役割을 擔當한 것이 輸  
出이었습니다. 石油波動以後로는 第一次石油波動의 境遇에도 이번의 境遇에도  
內需가 늘지 않는 反面, 輸出이 크게 伸張하는 共通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油價의 上昇으로 惹起된 側面이 있다 하겠습니다. 즉 石油輸出國  
들은 大幅的으로 增加된 所得을 輸入으로 돌리려 하기 때문에 日本의 石油輸出  
國에 對한 輸出이 增加하게 됩니다. 또한 石油輸出國에 對한 輸出增加로 因해  
生産水準이 높아진 國家에 對한 輸出도 增加하게 됩니다.

輸出이 增加된 原因 가운데는 圓이 強勢로 부터 弱勢로 向하는 振幅이 커서 相  
對價格의 有利化가 急激히 進展되었다는 點이 있습니다. 一九七八年末以後에 圓  
이 弱勢를 持續하는 過程에서 賃金「코스트」와 都賣物價가 低下함으로써 一九八  
〇年初 까지에는 日本의 價格競爭力이 圓의 強勢가 시작되었던 一九七五年 유럽  
의 水準 까지 回復되었습니다. 이러한 價格競爭力의 急激한 變動이 時差를 隨  
伴해서 輸出數量에 波及되어, 一九七九年後半期以後의 輸出增加를 가져왔다고  
생각 됩니다.



輸出增加의 또 하나의 理由로서 重要的 것은 小型乘用車, VTR, 自動制御裝置附着工作機械等 日本의 競爭力이 매우 강한 製品의 需要가 本國을 中心으로 急增하였다는 點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한 競爭力은 價格은 물론이려니와 良好한 品質, 優秀한 性能등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非價格 競爭力은 技術力以外에도 勞働者의 質이 높은 데에도 基因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勞働者의 教育程度, 道德性이 堅持되는 雇傭制度, 部品「메이커」와 「앗셈블리메이커」와의 關係, 그리고 이들 背後에 있는 日本의 文化的인 特色이 歐美로 부터 注目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 (5) 石油波動의 克服

지금 까지 景氣動向에 對해서 어느 程度 詳細히 말씀 드렸읍니다만, 一九八〇年度의 日本經濟를 回顧한다면 第二次石油波動이라는 試鍊에 直面하면서도, 經常收支의 大幅的인 改善, 「인플레이」의 防止, 雇傭의 維持에 成功하였읍니다. 좀더 具體的으로 말씀 드린다면, 經常收支의 赤字는 一九七九年度의 139 億「달러」로 부터 一九八〇年度에는 73 億「달러」로 減少되었읍니다. 物價上昇은 一九八〇年中盤期以後로는 鎮靜趨勢를 보여 年間都賣物價上昇率은 13.5%, 消費者 物價上昇率은 7.5%에 그쳤읍니다. 그리고 景氣의 沈滯에도 不拘하고 雇傭情勢는 特別히 惡化됨이 없이 完全失業率이 2% 前後로 維持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日本經濟의 基礎가 良好하기 때문에 海外로 부터의 對日證券投資가 大幅的으로 增加하여, 一九七九年에는 24 億「달러」였던 것이 一九八〇년에는 120 億「달러」에 이르렀읍니다.

그런데 石油波動을 克服한 日本經濟의 強力함에 對하여 모든 外國의 關心이 集中되어 있읍니다만, 저의 私見을 말씀드린다면 日本經濟의 強點은 國民과 企業들의 크나 큰 努力의 結果이며, 피와 땀의 結晶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油價의 上昇은 石油輸入國으로 부터 石油輸出國에로의 所得移轉을 가져와, 이

번 石油波動으로 인한 日本의 所得移轉, 즉 實質所得의 減少는 GNP를 4% 引下시키는 程度의 規模로 計算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實質所得이 低下되는 過程에서는 賃金引上이 物價上昇率을 完全히 따라잡기는 어려우며, 또 生産性이 上昇한 만큼의 分量을 그대로 賃金引上에 轉移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万若 그렇게 한다면 企業의 收益이 壓迫을 받고 國內의 「인플레이」壓力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實際로 日本에서는 一九七九, 八〇의 二年間, 賃金引上率이 生産性上昇率을若干 밑도는 水準에서 이루어짐으로써 勞動分配率이 變함 없이 維持되었던 것입니다.

以上과 같이 至極히 妥當한 水準에서 賃金引上이 이루어짐으로써 賃金引上和 物價上昇의 惡循環을 沮止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勞動分配率의 安定은 企業收益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防止하고 堅實한 設備投資를 지탱케 하는데 主要因이 되었습니다.

한편, 賃金引上率이 安定的인 範圍에 머문 結果, 家計의 實質所得이 低下하고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個人的 消費支出이 低調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石油波動으로 인한 實質所得의 低下量의 相當部分을 家計가 負擔하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第一次石油波動以後의 調整過程에 있어서는 大幅的인 賃金引上이 이루어져서 勞動分配率이 急上昇하였기 때문에 企業收益이 顯著하게 惡化하였었습니다. 즉 前番의 石油波動에서 온 負擔은 主로 企業에 돌려졌던 것입니다. 企業들은 省「에너지」化, 省力化, 生産効率의 向上등에 의한 生産性向上에 努力하는 한편 金利負擔의 輕減등을 꾀하여 數年 걸려서 그 負擔을 解消하였던 것입니다.

#### (6) 一九八一年度の 展望

그러면 다음에는 日本經濟의 一九八一年度の 展望에 對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個人消費는 春季鬭爭에 의한 賃金引上率이 昨年 보다 높고, 物價가 鎮靜化되고 있음으로 昨年과 같은 低調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豫想됩니다. 設備投資는 大企業을 中心으로 基礎가 튼튼하며, 金利引下로 因해서 中堅中小企業의 投資도 上向될 것으로 期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住宅建設은 土地의 供給不足의 解消가 困難함으로 不振이 長期化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輸出은 海外의 不況과 政治情勢의 不安, 通商上の 摩擦等 懸案材料가 많아서 今年度の 輸出伸張率은 昨年度에 比해 多少間 鈍化되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總體的으로 景氣는 緩慢한 回復趨勢를 보일 것으로 豫想됩니다만, 美國의 高金利로 因한 圓의 強勢와 弱勢가 進行된다면, 輸入物價의 上昇으로 「인플레이」의 憂慮가 생겨서 經濟政策의 손질을 必要로 하는 事態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뜻에서 今年度の 經濟動向에는 不透明한 部分이 남아 있다고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7) 日韓經濟關係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日韓經濟關係에 對해서 私見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資本 및 技術의 交流에 對해서 말씀드리자면, 向後 「아시아」의 工業國, 韓國, 台灣, 香港, 「싱가포르」, 日本등에 있어서 技術開發과 技術移轉의 競爭이 한층 熾烈해질 것으로 豫想됩니다.

持續的인 油價의 上昇에 對處해서 輸出을 擴大하기 위해서는 輸出構造의 高度化와 輸出競爭力의 強化를 疎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先進工業國들은 先進工業國들 間의 技術開發競爭의 激化로 因해 技術의 保護主義的傾向을 強化하여 中進國에 對한 技術輸出이나 資本進出의 選別決定을 嚴格化하는 方向으로 나가리라 豫想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方向은 「컨트리·리스크」나 「부메란」效果에의 配應에 따라서 強化될 可能性이 있습니다.

이러한 狀況認識을 바탕으로 日韓兩國間의 資本·技術交流에 있어서는 지금 까지 以上으로 相互理解를 深化시키고 兩國間의 補完·共存의 길을 模索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만이 日韓兩國의 發展에 이바지하는 길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아시아」의 平和와 繁榮에 貢獻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日韓貿易에 對해서 言及코자 합니다. 一九八〇年の 日韓貿易收支는 日本側이 24 億「달러」의 黑字를 記錄하였습니다. 이를 一九七九年의 29 億「달러」의 黑字와 比較한다면, 兩國間의 貿易不均衡은 相當이 縮小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一九八〇年은 두나라가 모두 景氣沈滯下에 있었기 때문에 輸出과 輸入이 함께 減少된 까닭으로, 말 하자면, 縮小均衡의 形態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日韓貿易關係에 있어서는 短期的인 縮小均衡을 指向함이 없이, 自由貿易原則下에서 長期的인 擴大均衡을 目標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貴國의 經濟가 今年 부터 成長軌道로 復歸하고 또한 日本經濟가 安定成長을 持續하는 가운데서, 日韓貿易의 擴大均衡의 길을 模索하는 것이 兩國關係者의 責務라 생각합니다.

近年에 두번의 石油波動의 影響으로 世界貿易의 伸張이 鈍化하는 속에서 世界各國의 保護貿易主義의 壓力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世界經濟가 安定的인 發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世界貿易의 擴大가 必要하며, 各國이 貿易制限措置를 安易하게 導入한다면 世界經濟에 至大한 不利를 招來합니다. 어느 한 나라가 貿易制限措置를 取하게 되면, 多角的인 貿易關係 아래서는 다른 나라의 報復措置를 불러 일으키고 또한 그것이 連續적으로 擴大되어, 一九三〇年代에 보였던 것과 같은 世界貿易의 急速한 縮小를 招來할 危險性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世界經濟는 한층 冷嚴한 情勢에 놓여 있는 바, 이러한 때 일수록 世界各國은 協調와 自由貿易을 守護하기 위한 責任있는 行動이 要求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日韓兩國은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自由貿易維持를 爲해 確固한 態度를 維持하는 것이 必要하며 또한 그것만이 日韓兩國의 經濟發展에 이바지하는 길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大端히 感謝합니다.

##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

### <議案1>

오늘날의 世界經濟는 몇 가지 長期的 課題에 直面하고 있다. 즉 에너지問題, 南北問題, 先進諸國간의 經濟摩擦의 擴大等の 世界經濟全體의 運營上 至극히 重要的 諸問題가 해마다 緊迫度를 增大시키고 있다. 世界各國이 이러한 諸問題에 對해서 自己保護的인 對應策을 講求하여 地球的인 視野에 立脚한 積極的 對應策을 欠하게 되면 世界經濟의 停滯와 不安으로부터 縮小均衡的 國際經濟體制 への 移行을 招來할 憂慮가 있다. 이러한 情勢下에서 人類의 創意와 努力을 바탕으로 한 多國間的 連携協調에 의해 世界經濟의 停滯와 後退를 回避하고 全世界의 繁榮과 平和를 이끌어 가는 일의 必要性은 至극히 크다.

背景 :

- 科學技術의 進涉에 따라 運輸, 通信이 顯著하게 發達하여 廣대한 太平洋이 지난날의 障害物로부터 편리한 媒體로 바뀌었다.
- 太平洋地域에는 世界에서도 高度의 經濟成長을 成就하고 있는 여러 國家가 集中되어 있다.
- 貿易面에서의 太平洋地域諸國간의 結束度가 急速한 進展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여러 要素를 바탕으로 하여 太平洋地域諸國의 여러 組織, 研究機關 또는 個人레벨에서 太平洋經濟圈에 對한 調查研究가 進行되어 많은 構想이 提唱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韓國에서도 韓國太平洋協力協議會, 高麗大學아시아 問題研究所, 韓國國際經濟研究院 등에서 太平洋經濟圈構想問題의 研究를 担当하고 있다.

経緯：

- 環太平洋諸国民間經濟人으로서 構成되어 設立後 14年の 歴史를 지닌 太平洋經濟委員會(PBEC) 第12回 로스앤젤리스 總會席上(1979)에서 當時의 國際會長 五島 昇가 太平洋經濟共同體(PEC)構想을 提唱
- 1980年 5月 시드니에서의 第13回 總會에서 PEC特別委員會의 設置가 決議되었다.
- 1981年 5月 홍콩에서의 第14回 總會에서 國際會長 代理를 議長으로 하는 PEC特別委員會가 発足, 構想의 具體化를 目標로 活動을 開始하게 되었다.

内容：

(構想의 目標)

- 太平洋地域諸國의 連携와 協調에 의해 地域全體의 整合性있는 經濟成長의 促進을 図謀할 것
- 國際間에 있어서의 自由로운 貿易 및 投資活動을 促進하고 太平洋地域은 물론이요 世界의 모든 國家가 그 利益을 享受할 수 있는 새로운 國際經濟秩序의 形成

(構想의 具體案)

- 交通, 通信의 整備強化
- 人的交流의 促進과 人材의 育成
- 域内 觀光開發의 促進
- 運賃, 金融體制의 整備強化
- 資源開發의 促進
- 自由開放經濟體制의 維持

(이 内容을 具體化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手段이 必要하게 된다.)

- 太平洋地域内諸國間의 思想統一과 이를 뒷받침하는 國際與論의 形成

- 構想의 調査研究을 위해 經濟人 以外에 學者, 研究機關, 國際問題專門家等 參加範圍의 擴大
- 地域內諸國政府와의 連携關係의 推進 및 必要한 政策의 提言

展望 :

PEC 構想은 다른 많은 太平洋經濟圈 構想과 마찬가지로 唯一無比의 것은 결코 아니며 時間餘裕를 가지고 太平洋地域諸國間의 콘센서스(總體的合意)를 얻어가면서 그 具體像을 創出해 나가는 것이다.

21 世紀를 指向하는 構想이기 때문에 다음 여러가지 點에 留意하여 앞으로의 展開를 圖謀할 必要가 있다.

- 결코 서둘르지 말 것
- 自由스럽고 開放的인 組織을 指向할 것
- 經濟, 文化에 焦點을 맞출 것
- 民間主導型으로 할 것
- 現存하는 各種國際機關과의 協調 및 여러 研究者와의 交流, 調整을 圖謀할 것

構想實現을 위한 難問題는 山積해 있지만 한걸음 한걸음 着實한 基盤을 다져 나가는 것이 重要하다.



## 第 6 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 結果報告

### <議案2>

1979 年 大韓民國 서울에서 開催되었던 第 11 回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에서 報告後 第 6 回 韓日・日韓 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에서 合意한 主要事項을 報告드리겠습니다.

第 6 回 韓日・日韓 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는 1980 年 5 月 20 日부터 22 日까지 日本 伊豆 長岡에서, 韓國側은 張炳贊 委員長 (利川電氣(株)社長) 外 18 名の 委員이 日本側은 浦川清人 委員長 (IHI 副社長) 外 22 名이 各各 參席하여 對韓 技術輸出의 制限條件 緩和에 關한 事項, 對韓 輸入等 促進團의 事前商談에 關한 事項外 4 個項의 議題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습니다.

#### 1. 對韓 技術輸出의 制限條件 緩和에 關하여 :

對韓 技術輸出 制限緩和에 關한 必要性을 再確認하고, 日本機械工業聯合會 및 關聯團體의 總會 또는 理事會에서 漸進적으로 緩和 改善되도록 日本 業界에 勸奨할 것을 要望하기로 하였으며,

#### 2. 對韓 輸入 促進團의 事前商談에 關하여 :

機械類의 事前調査團을 派遣하여 商談을 推進함과 同時에 使節團이 購買하는 分에 對하여는 對韓 技術輸出制限條件에 關係없이 購入行爲가 可能하도록 要請한 韓國側의 提案에 對해서는 使節團의 派遣前에 最大限 協力키로 合意함.

#### 3. 兩國의 檢査業務 協定에 關하여 :

韓國機械金屬試驗研究所와 日本의 JMI間에 檢査代行業務協定の 有益

性에 關한 KIMM의 說明을 듣고 相互認識하여 이를 兩機關 및 關係 各團體에 通報키로 하고,

4. 플랜트 輸出協力을 爲한 共同 channel 形成에 關하여 :

韓日兩國企業에 依한 第3國 市場에 對한 플랜트協力 輸出의 必要性을 再確認하고 韓國은 韓國機械工業振興會가 日本은 日本機械輸出組合이 各窓口가 되어 이를 위한 韓日 兩業界의 交流方案을 協議키로 하였고,

5. 長期大型技術開發共同研究를 위한 機構設置에 關하여 :

韓國側은 KIST, 日本側은 이에 相應하는 機關을 窓口로하여 機構設置, 作業을 推進토록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에 提案키로 하였습니다.

以上으로 會議內容과 合意에 따른 主要報告 事項을 말씀 드렸습니다.

上記 5項에 따른 長期大型技術開發共同研究機構設置에 對한 것은 韓國科學技術院에서 이에 이어 報告가 있겠습니다.

「長期大型技術開發研究事業  
推進을 爲한 共同協力」

<議案3>

目 次

I. 提 案

II. 提案說明

1. 國際社會의 變化와 韓・日 技術協力の 重要性

2. 長期大型技術開發研究協力 分野

가. 에너지 및 資源

나. 環境保全 및 保健安全

다. 生活空間의 最適化와 시스템 開發

3. 韓・日 民間技術開發協力委員會(仮稱) 設置

가. 構 成

나. 任務와 機能

## I. 提 案

過去 78年度 3月 合同會議의 共同聲明 第7項目에서 兩國은 「技術開發研究事業을 協同推進함에 相互努力할 것을 約束」한바 있고 79年度 3月 同會議의 共同聲明 第3項目에서 「技術開發研究協力の 具體案으로서 專門機構의 設置를 各 政府關係機關에 建議」하기로 合意하였으며 昨年 3月 同會議의 共同聲明 第7項目에서 「技術開發研究事業을 民間베이스에서 推進해가는 것은 兩側의 共同關心事項을 再認識하고 研究協力專担機構設置에 合議」한바 있다. 또한 昨年 5月에는 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會議 共同聲明 第5項目에서 「韓國科學技術院(舊名 韓國科學技術研究所)를 窓口로서 機械設置作業을 推進해야한다」고 合同會議에 提言」하기로 合議하였다.

이에따라 本事業의 早期實現을 達成하고 本合同會議가 目標로 하는 民間主導의 유대강화를 實踐하기 爲하여, 早速히 民間베이스의 專擔機構인 韓·日民間技術開發協力委員會를 構成하고 研究協力の 推進計劃을 今年末까지 樹立하도록 할것을 提案한다.

## II. 提 案 說 明

### 1. 國際社會의 變化와 韓·日技術協力の 重要性

技術革新은 오늘날 급격하고도 획기적인 經濟, 社會發展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現代에 있어서 經濟成長을 追求하는 모든 나라들은 技術을 가장 重要한 國家資源의 하나로 認識하고 있으며, 따라서 先進國이나 開發途上國을 막론하고, 技術資源의 開發을 통한 國際的 分業과 協力を 強化하고 있다.

이와같이 現代產業社會, 특히 先進工業國에서는 技術의 研究開發을 專門으로 하는 R & D 產業이 急速한 成長을 보이고 있고, 技術開發을 國家主要政策으로 推進하고 있다.

이러한 國際社會의 動向을 볼 때, 이미 오래전부터 技術協力을 다져왔던 韓·日 兩國은 앞으로 더욱 國際的 分業에 입각한 協力을 強化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꾸준히 推進해 왔던 技術移轉促進 研究人力의 交流 및 訓練, 科學技術情報의 交換 등을 더욱 擴大시켜 나가는 동시에, 이제부터는 보다 積極的으로 技術開發 및 研究協力分野에 兩國 共同的 關心과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現在 兩國이 各各 國家의 모든 研究能力을 動員하여 推進중인 長期大型 技術開發研究事業은 그 目標의 指向하는 바가 遠大할 뿐 아니라, 研究分野가 서로 共通되는 것이 많으므로 이에 關聯된 研究推進에 있어서 兩國의 研究費, 研究人力 등의 研究資源을 共同活用하고 研究進行結果를 相互交換하므로써, 關聯技術開發研究의 效果와 効率을 增進할 수 있을 것이라고 確信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共通關心事인 에너지 및 資源, 環境保全과 保健安全, 生活空間의 最適化와 關聯시스템開發 등은 兩國 國民의 福祉向上을 爲한 重大한 課題이므로 兩國 共同的 研究協力は 더욱 切實하고 큰 意義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 2. 長期大型技術開發研究協力 分野

### 가. 에너지 및 資源

오늘날 세계의 에너지 및 資源事情은 그 生産 및 供給流通過程에 있어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고 그에 따른 價格上昇등이 各國 經濟에 미치는 바가 크므로 自國의 産業을 원만히 育成,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對한 安定確保가 急先務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미 各國에서는 長期的이고도 綜合的인 計劃을 세우는 등, 그 對策에 부심하고 있는바 韓日 兩國에 對해서도 重要的 共同關心事가 아닐수 없다.

이에 關聯된 技術開發課題로는 太陽에너지 利用, 핵연료 開發, 석탄에너지 活

用 및 變換技術, 發電廢熱을 利用한 지역난방, 綜合에너지 시스템개발, 에너지節約 및 合理的 利用등의 에너지 關聯 技術과 石油資源, 原料代替資源, 廢資源의 活用, 食糧資源 効用을 위한 가공저장기술개발등의 資源 關聯技術研究 등을 들수 있다.

#### 나. 環境保全과 保健安全

오늘날 急速한 工業化에 따른 大氣 및 水質오염 등이 深化되어 그 許容基準을 이미 초과한 나라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요즈음 自然을 오염에서 구제하고 人間을 질병의 危險속에서 救出하려는 努力은 매우 必要하고 切實한 것이다.

이에 關聯된 技術開發課題로는 國家環境 保全의 問題分野 색출 및 解決方法論 研究,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大氣管理 시스템에 대한 研究, 水資源汚染管理, 都市폐기물 처리 및 활용기술개발, 연료 가스의 질소산화물 유황산화물 제거 촉매개발 등에 關한 研究를 비롯해 食品위생, 安全性검사기준 및 독성검사技術開發, 의료용特殊素材, 人工腎臟器, 관측전자장치開發研究, 産業 및 公衆災害防止關聯技術에 관한 연구 등을 들수 있다.

#### 다. 生活空間의 最適化와 關聯시스템開發

土地 및 生活空間이 날로 협소해짐에 따라 最適活用方案 강구를 비롯해 쾌적한 生活環境 및 生活의 便益을 追求하기 爲한 綜合開發시스템의 必要性이 날로 增大되고 있다.

이에 關聯된 技術開發課題로는 地域內, 地域間 交通體系의 最適化와 新交通手段 및 System 開發에 관한 연구, 에너지절약형 서공해교통수단의 개발 및 効率的 通信시설재 및 機器의 개발, 서민 주택의 저렴화를 위한 종합연구, 地域社會에 있어서의 水系 및 土地利用의 最適化研究 등을 들수 있다.

### 3. 韓·日民間技術開發協力委員會(仮稱)設置

韓·日 兩國 共同의 努力이 要求되는 이와 같은 研究分野에 대해 兩國은 協力研究의 必要性을 깊이 認識함과 동시에 이의 推進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兩國間의 長期大型技術開發研究協力を 專擔推進할 韓·日 民間技術開發協力委員會를 構成하고, 研究協力の 具體的 推進計劃을 今年末까지 作成 完了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가. 韓·日 民間技術開發協力委員會의 構成方案

1) 韓國側은 韓日經濟協會가 窓口가 되어 委員 및 委員長을 選任하되 兩國이 各 15 名 內外의 範圍에서 學界·研究機關·產業界의 에너지, 環境, 地域開發, 시스템開發및 研究管理分野의 專門家로서 構成한다.

2) 위 1)항의 委員 및 委員長은 今年 7月末까지 이를 決定, 相對國에게 通知한다.

3) 同 委員會는 兩國間 研究協力の 구체적 推進計劃을 今年末까지 樹立, 施行에 들어간다.

#### 나. 韓·日 民間技術開發協力委員會의 任務와 機能

##### 1) 長期大型技術開發課題의 共同研究推進

- 兩國의 長期 社會·經濟目標에 부합되는 協力研究可能分野 및 課題 導出
- 協力研究課題의 共同推進 方案 決定
- 協力研究課題의 綜合的 管理 및 調整
- 研究遂行 結果의 評價 및 活用方案 樹立

##### 2) 長期大型課題 推進을 위한 研究人力交流의 強化

- 研究人力 相互派遣 및 訓練
- 研究人力 相互活用に 關한 支援方案 確定

##### 3) 科學技術情報 交換의 強化

- Data Bank System의 設立
- 研究結果의 共同發表會 開催

##### 4) 其他 研究協力方案 樹立 및 推進

## 韓日·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設置

### I. 經 緯

#### <議案4>

1. 1977年3月 서울에서 開催된 第9回 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에서 새로운 次元에서의 兩國間の 經濟協力을 促進시키기 위해 効率的이고 所望스러운 方案을 研究하기 위하여 專門機構性格을 띤 經濟協力長期構想委員會 (仮称)의 設置를 韓國側이 提議한것에 合意하고 長期的 視野에 立脚한 兩國産業構造의 方向 및 資源의 海外開發輸入方案 등을 調査 研究함을 目的으로 하기로 하였음.

2. 1979年4月 서울에서 開催된 第11回 合同會議에서 兩國代表團은 韓國의 重化學工業開發에 副應하기 위해 兩國 産業構造의 調整 및 資源의 海外開發輸入問題의 協力方案을 長期的인 視野에 立脚하여 調査 研究하기 위한 經濟協力長期構想委員會를 早速히 構成하고 同 委員會 第1次 合同會議를 年内 開催할 것에 合意하였으나 會議를 갖지 못했음.

3. 1980年3月 東京에서 있었던 第12回 合同會議에서 日本側으로 부터 環太平洋連帶構想에 對한 說明이 있었으며 이에 對해 韓國側은 同 構想의 基本的 理念에 理解를 表示하고 長期的인 觀點에서 同 構想의 共同研究를 위해 韓日·日韓 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仮称) 設置를 다시 提案 兩國 代表團은 이



에 合意하였으며 海外資源開發分野에 関한 經驗, 技術交流 및 情報交換을 위한 方案을 이 委員會에서 檢討키로 하였음.

4. 上記 合意에 의하여 80年 8月26日~8月28日 서울에서 同 委員會 發足を 위한 實務會議를 開催하였음.

#### 〈實務會議內容〉

가) 參席者; 韓國側 — 金立三 全國經濟人聯合會 副會長外 3名  
日本側 — 山口英治 日韓經濟協會 專務外 2名

#### 나) 會議結果

① 主要研究事業 — 分業體系可能的 研究, 石油 및 代替 ENERGY 의 共同開發協力, 環太平洋經濟共同體構成에 있어서의 相互 協力

② 研究委員會의 構成 — 韓國側은 金立三 全經聯 副會長을 委員長으로, 日本側은 秋田兼三 日本長期信用銀行 副頭取를 委員長으로 하여 各己 15名 内外로 構成하되 研究委員은 綜合商社, 大企業, 銀行의 中堅幹部로 하기로 하였음.

5. 1980年 11月末로 計劃했던 第1次 兩國研究委員會 合同會議는 연기되었으며 本 第13回 合同會議 準備를 爲한 지난 1981年 4月의 兩國委員會 委員長級 豫備會談에서 同 研究委員會에 長期大型技術開發研究事業을 위한 協力方案講究問題도 包含 主要事業內容을 擴大調整하는데 대한 意見이 提示되었었음.

## Ⅱ. 提 案

### 1. 研究對象 擴大

가) 80年 8月의 實務者, 會議에서 合意한

i. 分業體系可能的 研究

ii. 石油 및 代替ENERGY 의 共同開發協力

iii. 環太平洋經濟共同體構成 協力

分野 以外에 다음의 것을 補完 또는 追加한다.

나) 第5次經濟社会發展5個年計劃에 따른 資本 및 技術 協力

다) 第3 国으로의 共同進出協力(資源開發, 市場開拓 等)

라) 長期大型技術開發研究事業(韓國科學技術院 說明의 提案에 따른 別途 委員會 構成없이 이 研究委員會에 包含시킬 境遇)

## 2. 研究委員會의 構成

가) 80年8月 兩國實務會議에서 合意한대로 人員數는 15名(上記라項 包含時는 增加) 内外로하고 이번 合同會議에서 合意되는 研究対象內容에 適合한 人選을 하여, 81年 7月末 以前에 通知한다.

나) 韓國側은 韓日經濟協會가 窓口役割을 하며 日本側은 內定委員을 再確認 通知한다.

다) 研究委員會構成 및 通知後 2個月內에 委員會運營規約 및 1年間の 事業計劃을 相互協議 確定한다.

## 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假稱)設置

### <議案5>

#### I. 提 案 趣 旨

우리나라 中小企業은 79年末 現在 全 鑛工業體數 33,628 個中 96.5%인 32,459 個로서 從業員數는 47.6%, 出荷額 32.8%, 附加價値에 있어서 35.7%인데 反하여 日本의 경우는 事業體數가 99.5%, 從業員數가 71.4%, 出荷額 52.7%, 附加價値 57.1%로 中小企業의 事業活動과 經濟的 役割이 莫大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1962년부터 81년까지 4 次에 걸쳐 推進해 온 經濟開發 5 個年計劃期間 동안 經濟成長의 戰略產業部門인 重化學工業 및 輸出產業 등 大企業에 對한 集中的인 投資, 各種支援政策을 展開함으로써 大企業 中心으로 우리나라 經濟成長을 主導해 온 것이 事實이나 이 期間 동안 經濟開發 政策部門에서 疎外되었던 中小企業은 發展이 低調하여 事業體數에 比하여 雇傭, 附加價値面에서 落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經濟政策은 漸進的으로 民間主導型 經濟基盤을 擴充하고 國際經濟에 있어서는 開放體制로 轉換할 基本 方針을 세우고 있으며 1982년부터 始作되는 第5次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에서는 그간 大企業과 中小企業, 重化學工業과 輕

工業,輸出產業과 內需產業 등에서 形成되어온 隔差를 줄이고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을 圖謀코저 各種 政策的인 配慮를 中小企業部門에 기울이고 있는 現時點에서 韓日 兩國의 中小企業이 協力하여 共同 經濟發展을 期한다는 것은 매우 意義있는 것으로 生覺됩니다.

韓日間の 經濟交流關係를 보면 過去 15年間 우리나라 全體 交易量の 30%以上을 占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經濟協力關係는 不振하였던 것이 事實이며 1969年 以來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가 每年 開催되었으나 그간 中小企業問題가 公式的으로 論議된바 없으며, 다만 兩國 中小企業間에는 合作投資, 技術提携等 一部에서 散發的이고 個別的인 協力關係가 維持되었을 뿐 活發치 못하였습니다.

今般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 開催를 契機로 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를 設置하려는 根本趣旨은 兩國의 中小企業이 公式的이고 組織的인 情報, 技術, 人力 등의 交流는 勿論 中小企業의 當面한 懸案問題 및 共同關心事 등에 對한 理解를 增進하고 兩國間 分業등에 依한 協業化 및 交易 등의 增大를 通하여 中小企業의 地位向上과 發展을 期함으로써 兩國 經濟發展에 寄與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II. 委員會 設置案의 內容

### 1. 日 的

兩國 中小企業間の 情報交換, 技術交流, 協業化 및 相互訪問등을 通한 協力增進을 圖謀하고 中小企業의 懸案問題 및 共同關心事에 對한 理解增進으로 兩國 中小企業의 地位向上과 發展을 期하고자 韓日・日韓經濟委員會 內에 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를 設置코저 한다.

### 2. 協力分野

#### A. 技術

B. 經營・品質管理

C. 相互分業體系確立을 爲한 研究

D. 合作投資

E. 其他 情報의 相互 交換

### 3. 委員會構成

本 專門委員會에는 兩國이 各各 委員長, 副委員長, 委員 및 幹事を 包含 50 名以內로 構成하되 委員은 業界, 中小企業關聯機關 및 學界의 代表로 構成한다.

### 4. 委員會運營要綱

專門委員會의 運營要綱은 兩側合意에 의하여 別途 作成한다.

### 5. 會議

#### A. 定期會議

每年 韓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 開催時 開催.

#### B. 臨時會議

兩側 合意에 의하여 必要時 開催

#### C. 議長

兩國 專門委員會合同會議 開催時 議長은 開催國側 委員長이 議長이 된다.

#### D. 幹事

兩側 幹事는 會議 運營을 圓滑히 하기 위해 相互 連絡을 取하고 一切의 事務 및 會議事項을 記錄, 保管한다.

### 6. 第一回 合同會議

1981 年 9 月頃 韓日·韓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會議를 日本에서 開催하고 同 專門委員會 運營要綱의 共同作成 및 具體的 事業에 대해 協議 確定한다.

### Ⅲ. 參 考 資 料

#### 一 韓國의 中小企業現況 一

#### 目 次

1. 中小企業의 比重
2. 規 模 別
3. 組織形態別
4. 企業經營分析
5. 輸出現況
6. 中小企業資金支援現況
7. 信用保證現況
8. 協同組合事業現況
9. 새마을工場現況
10. 1981年度 主要育成施策

1. 中小企業의 比重(鑛工業部門)

區 分	'76		'77		'78		'79	
	全 體	中 企 小 業	全 體	中 企 小 業	全 體	中 企 小 業	全 體	中 企 小 業
事 業 體 數 ( 個 )	26,564	25,487	28,292	27,156	31,620	30,520	33,628	32,459
構 成 比 (%)		95.9		96.0		96.5		96.5
從 業 員 數 ( 千 名 )	1,793	789	2,000	914	2,173	1,042	2,189	1,041
構 成 比 (%)		43.9		45.7		47.8		47.6
生 產 額 ( 億 圓 )	118,698	35,002	156,956	47,888	208,727	67,432	273,389	89,307
構 成 比 (%)		29.5		30.5		32.3		32.7
附 加 價 值 ( 億 圓 )	42,086	12,569	57,851	18,625	80,208	27,514	94,961	33,854
構 成 比 (%)		29.8		32.2		34.3		35.7

(資料：經濟企劃院)

## 2. 規 模 別

(單位：%)

規 模 別	'77	'78	'79
5 人 ~ 9 人	67.5	61.0	60.2
20 人 ~ 49 人	17.1	20.3	21.0
50 人 ~ 99 人	8.0	9.4	9.8
100 人 ~ 299 人	7.4	9.3	9.0

(資料：中小企業銀行)

## 3. 組 織 形 態 別

(單位：%)

形 態 別	'77	'78	'79
株 式 會 社	16.5	17.7	19.6
其 他 法 人	0.7	1.5	1.8
個 人	82.8	80.8	78.6

(資料：中小企業銀行)



#### 4. 企業經營分析

區 分	總資本純利益率(%)			自己資本比率(%)			1人當附加價值(千圓)		
	'77	'78	'79	'77	'78	'79	'77	'78	'79
全體製造業	2.62	2.71	1.89	22.2	21.4	21.0	2,170	2,774	3,529
大 企 業	2.58	2.75	1.94	22.3	21.6	20.9	2,223	2,955	3,719
中 小 企 業	2.96	2.53	1.60	21.8	20.5	21.1	1,817	2,216	2,883

(資料：韓國銀行)

#### 5. 輸 出 現 況

(單位：百萬弗)

年 度 區 分	'77	'78	'79
總 輸 出 (A)	10,474	12,711	15,055
工 產 品 輸 出 (B)	9,410	11,420	13,570
中 小 企 業 輸 出 (C)	3,654	4,621	5,292
C / A (%)	34.9	36.4	35.2
C / B (%)	38.8	40.5	39.0

(資料：商工部，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 6. 中小企業資金支援現況

### ○ 中小企業特別資金 支援現況

(單位：億圓)

年 度 別 資 金 別	1979	1980		
		計 劃 (A)	9月末実績(B)	B / A (%)
特 別 低 利 資 金	497	1,100	849	77.2
一 般 中 小 企 業 資 金	2,321	3,900	3,128	80.2
計	2,818	5,000	3,977	79.5

(資料：韓國銀行) ※ 低利資金은 10.15 限度確認実績임.

### ○ 金融機關貸出狀況

(單位：億圓)

年 度 別 區 分	1979 (A)	1980 .9月末(B)	B / A (%)
總 貸 出	62,701	75,712	120.8
中 小 企 業 貸 出	27,025	33,501	124.0
中小企業貸出比率(%)	43.1	44.3	

(資料：韓國銀行)

## 7. 信用保證現況

### ○ 基金造成

(單位：百萬圓)

區 分	1979 (A)	1980 . 9 月末(B)	B / A (%)
基 本 財 產	90,743	105,915	116.7
剩 餘 金	16,581	21,251	128.1
計	107,324	127,166	118.5

(資料：信用保證基金)

### ○ 保證現況

(單位：百萬圓)

區 分	1979	1980 . 9 月末	增 加 率 (%)
總 保 證 (A)	700,788	1,139,690	62.6
中 小 企 業 保 證 (B)	397,977	636,823	60.0
B / A (%)	56.7	55.9	—

(資料：信用保證基金)

## 8. 協同組合事業現況

### ○ 共同事業實績

(單位：億圓)

區 分	'79	1980		
		計 劃 (A)	8 月末實績(B)	A / B(%)
共 同 事 業	3,618	4,343	3,002	69.1
○ 共同購買	2,122	2,636	1,282	48.6
○ 共同販賣	1,495	1,707	1,720	100.8
(團體隨意契約)	(1,322)	(1,497)	(1,457)	(97.3)

(資料：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 ○ 共同事業資金支援

(單位：億圓)

'78	'79	'80
154	212	276

## 9. 새마을工場 現況

### ○稼動 및 建設現況

(80.8月末)

區 分	指定工場	完 工 工 場				建設中인 工 場
		稼 動	休 業	竣 工	小 計	
工場數 (個) %	717	460	80	21	561	156
	100.0	64.2	11.1	2.9	78.2	21.8
		(82.0)	(14.3)	(3.7)	(100%)	

(資料：商工部)

### ○建設效果

區 分	雇 傭(名)	農家所得寄與 (百萬원)	生産(百萬원)	輸出(千弗)
'79	67,276	71,038	426,337	494,277
'80 8月	68,170	48,265	392,549	388,175

(資料：商工部)

## 10. 1981年度 主要育成施策

- (1) 近代化 事業의 推進
- (2) 協同化 事業의 擴充
- (3) 系列化 事業의 促進
- (4) 指導 및 研究事業의 強化
- (5) 農村工業의 育成
- (6) 金融 및 稅制支援의 擴大
- (7) 支援體制의 強化

## 尖端 技術의 移轉

### <議案6>

#### I. 背 景

日本이 供与者가 되어 締結된 技術契約에는 第3国輸出 또는 日本으로의 逆輸出禁止 등 制限條件이 붙은 것이 많고 이것은 特히 中小企業間에 締結된 것에 그 例가 많음. 이러한 契約들이 지금부터라도 是正될 수 있도록 協助를 바라며 또한 韓國의 産業이 必要로 하는 技術이 이제는 高級技術이 되어가고 있어 尖端技術導入을 爲한 要請을 日本 企業體에 하고 있으나 協商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國際協力이라는 次元에서 技術分野의 開放을 要請하며 이번 會議에서는 電子分野의 한 例만을 들어 說明하겠음.

#### II. 必要性

- 韓國은 그동안 日本과의 貿易에서 入超現象을 보여 왔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나, 特히 電子部門에서의 對日貿易逆調 現狀은 他産業部門보다 極深한 實情임.
- 韓國은 全體電子製品輸入中 50 ~ 60 %를 日本에 依存하는 反面 全體電子製品輸出中の 日本比重은 13 %線에 不過하여 平均 5 億弗의 逆調現狀을 보이고 있음.

# 韓國의 電子製品輸出入実績

(百萬弗)

	77	78	79	비	고
總 輸 入 額	847	1,156	1,389		
對 日 輸 入 額	412	704	762		
(對日依存率, %)	(48.6)	(60.9)	(54.8)		
總 輸 出 額	1,064	1,359	1,845		
對 日 輸 出 額	204	205	237		
(對日依存率, %)	(19.2)	(15.1)	(12.8)		
對 日 赤 字 額	208	499	525		

- 이러한 逆調現狀은 主로 兩國間의 技術水準差에 의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데 日本側은 그동안 韓國電子業界에 對해 必要 以上の 警戒심을 갖고 技術移轉에 消極的 자세를 取해 오면서 製品輸出에만 置重해 온 것이 事實임.
- 따라서 日本側에 對해 技術移轉에 보다 積極的으로 協力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선 다음의 두가지 尖端技術을 移轉시켜 主도록 요망함.

## III. 協力要請事項

### 1. VTR 技術 및 商標

韓國의 家電業體는 家庭用 VTR을 '79年에 開發, 製品化 함에 따라 商標의 正式使用을 爲하여 商標使用 및 Group 加入 許与를 日本의 關係業體에 數次에 걸쳐 要請하였으나 日本側으로 부터 拒絶당하여 現在 當該商標를 使用하지 못하고 있는 狀態에서 國內販賣를 하고 있는 實情임.



한편, VTR에 대한 基本特許를 保有하고 있는 業體로부터 特許使用에 對한 警告를 接受, 서로 商談한 結果, 우선 Group에 加入해야 特許를 供與하겠다는 回答을 받았으나 商標를 가진 業體에서는 그룹加入을 不許하므로 兩側이 서로 相對方을 理由로 技術提供을 회피하고 있는 實情임.

韓國製品이 비록 日本의 特許를 一部 使用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나 이미 國內에서 開發되어 販賣되고 있으므로 이를 認定하여 그룹에 加入시켜주는 것이 妥當할 것임.

또한 相當部分 部品을 日本에 依存하고 있으면서도 商標使用 不可로 인하여 國內市場開拓이 不振한 實情인 바 차제에 日本会社들의 積極的인 協助로 韓國 VTR市場을 本格的으로 開發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줄것을 要望함.

따라서 韓國의 電子業界는 다음과 같은 VTR 技術協力을 要請함.

가) 商標使用許可

나) 그룹加入許可

다) 製造와 關聯한 特許 및 技術供與

## 2. 半導體 技術

韓國의 半導體業界는 數次 日本의 主要 半導體業體들을 訪問하여 半導體의 製造技術提供, 自動化 設備 및 半製品의 販賣를 要請하여 왔으나, 日本의 主要半導體業體는,

1) 半導體에 대한 技術提携 및 提供은 하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2) 現在로서는 技術提供 또는 合作할 餘力이 없다.

3) 自動化設備도 社內製作이 大部分으로 外部에 販賣가 不可能하다.

등의 이유로 技術提供 및 設備 販賣를 拒絶하고 있음.

그러나 半導體技術은 他 製品과 달리 技術革新이 빠르고 低級에서 最高級에 이르는 幅 넓은 技術範圍를 갖고 있는만큼 技術水準에 의한 差別化가 가능하고 과거 日本이 歐美로부터 技術을 제공받아 現在水準에 도달한 事例를 감안할 때

日本은 韓國과 같은 後發國에게 技術을 伝授하는 것이 道理인 바, 兩國間 經濟 協力이라는 次元에서 우선 基初技術의 供給을 통한 國際分業과 兩國의 電子工業 發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韓國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技術協力을 要請함.

가) 民生機器 및 通信機器用 半導體技術의 供与

1) 設計의 自動化技術

2) 製造工程技術

3) 製造檢査技術

4) 応用技術

나) 自動製造設備의 販賣

提 案 者 : 金                玩                熙  
社 團 法 人   韓 國 電 子 工 業 振 興 會   會 長  
                 韓 國 電 子 工 業 協 同 組 合   理 事 長

오늘은 元來 計劃하지 않았는 데도 不拘하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드리게 된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勿論 全産業에 걸친 問題이지마는 時間의 制限도 있고 해서 제 自身이 알고 있는 電子工業 및 電氣用品産業에 關하여 주로 몇가지 말씀과 提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俗談에 “가까운 이웃은 먼 데 사는 親戚보다 더욱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四寸”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바로 이웃에 사시는 日本의 여러분들을 모시고 몇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事實上 日本의 隣接國으로서의 우리나라는 政治上으로나 經濟上으로 깊은 關係에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電子工業은 日本業界의 影響을 너무나도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 理由는 우리의 電子工業의 初創期인 20餘年前부터 우리는 日本에서 주로 生産技術을 導入하여 왔는데 日本의 業界는 技術만 壳渡하는 것이 아니라 必要한 生産機器, 또 所要되는 原資材와 部品까지도 包含하여 우리가 買入하여야만 技術을 팔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技術로 生産되는 製品의 國際市場進出을 막았습니다. 이러한 甚한 條件附의 技術讓渡의 方法은 다른 先進國에서는 例를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電子製品에 所要되는 數百 數千의 部品과 材料를 日本에서 輸入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따르는 巨大한 貿易赤字뿐만 아니라 우리 國內部品産業과 原資材工業의 發達이 遲延되고 있으며 國際輸出市場에 進出도 어렵게 되고 있는 現況입니다.

勿論 여기에는 우리 業界의 責任도 있습니다. 即 生活形式과 事情이 비슷한 日本에 對한 親近感, 言語의 理解, 近距離等에 固執하여 우리 業界들이 日本業界에 너무 매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日本業界들의 積極的인 商人精神에도 큰 原因이 있다고 봅니다. 即 日本의 製造業體들은 小量 注文이나 또는 特別製品 注文等에 對하여 歐美業體들 보다도 積極的이고 肯定的인 態度和 行動으로서 顧客의 注文에 応함으로 800 餘個의 우리 電子中小企業體들은 큰 매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日本의 電子工業의 發展을 살펴보면 日本이 美國을 為主로 하는 여러 先進國으로부터 數千 數萬의 技術과 特許를 導入하여 그 技術로 電子製品을 生産하고 또 生産된 製品은 받은 特許로 그 先進國으로 다시 逆輸出하는 것이 可能한 데 큰 原因이 있다고 봅니다.

例컨대 美國으로부터 導入된 技術로 生産된 日本製品의 美國市場進入을 美國業界가 不応하였더라면 오늘날의 日本의 經濟發展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數千 數萬 種類의 製品을 生産하며 또 生産技術 自體의 急進的인 進化和 同時에 需要市場의 繼續的인 變遷을 느끼고 있는 電子業界같이 앞서가는 尖端技術導入과 特許權 使用의 重要性을 느끼고 있는 産業分野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全産業에 걸쳐서 지금까지 輸入하여 온 外國技術 件數의 近 60%가 日本에서 왔으며 電子電氣分野에서는 60% 以上을 日本에서 導入한 統計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年前에 Monaco 王國의 Monte Carlo 에서 英國의 有名한 經濟紙인 Financial Times 의 主催로 열린 政府 및 業界 特別 電子 및 電氣產業界 代表들이 많이 모인 Seminar 에 參加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會議에서 開發途上에 있는 國家의 業界代表 한사람으로서 美國 및 歐羅巴의 여러 先進國家 代表들에게 이러한 呼訴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韓國의 產業 特別 電子工業은 여러분들 先進國의 지금까지의 도움으로 이제는 어느程度 發達로 達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하루바삐 더욱 成長하여 여러분들의 恩惠도 갚고, 저의 뒤에 아직 많이 있는 後進國家들을 도와 주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以上 보다 자라기 爲하여서는 産業生産技術과 國際市場이 絶對적으로 必要합니다.

이 두가지 모두를 아직도 先進國 여러분들이 掌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必要한 技術을 저희에게 販賣하여 주시고 또 輸出市場의 一部도 讓渡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바로 이웃에 계시는 日本의 여러분께 똑같은 呼訴를 합니다. 즉 멀리있는 親戚보다도 이웃 四寸들에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電子工業을 이 以上 끌고 나가려면 録画再生裝置(즉 VTR 과 VCR)의 生産技術의 導入과 半導體 産業의 育成은 絶對적인 要素입니다. 따라서 우리 政府와 產業界가 合心하여 이 分野의 振興에 크게 努力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生産에 必要한 先尖가는 技術이나 施設의 導入이 現在 不可能합니다.

또 우리 自体가 生産하여도 商標使用에 관한 國際特許의 不許로 因하여

販売를 못하고 있는 実情입니다.

특히 VTR의 境遇, 日本 業界가 完全 抑制와 独占의 立場을 固執하고 있음으로 우리 電子業界는 이 以上の 發展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半導體工業도 비슷한 境遇라고 生覺합니다.

여러분 自身들이 勿論 스스로 잘알고 계시겠지만 日本의 半導體工業 自体가 美國에서 繼續 導入하고 있는 技術을 土台로 하여 日本 独自の 能力으로 開發한 自動生産 施設의 活用으로 美國과 競争할 立場을 굳혀가고 있는 現狀입니다.

우리나라의 半導體工業도 最初에는 美國 企業体들이 主로 低廉하고, 優秀한 勞動力의 利用을 爲하여 投資進出로 始作된 것이지만 지금은 여러 國內 業体들이 單純賃加工 以上の 生産工程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生産施設, 특히 새로이 開發되는 生産機器가 必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必要한 尖端技術은 時間이 걸려도, 우리 自体가 開發하든지, 外國 技術者를 雇傭하든지, 또는 日本 半導體業界가 實行하고 있는 것과 같이 美國의 所謂 Silicon Valley에 우리도 投資進出을 해서 現地에서 技術獲得을 하거나, 其他 어떠한 方法이라도 取得할 自信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隣接國 끼리, 韓國과 日本의 兩業界가 國際市場에서 正面衝突을 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副作用이 매우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關係가 깊고 또 바로 이웃에 있는 日本業界에서 사 오자는 것이 우리 業界의 生覺들이니 이에 對한 많은 協助를 付託드립니다.

外國人들이 저에게 자주 다음과 같은 質問을 합니다.

『 世界の 電子市場을 席捲하고 있는 日本의 隣接國으로서 너의 나라 電子工業을 일으키는데, 日本의 業界가 도움이 되느냐? 또는 어려움을 주느냐?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質問에 지금까지 答弁하기를

『得도 보고 損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電子工業 初創期에는 得을 보았으며, 現在는 損을 보고 있다는 것이 저의 率直한 心情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도움을 주신 日本業界의 支援으로 우리 電子工業의 더욱 큰 發展을 가져오게 되어 兩國間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또 急速히 開發進展되는 電子製品과 生産技術의 相互 理解와 提携를 図謀하기 爲하여 日本代表 여러분들께 여기서 다음 事項을 提案합니다.

即 “韓・日 電子業界代表들로 電子業界小委員會를 構成하여 每6個月마다 會晤를 가져서 技術 및 交易情報交換과 相互 協助를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提案에 對하여 여러분들의 呼応을 바라고 앞으로 더욱 緊密한 協議와 相扶相助의 結實이 있기를 바라며 저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日本에서 오신 손님들을 다시 한번 歡迎하오며 每年 開催되는 이 會議의 참다운 成果가 있기를 付託드립니다.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8回)  
經過報告

1981年 6月 11日

韓日貿易擴大均衡委員會

委員長 金 禹 根

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議案7〉

委員長 京 本 善 治

第8回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會議 및 그간의 活動結果에 關해 報告드리겠습니다.

同 會議는 昨年 10月 22日부터 2日間 濟州道에서 開催되었습니다.

同 會議에는 韓國側에서 金禹根委員長外 13名이, 그리고 日本側은 京本善治委員長外 13名이 參席, ① 對韓輸入等促進團成果에 對한 Follow-up ② 韓日貿易의 協力 ③ 其他問題 등 3개 議題를 中心으로 眞摯하게 協議했습니다.

우선 對韓輸入等促進團成果에 對한 Follow-up 問題에 關해 日本側은, 日本通産省에서 10月 15日字 및 81年 1月 15日字로 양케이트調査를 실시하고, 그 結果를 集計하여 韓國側에 通報하는 同時, 그 結果가 未洽할 경우는 通産省에서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이며 또한 民間으로서도 이번에 新設된 「訪韓및선調整委員會」(委員長: 植田三男團長)를 中心으로 約束事項의 履行에 最大限 努力을



기울일 것이라는 說明이 있었습니다.

이에 對해 韓國側은 通産省의 アンケート調査만으로는 不充分하며, 반드시 約束이 履行되어야 한다고 指摘, 通産省 및 日韓貿易調整委員會의 보다 強力한 指導를 要請했으며, 日本側도 成約分의 誠實履行에 對한 要請을 通産省에 報告하는 한편, 이의 實現을 위해 最大限 努力할 것을 約束했습니다.

同 日韓의 成約分에 對한 契約確定額 및 輸入履行実績 등, 訪韓成果에 關한 報告는 「訪韓日韓貿易調整委員會」委員長이신 植田三男社長이 別途로 할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의 報告는 省略하겠습니다만,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로서도 日韓의 成果를 높이 評價하고 있습니다.

非關稅障壁問題에서 韓國側은 對日貿易不均衡이 매우 深刻한 狀態에 놓여있다고 強調하고, 特히 日本政府의 嚴格한 쿼터制의 運營과, 行政指導에 의한 輸入規制는 對日輸出을 크게 阻害하고 있다고 指摘, 이의 是正을 要請했습니다.

이에 對해 日本側은 지금까지의 調査로는 行政指導는 實施되지 않는 등 自國內 實態를 說明하고, 韓國側要請에 對하여는 歸國後 日本政府에 伝하고 그 改善을 要望하기로 約束했습니다.

또한, 電氣製品의 對日輸出問題에 關해 韓國側은 型式承認 申請資格이 日本業者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問題가 있다고 指摘, 이의 改善을 要望했습니다. 이에 對해 日本側은, 申請資格을 日本業者에게만 限定시킨 것은 問題(사고)가 發生할 경우, 日本業者밖에 責任질수 없기 때문이라고 說明하고, 그러나 韓國側에서 申請資格, 認可의 신속화, 代行檢査등에 關하여 正式文書로 要請하면, 이를 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의 名義로 日本政府에 伝할 것을 提議했으며 이에 따라 韓國側은 昨年 12月, 韓日貿易擴大均衡委員會委員長의 이름으로 書翰을 發送, 善處를 依頼한바 있습니다.

이를 받아 日本側은 지난 2月, 韓國側要望事項의 實現을 關係當局에 建議했으며, 最近에 當局의 正式回答을 얻었습니다. 이로서 同 問題는 解決을 向하여

進一步한 것입니다.

韓國側은 또한 對日技術導入製品의 輸出上隘路問題에 言及, 韓國이 日本으로부터 技術을 導入하였을 경우, 同 技術로 만들어진 製品을 輸出하는데 制限條件을 달고 있어 輸出上 커다란 沮害가 되고있다고 指摘, 이 問題가 改善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技術導入이 歐美地域으로 轉換될 우려가 있으므로, 日本側의 技術提供者가 너무 심한 制約條件을 붙이지 않도록 권장해줄 것을 要望했습니다.

이에 대해 日本側은 그 趣旨에는 理解가 가나, 技術關係의 契約은 파트너끼리의 協議事項이어서 第三者가 干渉하는대는 問題가 있다고 說明했습니다. 그러나 韓國側은 앞으로 서로가 是正무드를 造成해갈 것을 提議했으며, 兩側은 우선 本件을 合同委員會에 上程하여, 무드造成에 努力하기로 合意했습니다.

한편, 日本側은 駐韓日本商社의 스테이터스의 改善과, 오파去來에 따른 課稅의 合理的인 改善 및 貿易去來에 關한 약간의 문제에 대하여 그 改善策을 要請했습니다. 日本側은 이 가운데서 特히 스테이터스問題의 早期解決을, 課稅問題에서는 實態에 맞는 課稅를 韓國政府當局에 要望하여줄 것을 要請했습니다.

이에 對해 韓國側은 國內實情을 說明하고 또한 日本側의 強한 要望事項을 政府에 報告할 것을 約束했습니다.

其他問題에서 韓國側은 80年들이 日本서 組織된 「東아시아 貿易研究會」에 대해 言及, 이 問題는 事態의 추이 여하에 따라서는 韓國側의 強硬한 措置를 尤 말할 우려가 있다고 指摘, 不幸한 事態를 誘發하지 않도록 日本側의 各별한 留意를 促求했습니다.

이에 대해 日本側은 同 研究會의 設立趣旨를 說明하는 한편 日本의 經濟人은 韓日關係의 重要性和 南北韓關係의 複雜性을 잘 認識하고 있고, 또한 日本의 交易國中, 韓國이 5大國에 들어있는 등 兩國貿易이 매우 緊密한 關係에 놓여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韓國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回答했습니다.

끝으로 兩側은 앞으로도 一層 緊密한 關係를 維持할 것에 合意했습니다.

以上으로 経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 訪韓國 輸入等 促進밋손의 活動結果에 関한 報告(要約)

報告者：植田三男(우에다 미쓰오)

訪韓國밋손調整委員會 委員長

日商岩井(株) 社長

### 〈議案8〉

#### 1. 밋손의 成果및 參考事項

訪韓國 輸入等 促進밋손이 昨年 7月9日부터 18日까지 韓國에 滞在하며 積極的으로 商談을 進行시켰던 일은 周知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日本政府는 밋손 派遣의 마무리作業으로서 派遣後 6個月간의 成約調査를 行하고 最終的인 成約額을 集計하였는데 이에 依하여 当初約束은 充分히 達成된 것으로 確信하고 있습니다.

또한 本밋손의 成功에 依해서 世界の 다른나라들로부터 日本政府에 對하여 이와같은 밋손派遣의 要請이 와 있는데 이것은 本 밋손의 成果를 認識하고 높이 評價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韓國產品의 輸出促進에 있어서 長期的 觀點에서 뿐만 아니라 短期的 觀點에서의 問題點을 指摘, 말씀드리며 將來의 參考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① 一般機械

品質管理 生産管理 正確한 納期の 確保, “아프터 써-비스” 體制等에 아직도 不充分한 面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크레임” 處理가 不充分하고 紛糾가 發生하고 있는 事例가 많습니다.

그런데 第3國으로의 “프랜트” 輸出協력이 今後의 日韓機械工業協

力の 重要な 基盤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② 電機機械

価格面에서 國際競爭力을 保持할 것. 인프레, 賃金昂騰, 高金利에 시달리는 韓國經濟의 現況 속에서 크게 努力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製品의 品質管理徹底化는 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 ③ 一般品目

### a) 農水産物

日本の 消費者動向을 잘 把握해 주셔서, 예를 들면

- 衛生觀念에 對한 日本의 思考方式 및 規格
- 品質規格의 嚴格함
- 鮮度에 對한 觀念

等에 留意할 것.

또한 韓國에 있어서 加工, 半加工製品化하여 附加價值를 보다 더 높인 것을 輸出하게 되면 對日輸出이 늘어날 可能性은 充分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b) 消費財

日本の 正確한 商品事情이나 流通機構를 잘 研究하셔서 于先 消費者의 必要性에 適應한 製品의 生産에 注力하여 品質, 感覺, 價格面의 綜合的競爭力을 向上시키기 爲하여

- 業者相互間의 協力體制의 確立.
- 海外 “패션”의 研究
- 設備의 近代化와 省力化에 依한 原價面의 改善
- 品質管理의 徹底

를 推進하는 일이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結論으로서 本밋손의 訪韓은 日韓經濟關係의 發展 交流促進에 寄与하는 바가 매우 컸다고 믿는 바입니다.

따라서 먼저 말씀드린 點에 關하여 韓國側에서도 加一層의 努力을 하시기 바라며 “밋손”을 契機로 旺盛해진 日韓의 經濟交流發展에 한層 더 寄与할 생각입니다.

## 2. 其他活動狀況(要約)

① 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의 貿易擴大均衡委員會 및 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의 補充, 強化를 圖謀하는 것 등에 依해서 本밋손의 成果를 具體적으로 推進함과 同時에 今後의 日韓經濟交流의 加一層의 擴大를 爲하여 Follow-up을 行하였다.

② 韓國에 있어서 中小企業育成의 重要性을 勘案하여 이 分野에 있어서 日本의 中小企業의 對韓投資 및 技術協力の 促進을 圖謀하기 爲해서 投資環境 등의 實地調査團을 派遣하였다.

③ 日本消費者의 韓國產品에 對한 理解를 깊게 하기 爲하여 “밋손” 團員社의 一部는 歸國後 韓國產品의 特売會를 開催하였다.

④ 本밋손의 訪韓을 記念해서 關係 各機關의 全面的인 協力 아래 日韓兩國間의 바람직한 經濟關係의 發展에 寄与하기 爲한 懸賞論文을 募集하고 優秀作品을 表彰하였다.

## 貿易部門 合同會議 資料

### 〈議案9〉

#### 目 次

#### I. 韓・日 貿易의 現況

##### 1. 韓・日 貿易의 規模

##### 2. 貿易收支

##### 3. 韓・日 貿易構造

#### II. 韓・日 貿易의 增進을 爲한 韓國側 意見

## I . 韓 · 日 貿易의 現況

### 1 . 韓 · 日 貿易의 規模

韓·日 兩國間の 貿易은 1965 年の 國交正常化以來, 해마다 擴大되어 왔다. 卽, 1970 年 當時만해도 10 億 4,300 万에 불과했던 것이, 78 年에는 86 億\$, 79 年은 100 億\$, 80 年은 89 億 1,200 萬\$을 記錄하는 등 그 規模가 크게 膨脹하고 있다.

이중 韓國의 對日輸出額은 70 年の 2 億 3,400 万\$에서 80 年은 30 億 3,900 万\$를 記錄하여, 韓國의 全體輸出高 175 億 500 万\$의 17.4%를 占하였다.

한편, 對日輸入額은 70 年の 8 億 900 万\$에서 80 年은 58 億 5,800 万\$를 나타내어, 韓國의 全體輸入高 222 億 9,200 万\$의 26.3%를 차지하는 등 커다란 伸張勢를 보이고 있다.

### 2 . 貿 易 收 支

兩國間貿易의 急激한 伸張은 兩國間の 貿易收支面에 極甚한 不均衡을 招來하였다. 卽, 韓國의 對日貿易赤字는 1970 年の 5 億 7,500 万\$에서 79 年은 33 億 300 万\$, 80 年은 28 億 1,800 万\$를 나타내는 등 赤字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最近 몇年間 韓國의 全體貿易收支는 繼續 改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對日貿易收支는 오히려 赤字가 累積되어오고 있다. 이 때문에 韓國은 歐洲等 其他地域과의 貿易에서 얻은 黑字를 가지고 對日貿易赤字를 補填하는 結果를 낳아, 結局은 歐洲等の 對韓輸入規制마저 誘發하고 있는 實情이다.



對日貿易收支推移

<表1>

(單位：1,000 \$)

年 度	輸 出	輸 入	收 支
1966	66,293	293,793	-227,500
1967	84,726	443,051	-358,325
1968	99,745	624,117	-524,372
1969	133,326	753,818	-620,492
1970	234,329	809,282	-574,953
1971	261,988	953,777	-691,789
1972	407,876	1,031,085	-623,209
1973	1,241,539	1,726,901	-485,362
1974	1,380,196	2,620,551	-1,240,355
1975	1,292,904	2,433,602	-1,140,698
1976	1,801,554	3,098,964	-1,297,410
1977	2,148,289	3,926,576	-1,778,289
1978	2,627,266	5,981,487	-3,354,221
1979	3,353,028	6,656,699	-3,303,671
1980	3,039,408	5,857,810	-2,818,402
(1966-1980)	18,172,467	37,211,513	-19,039,046

資料：關稅廳

### 3. 韓・日貿易構造

#### (1) 對日輸出構造

우리나라의 對日輸出商品構造를 보면, 79 年の 경우, 農水産食料品 및 直接消費財等 1 次產品과 輕工業製品이 각각 19.7 %와 52 %로 압도적인 比重을 占하고 있으며, 重化學工業製品은 20.2 %水準에 머물고 있다.

또한, 魚介類와 纖維製品은 각기, 對日 1 次產品輸出과 輕工業製品輸出的 主宗品目으로서 對日總輸出의 16.4 %와 37.9 %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重化學製品別의 構造를 보면, 機械類가 輸出總額의 8.6 %, 化學製品이 5.5 %, 鐵鋼 5 %順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71 年에서 79 年 사이의 對日輸出商品의 構造變化를 보면, 輕工業製品과 重化學製品의 對日輸出比重은, 71 年の 36.7 %와 7.4 %에서 79 年에는 각각 52.0 %와 20.2 %로 다같이 높아지고 있으며, 反面, 1 次產品의 比重은 낮아지고 있다.

#### (2) 對日輸入構造

한편 對日輸入構造를 보면 79 年の 경우, 重化學製品이 全體의 81.7 %를 占하고 있으며 輕工業製品이 11.5 %로서, 重化學工業爲主의 偏重된 對日輸入構造를 보이고 있다.

重化學製品에서는 機械類가 47.1 %로 가장 높으며 이어 原料와 化學品이 20 %로 되어 있다.

또한 對日輸入에서 가장 큰 比重을 占하고 있는 機械類의 內譯을 보면 一般機械가 53.64 %, 電氣機器 33.24 %, 輸送機器 7.9 %, 精密機器 5.2 %로 되어 있다.

한편, 71 年에서 79 年 사이의 對日輸入商品의 構造變化를 보면, 輕工業製品

의 比重이 21.4 %에서 11.5 %로 低下된 反面, 重化學製品은 62.9 %에서 81.7 %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

〈表 2〉

對 日 輸 出 商 品 構 造

(單位：1,000 \$,%)

	對 日 輸 出		對日輸出構成比	
	1971 年	1979 年	1971 年	1979 年
食料品及直接消費財	55,145	664,201	20.1	19.7
魚 介 類	2,498	551,867	0.9	16.4
原 燃 料	49,401	82,650	18.1	2.5
金 屬 原 料	18,111	22,691	6.6	0.7
礦 物 性 燃 料	10,655	15,869	3.9	0.5
輕 工 業 製 品	100,846	1,747,767	36.7	52.0
織 維 製 品	80,400	1,273,023	29.3	37.9
化 粧 類	16,599	121,167	6.0	3.6
合 板 ・ 木 材	3,847	92,272	1.4	2.7
重 化 學 製 品	20,246	678,180	7.4	20.2
機 械 機 器	16,240	288,766	6.0	8.6
一 般 機 器	2,200	28,512	0.8	0.8
電 氣 機 器	14,776	227,094	5.4	6.8
精 密 機 器	1,422	27,562	0.5	0.8
鐵 鋼	480	167,170	0.2	5.0
金 屬 製 品	890	36,037	0.3	1.1
化 學 製 品	2,636	186,207	1.0	5.5
合 計	274,421	3,359,416	100.0	100.0

〈表 3〉

對 日 輸 入 商 品 構 造

(單位：1,000 \$,%)

	對 日 輸 入		對日輸入構成比	
	1971 年	1979 年	1971 年	1979 年
重 化 學 製 品	538,130	5,102,301	62.9	81.7
(機 械 機 器)	(284,692)	(2,942,128)	(33.3)	(47.1)
〈一般機器〉	〈139,738〉	〈1,578,174〉	〈16.3〉	〈25.3〉
〈電氣機器〉	〈65,956〉	〈978,003〉	〈7.7〉	〈15.7〉
〈輸送機器〉	〈69,501〉	〈233,418〉	〈8.1〉	〈3.7〉
〈精密機器〉	〈9,486〉	〈152,533〉	〈1.1〉	〈2.4〉
(化 學 品)	(117,432)	(1,028,118)	(13.7)	(16.5)
(金 屬 品)	(136,006)	(1,132,054)	(15.9)	(18.1)
〈鐵 鋼〉	〈102,358〉	〈874,013〉	〈12.9〉	〈14.0〉
〈非鐵金屬〉	〈7,882〉	〈119,717〉	〈0.9〉	〈1.9〉
〈金屬製品〉	〈25,766〉	〈138,325〉	〈3.0〉	〈2.2〉
原 燃 料	41,323	217,522	4.8	3.5
(纖 維 原 料)	(19,373)	(34,266)	(2.3)	(0.5)
輕 工 業 製 品	183,256	719,083	21.4	11.5
(絲 類)	(47,656)	(72,328)	(5.6)	(1.2)
(織 物 類)	(57,592)	(180,178)	(6.7)	(2.9)
(革・同製品及毛皮)	(12,890)	(102,521)	(1.5)	(1.6)
(非金屬礦物製品)	(6,056)	(95,058)	(0.7)	(1.5)
食 料 品	78,582	81,987	9.2	1.3
合 計	855,687	6,246,890	100.0	100.0

〈表4〉

主要國家別輸出實績

(單位：1,000 \$)

國家別	'79年實績	'80年實績	前年對比%
總計	15,055,453 (100%)	17,504,862 (100%)	116.3
1. 亞細亞洲	5,000,255 (33.2)	5,628,712 (32.2)	112.6
日本	3,353,028 (22.3)	3,039,408 (17.4)	90.7
日	530,668 (3.5)	823,318 (4.7)	155.1
中	161,407 (1.1)	216,322 (1.2)	134.0
華	196,693 (1.3)	266,281 (1.5)	135.4
民	1,580,839 (10.5)	2,545,888 (14.5)	161.0
國	704,173 (4.7)	946,111 (5.4)	134.4
2. 中東地域	2,843,320 (18.9)	3,131,280 (17.9)	110.1
사우 더 아 람	2,333,110 (15.5)	2,539,383 (14.5)	108.8
3. 歐	845,340 (5.6)	875,486 (5.0)	103.6
E	541,605 (3.6)	572,532 (3.3)	105.7
E			
C			
獨			
英			
國			
和	330,694 (2.2)	349,507 (2.0)	105.7
蘭	116,302	127,342	109.5
스웨덴	249,465	291,228	116.7
프랑스	153,891	229,447	149.1
이탈리아	118,940	139,020	116.9
벨기에	4,761,541 (31.6)	4,950,071 (28.3)	103.9
4. 北美洲	4,373,898 (29.1)	4,606,625 (26.2)	105.2
美	387,643 (2.6)	343,446 (2.0)	88.6
나	354,761 (2.4)	492,111 (2.8)	138.7
다	201,088 (1.3)	281,707 (1.6)	140.1
5. 中南美洲	156,967 (1.0)	230,371 (1.3)	146.8
6. 大洋洲	313,649 (2.1)	455,943 (2.6)	145.4
7. (北阿除外)			

<表5>

主 要 品 目 別 輸 出 實 績 對 比 表

(單位: US \$ 1,000)

品 目 別	全 地 域			日 本			美 國		
	'79 年實績	'80 年實績	前年對比(%)	'79 年實績	'80 年實績	前年對比(%)	'79 年實績	'80 年實績	前年對比(%)
總 計	15,055,453	17,504,862	16.3	3,353,028	3,039,408	△ 9.4	4,373,898	4,606,625	5.3
小 計	13,440,764	15,299,506	13.8	2,683,926	2,383,535	△ 11.2	3,868,718	4,032,483	4.2
織 維	4,502,899 (29.9)	5,014,323 (28.6)	11.4	1,266,903	884,987	△ 30.1	980,321	1,113,480	13.6
電 子 製 品	1,845,372 (12.3)	2,003,801 (11.4)	8.6	205,994	294,150	42.8	788,168	782,462	0.7
業 用 電 子 器 機	110,661	114,706	3.7	14,035	16,852	20.1	49,945	53,671	7.5
家 庭 用 電 子 器 機	914,544	984,877	7.7	38,932	32,440	△ 16.7	364,927	359,844	△ 1.4
電 子 部 品	820,167	904,218	10.3	158,508	237,992	50.1	329,048	340,740	3.6
鐵 鋼 製 品	1,259,638 (8.4)	1,854,076 (10.6)	47.2	163,959	283,785	73.1	373,198	426,346	14.2
鐵 鋼 板	504,582	646,390	28.1	105,502	170,360	61.5	131,733	97,803	△ 25.8
鋼 管	218,001	342,176	57.0	7,263	8,288	14.1	145,377	244,975	68.5
機 械 類	765,361 (15.1)	904,200 (5.2)	18.1	129,609	99,175	△ 23.5	358,214	490,600	37.0
船 舶 水 上 構 造 物	607,707	606,289	△ 0.2	41,929	65,182	55.5	319,477	185,950	△ 41.8
合 成 樹 脂 製 品	519,460 (3.5)	617,625 (3.5)	18.9	9,014	16,617	84.3	19,968	79,195	296.6
遠 洋 魚 類	458,543	570,818	24.9	50,316	77,627	54.3	156,572	132,946	△ 15.1
合 金 板	453,315	351,866	△ 22.4	171,507	149,926	△ 12.6	59,757	54,294	△ 9.1
屬 製 品	447,928	352,199	△ 21.4	15,505	12,907	△ 16.8	217,719	126,852	41.7
金 屬 製 品	348,920	443,122	27.2	42,091	34,121	△ 18.9	139,181	142,423	2.3
食 品	30,857	70,227	127.6	14,962	7,555	△ 49.5	4,346	4,016	△ 7.6
金 屬 製 洋 食 器	159,521	206,196	29.3	1,754	1,833	4.5	61,453	70,828	15.3
其 他	325,282	477,082	46.7	18,762	16,672	△ 11.1	78,885	100,290	27.1

品 目 別	全 地 域			日 本			美 國		
	'79 年實績	'80 年實績	前年對比(%)	'79 年實績	'80 年實績	前年對比(%)	'79 年實績	'80 年實績	前年對比(%)
肥料	222,604	343,639	54.4	10,669	8,538	△ 20.0	2,340	0	△
玩具	196,682	208,574	6.0	11,803	7,681	△ 34.9	112,825	116,299	3.1
電氣機器	229,808	259,022	12.7	50,252	25,302	△ 49.6	67,544	86,772	28.5
自動車	127,812	134,925	5.6	4,510	3,588	△ 20.4	9,921	8,489	△ 14.4
冷凍機	168,019	124,443	△ 25.9	111,790	87,676	△ 21.6	7,148	5,956	△ 16.7
活鮮魚	119,126	128,338	7.7	111,354	121,035	8.7	313	1,644	425.2
活鮮魚	117,922	234,668	99.0	0	1,134	+	0	0	-
木材	115,308	82,262	△ 28.7	89,592	48,232	△ 46.2	110	43	△ 60.9
窯器	95,847	83,977	△ 12.4	4,383	3,151	△ 28.1	10,119	24,848	145.6
陶磁器	86,019	102,567	19.2	3,968	4,028	1.5	31,878	25,911	18.7
光學器材	68,760	95,713	39.2	9,714	11,121	14.5	34,617	39,502	14.1
工業製品	63,526	53,299	△ 16.1	16,748	15,225	△ 9.1	18,938	18,631	△ 1.6
石材	61,908	57,682	△ 6.8	61,082	57,187	△ 6.4	77	52	△ 32.5
假髮	54,408	55,843	2.6	8,086	8,877	9.8	36,213	36,003	△ 0.6
農産物	50,616	33,964	△ 32.9	3,259	2,447	△ 24.9	26,882	18,928	△ 29.6
文房具	48,394	43,646	△ 9.8	1,211	478	△ 60.5	16,778	11,402	△ 32.0
肉類	45,728	25,825	△ 43.5	45,322	25,630	△ 43.4	118	93	△ 21.2
石	33,852	35,717	5.5	24,594	17,056	△ 30.4	2,434	3,092	△ 26.9

資料：韓國貿易協會輸出統計(1980年12月號)



## Ⅱ. 韓日貿易의 增進을 위한 韓國側 意見

貿易逆調 是正을 위한 兩國協力の 일환으로 日本은 對韓輸入을 促進하는 方向으로 各種 制度의 改善 運用이 要望됨.

### 1. 特惠關稅制度

日本政府는 關稅暫定措置法の 一部改正 및 同 施行令의 一部改正에 따라 81會計年度(81.4.1~82.3.31)의 特惠關稅運用方式을 決定한 바 各各의 內容中 一部는 다음과 같음.

가, 앞으로 特定國의 特定產品이 競爭力이 向上되면 政令에 의해 特惠對象에서 除外시킬 수 있는 制度를 마련한 것은 中進國에 對한 規制를 緩화한 것으로서 韓國商品의 對日輸出 沮止效果를 招來할까 우려됨.

나, 韓國의 對日輸出 主要 纖維品目인 絹絲等 5個品目이 特惠關稅 對象에서 除外되었으며, POLYESTER長纖維絲를 비롯한 4個品目に 對한 限度額의 算定方式이 變更되어 CEILING 限度가 停滯되었으며, 綿絲 및 綿織物(絞織)을 비롯하여 4個品目の 限度額이 彈力化 品目에서 除外되어 特惠幅이 크게 縮小되었음

#### 〈 韓國側 見解 〉

i) 日本은 中進國에 對해 大幅的인 貿易黑字國이면서도 中進國規制를 目的으로 한 “特定國의 特定商品에 對해 GSP 適用對象에서 除外할 수 있다”는 制度를 마련한 것은 對中進國 輸入促進과 배치되는 것으로 同 조치의 實質的인 發動이 없기 바람.

ii) 經濟規模 膨脹에 依한 CEILING의 增加를 自動化할 것이 要望됨.(算出基準年度의 現實化 等)

iii) 纖維 5 個品目に 對한 GSP 除外 決定, POLYESTER 長纖維絲를 비롯한 4 個品目に 대한 CEILING 限度算定方式 變更, 綿絲를 비롯한 4 個品目の CEILING 彈力化 品目으로 부터의 除外 등에 對해 從前대로 還元할것을 바랍.  
 〈參考事項〉

◎ 特惠對象에서 除外된 纖維 5 個品目の 80 年度 特惠受惠實績

(單位: 千백만)

稅番	品名	日本の 總輸入	對韓 輸入	特惠 限度額	特惠 輸入額	現行 稅率	特惠 稅率
50.04	絹絲	18,845	8,762	642	1,556	7.5 %	3.75 %
50.05-1	絹紡絲	3,521	386	898	1,003	15 %	7.5 %
55.05-2(2)	綿絲	40,352	31,193	4,040	3,431	2.8 %	1.4 %
55.09	其他綿織物	40,660	2,681	5,414	3,797	8.4~14 %	4.2~7 %
58.04-2	綿과일織物	9,179	1,762	219	372	5.6 %	2.8 %

[資料: 日本貿易月表, 通產省公報]

註: ① 日本の 總輸入 및 對韓輸入은 80.1~80.12 까지 1 년간 실적

② 特惠限度額 및 特惠輸入額은 80 會計年度 (4.1~3.31) 1 年間の 實績임.

參考: 絹絲, 綿絲, 綿과일織物 3 個品目の 日本の 總輸入에서 對韓輸入이 약 70%에 達하는 品目으로서 特惠受惠도 매우 비중이 높은 品目이다.

◎ 실링限度 算定方式이 바뀐 4 個品目の 80 年度 特惠受惠實績

(單位: 千백만)

稅番	品名	日本の 總輸入	對韓 輸入	80年特惠 限度額	80年特惠 輸入額	81年特惠 限度額	現行 稅率	特惠 稅率
51.01-1(2)	폴리에스테르 長纖維絲	6,169	235	659	593	659	10~20 %	無稅
51.04	人造纖維織物	10,139	2,475	1,678	1,270	1,678	8 %	4 %
51類	人造纖維絲	9,615	352	568	613	748	6~20 %	無稅
60.01	메리야스編物 및 크로세編物	9,664	41	1,744	210	1,744	6~20 %	3~10 %

[資料: 日本貿易月表, 通產省公報]

◎ 실링限도의 彈力化에서 除外된 4個品目の 80年度 特惠受惠實績

税番	品名	日本の 總輸入	對韓 輸入	80年 特惠 限度額	80年 特惠 輸入額	管理 区分	81年 特惠 限度額	現 行 稅 率	特惠 稅率
54類	亜麻・라미織物	10,208	347	148	323	D	239	12~28%	無稅
55類	綿絲 및 綿織物	312,185	1,643	81	506	D	81	4.4~16%	無稅
58.02-2	용 단	10,686	380	1,904	2,333	M	2,340	12~16.8%	6~8.4
62.01	무릎덮개 및 毛布	1,508	8	254	362	M	294	8~11.2%	4~5.6

[資料：日本貿易月表，通産省公報]

## 2. 關稅의 引下

日本の 對 中進國 輸入促進의 一環으로 GSP의 改善運用 外에도 關稅率의 引下가 要望됨.

이에 日本의 GSP 運用의 一例로서 신발類를 들어 이와 같은 類型의 高率關稅適用 品目の 關稅引下를 바랍.

<例>

○ 品目：Regular Shoes

交 易 現 況 1980年基準, 百萬 \$

	신발類計 (6400)	바닥등이 고무제, 인조플라스틱제 (6401)	바닥이가죽제, 고무제, 인조플 라스틱제 (6402)	其 他
日本의 總輸入	303.4	80.2	197.9	25.3
韓國의 對日輸出	99.2	20.8	68.7	9.7

註) ( ) : CCCN 번호

- i) 名目上 日本은 Regular Shoes에 GSP를 適用, 無稅라고 하나
- ii) 實際 GSP 運用을 보면 實施日인 每年 4月 1日字 하루內에 모두 소진되  
어 버려 活用이 거의 不可能한 바,
- iii) 大部分 輸出이 GSP 適用을 못받아, Canvas Shoes, Nylon Jogging

Shoes 등은 10 % 一般關稅가 適用되고 있으며 特히 Leather Shoes는 27 % 나 되는 高關稅下에 輸出되고 있음.

i) 따라서 同 製品에 對한 GSP 適用을 擴大하고, 特히 關稅가 높은 Leather Sports Shoes 關稅를 他 先進國水準(日本 27 %, 美 8.5 %, EC 8 %) 을 勘案, 10 % 水準으로 大幅 引下 要望됨.

### 3. 非關稅 輸入規制

i) - 日本의 對韓輸入規制는 規制根據에 따라 殘存輸入制限, 日本貿易管理令 第3號, 外國人漁業規制에 관한 法律發動, 其他 日本의 行政指導 등에 의한 規制 등으로 大別되며 規制形態는 대부분 輸入쿼타制, 輸入事前許可制등 對中進國 輸入抑制力이 강한 直接輸入規制임.

- 貿易逆調是正 및 中進國과의 貿易部門 擴大均衡(對韓輸入增大)을 圖謀 하기 위해 日本은 非關稅規制의 緩和 및 改善이 要望됨.

日本의 對韓輸入規制現況

品 名	規 制 方 法	規制實施日	規 制 內 容	備 考
참 치	輸出自律 規制	1975 年	77年 60,800 M/T 78年 60,000 M/T 79年 60,000 M/T 80年 60,000(豫想)	① 分期別로 決定 ② 非 公 開
革制신발	輸入數量割當制 (I · Q)		國別割當(割當量非公 布)	殘存輸入制限

品 名	規 制 方 法	規制實施日	規 制 內 容	備 考
生 絲	① 日本蠶絲事業團 에 의한 輸入 一 元化 ② 輸入事前 許可制	1974 年 8 月	① 韓日生絲會談으로 쿼터를 結定하고 이 範圍內에서 事前輸 入許可制 併行實施 ② 80 年度 規制限度： 1 萬 1,150 ~ 1 萬 3,660 俵	規制期間： 80.4 ~ 81.3 79 年比 53 ~ 43 % 減少
絹 撚 絲	"	1976 年 3 月	① 輸入貿易管理令 第 3 號에 의한. ② 規制限度： 8,400 俵	規制期間： 80.4 ~ 81.3 79 年比 29 % 減少
絹 織 物	韓日生絲會談에 의 한 輸出自律 規制	1976 年 3 月	① 80 年度 規制限度： 750 萬 S / M	規制期間： 80.4 ~ 81.3 79 年比 21 % 減少
絹 絲	行政指導	1978 年	口頭로 指示	
미 역	① 輸出自律規制 ② 輸入事前確認制	79 年 3 月 10 日 (通產省 告示 90 號)	① 81 年度 規制限度： 22,650 屯	

ii) 非關稅 輸入規制에 關한 一例

○ 品 目 : Raw-Silk, Thrown Silk-Yarn

○ 交易現況 :

1980 年基準, 百萬\$

	Raw - Silk ( 5002 )	Thrown Silk-Yarn(5004)
日本의 總輸入	130. 7	83. 0
韓國의 對日輸出	19. 0	40. 0

i) 基本 Quota 減少 外에 協定期間內 輸入公告를 遲延시킨다거나 公告量을 더 減少시켜 輸入規制를 하고 있는바,

ii) 最少限 輸入公告量은 實際 Quota 協定量에 相應토록 設定되어야 겠으며, 公告時期 역시 適期에 實施할 것을 要望함.

1 俵=60kg

	年 度	協 定 量	輸入公告量	協 定 期 間	船 積 期 間
<Raw - Silk>	'78	26,530 俵	19,610 俵	'78.4.1 ~'79.3 末	'78.7 ~ '79.9
	'79	23,880	12,200 俵	'79.4.1 ~'80.3 末	'79.10 ~ '80.7
	'80	11,200	未 定	'80.4.1 ~'81.3 末	未 定
<Thrown Silk-Yarn>	'78	13,000		'78.4.1 ~'79.3 末	'79.4 ~ '79.11
	'79	11,700		'79.4.1 ~'80.3 末	'80.3 ~ '80.12
	'80	8,400		'80.4.1 ~'81.3 末	'80.11 ~ 未 定

#### 4. 日本商社等の 韓國商品 輸入促進強化

##### i) 開發輸入擴大

日本商社들은 그간 對韓輸入擴大 및 貿易不均衡의 是正努力을 強調해 왔으나, 實際로는 纖維製品 등 輕工業製品의 輸入先을 그간의 韓國에서, 中共, 香港, 臺灣, 스리랑카등으로 轉換시키는 케이스가 부쩍 늘고 있다.

이런 傾向으로 인해 駐韓日本商社들의 對韓輸入은 점차 減退되고 있는바 貿易收支改善을 위해서 日本商社 等 業界는 對韓輸入擴大에 積極 協力해야 할 것이며 具體的으로 슈퍼마켓, 白貨店, 大商社들의 韓國商品의 開發輸入擴大 및 위탁生産(프라이 베이트·브랜드商品包含)의 擴大등에 힘써주길 바란다.

##### ii) 3 國間 貿易 擴大

— 駐韓 日本商社支社의 3 國間 貿易 擴大 努力은 韓國의 輸出 增大에 크게 寄與하고 있음.

— 특히 日本 大商社 等에 依한 3 國間 貿易 擴大는 韓國의 貿易逆調是正을 위해 앞으로도 繼續 積極 推進하여 주기 바람.

#### 5. 對日技術導入 製品의 輸入制限條件

技術導入契約時 對日輸出 및 其他地域 輸出規制 또는 價格의 事前承認 等の 條件을 붙이고 있는 바, 日本企業은 民間 Base 經濟協力の 一環으로 이와 같은 制限事例의 是正과 條件附 技術契約의 중지를 要望함.

提案者：金 鎮 河

株 高麗貿易 社 長

## 1. 貿易逆調 現況

韓日兩國間の 貿易은 1965 年の 国交正常化 以來 해마다 擴大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韓國經濟의 急速的인 成長에 따라 對日輸入依存幅이 해마다 커져 甚한 貿易逆調 現象을 보이고 있습니다.

即 1970 年에는 5 億 \$ 台의 對日貿易赤字가 1979 年에는 33 億 \$ 로 늘어났고 1980 年에는 韓國經濟가 “마이너스” 成長을 記錄하였음에도 不拘하고 28 億 \$ 이란 巨額의 赤字를 示顯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国交正常化後의 1966 年부터 1980 年까지 赤字累計額은 昨年度의 우리나라 一年間の 輸出總額 175 億 \$ 을 훨씬 넘는 190 億 \$ 이 됩니다. 이와 같은 對日貿易逆調은 우리나라에 있어 매우 深刻한 問題이므로 兩國間の 擴大的인 貿易均衡을 위하여,

첫째로, 貴國의 特惠關稅制度의 实效性 있는 運用과

둘째로, 一部品目の 關稅引下

셋째로, 非關稅輸入規制의 緩和 및

넷째로, 日本商社等의 對韓輸入促進 等の 問題를 들어 日本側의 協助를 要請코저 하는 바입니다.

(1) 特惠關稅制度의 实效性 있는 運用에 關하여,

日本政府는 關稅暫定措置法의 一部 改正 및 同 施行令의 一部 改正에 따라 81 會計年度 (81.4.1 ~ 82.3.31) 의 特惠關稅運用方式을 改正한 바 있습니다. 이에 對해 韓國의 對日本貿易逆調是正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提議를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日本은 韓國에 對하여 大폭적인 貿易黒字國이면서도 韓國과 같은



中進国規制를 目的으로 하는 措置, 즉 “特定国の 特定商品에 對해 特惠關稅 適用對象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는 制度를 마련한 것은 韓國商品 輸入促進과 배치되는 것으로 同 措置의 實質的인 발동이 없으사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經濟規模가 膨脹됨에 따라 이에 對한 特惠關稅 稅-링의 增加를 自動化해 주실 것을 提議하는 바입니다.

세째로, 1981年 4月 1日부터 施行된 纖維 5個品目 즉 견사, 견방사, 면사, 면제품파일직물, 기타 면직물 등에 對한 “特惠關稅除外決定”等 韓國商品輸入促進을 阻害하는 方向으로 改正된 制度를 바로잡아 계속적으로 特惠關稅 惠沢에 依한 纖維類의 輸入促進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2) 一部品目の 關稅引下에 對해서 다음과 같이 提議코저 합니다.

特惠關稅品目일지라도 “레귤라 슈즈(Regular Shoes)의 例를 들어 實際運用狀況을 보면 許容稅額이 너무나 적어 하루 사이에 모두 소진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예를들어 特히 Nylon jogging shoes 등은 10%, Leather shoes 등은 27%나 되는 高率의 一般關稅를 支拂해야 함으로 이런 品目の 一般關稅引下와 同時에 特惠關稅適用擴大를 提議 드리는 바입니다.

(3) 非關稅輸入規制의 除去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非關稅장벽에 依한 輸入規制는 너무나 많이 拳論되어 왔으나 이 問題는 貿易逆調是正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早速히 是正되어야 할 것을 거듭 促求하는 바입니다.

그 規制方法을 例示하면 綿糸는 行政指導에 依한 輸入規制, 絹織物 참치·미역등은 輸出自律規制, 絨絨衫발은 輸入쿼타제, 生糸는 輸入事前承認制 등으로 例示할 수 있겠습니다. 生糸와 絹燃糸와 같이 兩國間에 수입쿼타

를 定해 놓고도 適期에 輸入公告를 하지 않음으로써 輸入을 지연시키는 事例는 是正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規制에 해당하는 品目は 韓日兩國間에 있어서 전통적인 輸出品目이요 또 輸入品目이라고 이것을 상기할 때 더욱더 是正되어야 할 것이 絶실히 要請되는 바입니다.

한가지 具體的 例를 들어 미안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980年度 生糸輸入을 合意한 數量은 11,150 포 내지 13,660 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중 輸入을 履行한 量은 한 포도 없습니다. 이렇게 不履行한 데 對해서 貴側에서는 在庫가 累増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측에서 볼 때는 政府間 協定에 對한 信賴度가 결여되고 韓國民의 貴國에 對한 不信感이 약간 造成되고 있다는 것을 率直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不履行됨으로써 저희들측에서는 수출중단에 의한 在庫가 累増되고 製糸業界는 도산직전에 있고 잠사농가는 양잠의욕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特히 양잠농가 27 만의 所得이 減少되므로써 相當한 問題를 提起하지 않겠느냐는 予想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兩國間의 傳統的인 友好的 協力으로써 이 난관을 解決해 주실 것을 懇曲히 付託드리는 바입니다.

(4) 日本商社 등의 韓國商品 輸入促進을 다시 한번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로, 開發輸入擴大를 바랍니다.

日本商社들은 그간 對韓輸入擴大 및 貿易不均衡의 是正努力을 많이 해왔으나 部分的으로 纖維製品 등 輕工業製品의 輸入先을 韓國에서 中共, 홍콩, 대만, 스리랑카 등으로 轉換시키는 傾向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런 傾向으로 인해 駐韓日本商社들의 對韓輸入은 점차 減退되고 있는바 韓國의 貿易収支改善을 위해서 對韓輸入擴大에 積極 努力하기 바라며 具體적으로 슈퍼마켓, 百貨店에 對해 大商社들의 韓國商品의 開發輸入擴大 및 위탁生産의 擴大와 Merchandising에 힘써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음

니다.

둘째로, 3 국간 貿易擴大를 希望하는 바입니다.

駐韓日本商社들 간에는 3 국간 貿易擴大努力으로韓國의 輸出增大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日本商社에 依한 3 국간 貿易擴大는 앞으로도 계속 積極 推進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同時에 貿易逆調是正을 위해서는 日本側의 好意的인 協助와 더불어 우리측도 日本市場이 要求하는 “니즈”(needs)를 찾아 보다 큰 努力과 輸出活動의 強化가 並行되어야 한다는 點을 強調하겠습니다. 多幸히도 우리는 物価安定, 賃金上昇率의 低下, 品質改善, 生産性の 向上등으로 國際競爭力이 強化될 것이 確實視되므로 兩國間の 協助는 기필코 是正이 實現될 것을 確信하면서 저의 提案을 마치는 바입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駐韓日本商社の 法的地位 및 오파去來에  
對한 認定課稅問題

三井物産(株) 常務

阿 部 良 夫

〈議案10〉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韓日双方의 理解를 한층 깊게 해야 한다는 것과 日本側에서 韓國側 여러분들께 부탁한다는 것 이 두가지 觀點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駐韓日本企業의 「스테이타스」問題가 있습니다. 이 問題는 議題로서 金社長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이번 會議席上에서도 여러번 取扱되어 왔으며 또 韓日兩國의 委員들이 充分히 알고 있는 問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內容에 關해서는 여기서 새삼 말씀드리는 것은 省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問題는 韓日兩國의 相互 互惠 平等의 精神에서 볼 때 基本的인 問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機會에 再次 여러분의 協力을 바라고 貴國 政府에 對해서 부디 韓國側의 委員 여러분들이 잘 建議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럼으로써 在韓日本企業들의 輸出入業者로서의 地位를 認定하여 주시도록 協力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貴國에 있어서는 日本의 企業만이 아니라 다른 外國의 企業도 아직 輸

出入業이 認可되지 않고 있는 實情에 對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으며 日本의 企業만에 對한 規制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歐美諸國 뿐만 아니라 亞細亞 여러 主要 나라에서는 開放體制를 向해서 一定한 條件과 資格을 가진 外國의 企業에 對하여서는 輸出入業을 認可하고 있는 것이 實情입니다. 물론 日本에서도 貴國의 綜合商社가 日本의 商社와 똑같은 待遇를 받고 自由로운 營業活動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觀點으로 말씀드리자면 韓日兩國間에 商去來의 擴大만이 아니라 東南亞細亞 中近東 혹은 「아프리카」등 第3國에 있어서 韓日兩國間的 相互 有力 企業의 緊密한 協力과 水平分業에 의해서 「프로젝트」나 「플랜트」를 앞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重要한 課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를 위해서도 駐韓 日本商社에 對해서 韓國企業에 附屬되고 있는 것과 같은 法的 「스테이타스」를 附屬해 주시으로써 韓國에 있어서 日本商社가 더욱 責任을 느껴 多角的인 活動을 함으로서 特別히 韓日兩國商社에 의한 一層 關係의 緊密化를 이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結果로서 韓國의 經濟發展에도 寄與하게 되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以上과 같은 實情을 韓國側 委員 여러분께서 理解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랫동안의 懸案으로 되어 있는 이 問題에 對해서 格別한 協力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韓國의 課稅問題에 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日本商社가 韓國內에 支店을 開設해서 韓日兩國의 友好와 貿易增進을 위해서 여러가지 努力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읍니다. 從來會議에서 그 改善을 여러번 말씀드렸던 「오파」業의 認定課稅問題는 이것이 昨年 1月 一部 引下되어 약간 改善된 것은 韓國側의 委員 여러분의 協力 덕분으로 알고 깊이 感謝드립니다.

그러나 現在도 日本商社의 韓國支店에 있어서는 課稅上의 最大의 問題가 되는 것이 바로 認定課稅問題입니다.

韓國側에서는 이 投資會社에 關係가 있는 여러가지 「스토크」에 對해서는

韓国支店이 받아들이는 一切의 口錢에 關係없이 韓国の 稅務当局이 独自の으로 認定課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認定口錢率은 여전히 이것이 高率이기 때문에 一部 品目에 對해서는 甚히 高く 오히려 引上되고 있기 때문에 實際로 日本商社の 韓国支店이 取得하는 口錢은 微微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認定口錢率에 의해서 課稅가 된다면 그 結果로 結局은 利益을 도로 托해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赤字까지 記録하는 이러한 「케이스」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課稅方法이 日本商社の 韓國에서의 活動을 顯著히 沮害하고 있는 것을 理解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日本商社들이 韓國에 支店을 開設하고 韓国の 法律에 依拠해서 業務를 行하는 以上 아주 公正한 税金을 내는것은 至극히 當然한 일이지는 합니 다만, 어디까지나 實態에 根拠를 둔 公正한 課稅가 되도록 그런 認定口錢率問題에 對해 앞으로도 貴國稅務当局을 좀 說得시켜 주시는 積極的인 努力을 해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大端히 感謝합니다.

## 東北亞地域 荷主団体間の 協力

〈議案11〉

韓國貿易協會 理事

黃 敦

東北亞地域에 있어서의 荷主団体間の 協力 움직임에 對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月2日, 3日 兩日間 東京에 있는 日本荷主協議會 主催로 韓國, 日本, 香港 세 나라의 荷主協議會 모임이 있었습니다. 荷主協議會라 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定期船 海運市場에서 独占力을 行使하고 있는 國際運賃同盟과 效率的으로 對抗하기 위하여 結成된 荷主 즉 말하자면 輸出業者의 團體에서 貨物에 對한 船賃, 其他 運送條件에 關하여 荷主의 權益을 保護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습니다.

東京의 3者間 實務會議에서는 다음 事項에 對하여 合議하였습니다.

첫째; 韓國, 日本, 香港의 3個國 荷主協議會間에 協力體制를 두기로 한다.

둘째; 同 協力機構는 當分간은 非公式形態를 取하며 必要에 따라 年 1~2回 各國을 巡訪하면서 會議를 開催한다.

세째; 3個 荷主協議會는 世界 各地域 運賃同盟과 共同對処하기 위한 情報 資料交換, 事前協議 共同協商 등을 할 수 있다.

이와같은 東北亞 地域内の 各国 荷主協議會間の 結束은 그간 UN의 「아시아, 太平洋經濟社会委員會」 즉 「에스캐프」의 域内 荷主團體 結束의 一環으로 꾸준히 推進되어온 것입니다.

아시아, 太平洋地域内에서는 이미 小地域別로 「아세안 荷主協議會聯合會」 즉 「아세안」 5 個국의 荷主協議會聯合會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等 네나라의 荷主協議會聯合會 등이 이미 構成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歐羅巴에서는 歐洲 全地域을 網羅하는 歐洲荷主協議會聯合會 「European Shippers Council」 즉 ESC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미 1960 年度에 設立되어 荷主의 權益擁護에 앞장서서 커다란 活躍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새로운 國際海運秩序에서 相互權益增進 및 協力体制確立 이라는 局面에서 보다 積極的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는 또한 韓國, 日本 兩國間の 貿易增進協力에 또 하나의 새로운 里程碑가 되어 兩國間 友好關係增進에도 크게 寄与할 것으로 確信하는 바입니다. 參考로 韓國荷主協議會 會長은「劉彰順」韓國貿易協會 會長, 그리고 日本 荷主 協議會는 「稻山嘉寛」經團連 會長이 兼任하고 있습니다. 香港 荷主協議會 會長은 「데니스 H.S 텅」氏가 맡고 있습니다.

以上 간단히 報告드립니다.



## 海運協力에 關하여 ( 日本側 要望 )

### 〈議案12〉

#### (1) 日本船에 依한 韓國／美國 貨物積取에 關하여

昨年の 第 12 回 合同會議에 있어서 再昨年 韓國에서 施行된 「海運振興法施行令」에 依하여 日本船舶會社의 一部가 韓國／美國 定期航路의 貨物積取가 規制되어 重大한 影響을 받고 있는 事實을 勘案, 韓國側이 當航路에 있어 本法의 適用에 關한 어떠한 救濟措置를 講求해 주도록 善處를 要望하였습니다.

最近 日本船에 依한 韓／美 貨物積取에 對한 “웨이바” 申請은 大概 韓國關係當局에 受理되고 있는 狀況이지만, 前記 韓國法律의 運用 自體에 關해 救濟措置를 講求해 주도록 재차 要望합니다.

#### (2) 韓國・日本間 海上輸出入貨物積取에 關하여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韓國／日本間의 輸出入貨物積取는 從來부터 거의 韓國船에 依하여 行해지고 있습니다만 前述한 「海運振興法施行令」施行에 의하여 主要貨物의 船積은 原則적으로 法制上으로도 韓國船에 依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 關係上, 日本船에 依한 兩國間 貨物積取는 더욱 困難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狀況을 勘案, 兩國間貨物의 日本船에 依한 積取가 可能하게 되도록 韓國側의 善處를 要望하는 바입니다.

## 共 同 声 明

第 13 回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은 1981 年 6 月 10 日부터 3 日間 서울에서 開催되었다. 朴泰俊 韓日經濟委員會 委員長을 團長으로 하는 韓國代表團 102 名과 日高 輝 日韓經濟委員會 委員長을 團長으로 하는 日本代表團 66 名은 經濟協力, 産業技術, 貿易增進等 各 分野에 있어 複雜하고 變化가 甚한 最近의 國際經濟環境下에 韓日 兩國 및 亞細亞의 健全한 經濟發展을 爲한 兩國 民間經濟協力の 当面 諸問題 및 中長期的 觀點에서 共同研究하여야 할 課題等에 對하여 具體的 檢討와 意見 交換을 하였다.

또한 兩側 代表는 韓國政府側으로부터 第 5 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의 概要說明을 깊은 關心을 가지고 聽取하였다. 日本 代表團은 第 5 共和國 發足에 따라 韓國의 政治가 着實히 安定을 되찾고 經濟도 順調로운 回復을 하고 있다는 認識을 깊이 하였다.

本 會議에서 檢討 및 合意된 事項은 다음과 같다.

### I. 經濟協力

- (1) 環太平洋 經濟共同体 構想에 對한 日本側 說明을 들었으며 이 構想은 長期的 觀點에서 實現되어야 할 性質이라는 것이며 이를 爲하여 相互 協助가 必要하다는 것을 兩側이 確認하였다.
- (2) 第 6 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의 結果報告를 異議 없이 採択하였다. 同 會議 合意事項에 따라 長期大型技術開發研究專

門機構設置를 韓國側에서 提議, 日本側은 그 趣旨에 贊成하고 그 具體化의 檢討는 韓日・日韓 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에서 推進할 것에 合意하였다.

- (3) 過去부터 懸案이 되어 있던 韓日・日韓 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設置에 關하여 意見交換의 結果, 韓國側은 韓日經濟協會가 窓口가 되어 委員會 構成을 81年 7月末 以前에 完了하고 그 後 2個月以內에 事業推進을 爲한 計劃을 確定지을것에 合意하였다.
- (4) 中堅・中小企業間의 協力을 爲하여 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設置가 韓國側에서 提案되었으며 日本側은 그 意義를 評價하고 그 具體化에 關하여는 1981年 9月 開催를 目標로 하여 日本側의 意向을 回答할 것을 約束하였다.

## II. 産業技術

- (1) 技術契約에 있어 制限條件이 없도록 할것과 尖端技術 移轉 特히 電子工業分野의 技術開放에 關하여 韓國側에서 要請이 있었고 이를 爲하여 實務者會議을 設置할 것을 韓國側이 提案하였다. 日本側은 日本國內의 技術開發에 있어서의 오랜 期間에 걸쳐 培養된 土壤을 說明하고 韓國側도 같은 努力이 必要할 것이라는 意見을 陳述하고 우선 實務者 레벨의 協力부터 始作하기로 合意하였다.

## III. 貿易增進

- (1) 第8回 韓日・日韓 貿易擴大均衡委員會會議 結果報告를 異議없이 採択하였다.
- (2) 訪韓國輸入等 促進및 손의 活動結果에 關한 報告를 訪韓및 손 調整委員會 委員長이 했으며 兩側 關係者の 勞苦를 致賀하고 今後 兩國貿易

의 擴大 및 第3國 輸出에 對한 協力에 兩國業界가 加一層 努力한 것에 合意하였다.

(3) 韓國側은 韓日間의 貿易不均衡이 그동안 改善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不均衡의 是正方案으로

i) 行政指導에 依한 輸入規制, 輸入窓口的 一元化, 輸出自律規制, 對日技術導入製品의 輸出制限等 日本의 非關稅障壁의 除去

ii) 81년부터 特惠關稅適用에서 除外된 絹・綿糸 및 織物類等 適用復活

iii) 特히 1980年度分 生糸에 關한 兩國間 合意物量の 輸出 不履行事實을 指摘, 이의 是正을 要請.

日本側은 以上の 여러 點에 關하여 努力하는 同時, 自國政府에 韓國側의 強力한 要請을 傳達하기로 約束하였다.

(4) 日本側은 駐韓 日本商社의 法的地位改善을 要請하고 또한 過去來에 있어서의 課稅에 對하여 앞으로 繼續해서 改善될 수 있도록 韓國側의 協力を 要請하였고 이에 對하여 韓國側은 國內 實情을 說明하고 日本側의 要望을 關係當局에 傳達하기로 約束하였다.

(5) 兩側은 東北亞地域內 荷主 協議會間의 協力體制에 關한 1981年4月2日 東京會議의 結果報告를 받고 向後 協力體制에 努力할 것을 原則적으로 合意하였다.

(6) 海運協力에 있어 日本船에 依한 韓國/美國 貨物積取와 韓國・日本間 海上 輸出入 貨物積取에 關하여 日本船에 依한 貨物積取가 改善되도록 日本側의 要請이 있었으며 韓國側은 이에 對한 實情을 說明하고 解決 可能的 것은 關係當局 및 團體에 要請을 傳達할 것을 約束하였다.

IV. 上記 以外에 過去 合同會議에서 合意되어 順調롭게 進行되고 있는 兩國 商工會議所를 窓口로 한 技術者 斡旋等 兩國間 經濟協力面에서 이미 解決된 問題들은 相互 繼續 努力한다는 것에 合意하였다.

V. 次期 會議는 1982年4月 日本 東京에서 開催할것에 合意하였다.

1981年 6月 12日

韓國代表團 團長 朴 泰 俊

日本代表團 團長 日 高 輝

## 閉 会 辭

連 3 日間의 會議을 眞摯하고 和氣에 찬 雰囲気 속에서 서로의 關心事를 論議하고 意義깊은 共同聲明을 採択하고 閉會하게 된것을 大端히 多幸스럽게 생각합니다.

本 會議에 參席하여 주신 兩側 代表團께 다시 한번 感謝의 뜻을 表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忌憚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 機會가 좀더 자주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會議은 이것으로 끝나게 되지만 이번에 合意되어 새로이 設置되는 두개의 專門委員會와 이미 여러 해를 거듭해가며 活動을 繼續하고 있는 두 專門委員會 하나 하나가 常設的인 對話의 橋梁役割을 充實히 해줄것을 期待합니다. 一年에 한번 있는 合同委員會에서 仔細한 問題까지를 解決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것이기 때문에 各 分野別 專門委員會에서 解決이 안되는 큰 案件만이 이 合同委員會에 上程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會議의 運營形態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3 日間 論議된 事項은 다시 調査와 檢討를 하여 韓國側에서 履行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約束한 時日內에 施行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日本 代表團께 作別の 人事를 드리고저 합니다.

感謝합니다.

1981. 6. 12

韓 日 經 濟 委 員 會

委員長 朴 泰 俊

## 閉 会 辭

지금 막 韓國側 朴團長님으로부터 人事를 받아 大端히 感謝합니다.

朴團長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 日부터 오늘까지 3 日間に 걸쳐서 이 合同會議가 서울에서 開催된 것은 約 2 年만이 되는 셈입니다.

이 合同會議가 共同聲明을 採択함으로써 今後的 協力體制와 具體化의 實現을 여러분과 함께 確認하고 閉會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兩側代表團 여러분의 熱誠的인 討議와 積極的인 意見을 말씀해 주신 結果로 日本側을 代表해서 거듭 敬意를 表함과 同時に 感謝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閉會辭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貴國에 있어서 새롭게 構成된 韓日經濟委員會에 依해 이번 會議가 運營되었읍니다. 朴泰俊 委員長 以下 團員 여러분이 한 데 뭉쳐서 이에 対処해 주셔서 極히 充實한 會議를 始終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더할수 없이 多幸스러운 일입니다.

閉會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兩國을 둘러싼 内外의 어려운 環境속에서 아시아에서 有力한 工業國인 兩國이 世界經濟의 發展에 寄與하는 役割은 漸々 增大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會議에 있어서는 兩國間의 經濟交流의 当面課題에 關해서 뿐만 아니라 長期的이고도 넓은 範圍에 걸친 觀點에서 兩國이 이룩해야 할 役割 또는 그 具體的 方策 等에 關해서 幅넓은 檢討가 交換되었던 셈입니다. 마는 이것은 時代의 轉換에 即應하는 兩國 經濟人의 思考方式, 意志를 表明한 것으로 내 自身 大端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會議에서 討議되었던 여러 가지 事項들은 朴團長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하나 하나 꾸준히 實行해 나아가, 例를 들어 長期에 걸친 問題라 한지라도 着實히 이것을 推進해서 即興的인 非難을 받는 일 등은 없도록 留意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貴國에 있어서 來年부터 시작되는 第 5 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에 關

해서는 그 概要를 說明들을 수 있었습니다. 5次5個年計劃은 確定 發表된 뒤에는 今後의 우리들의 經濟協力の 推進方法 等에 關해서 하나의 指針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큰 期待를 가지고 있으며 그 展望이 發表될 때에는 그 內容을 틀림없이 理解할 수 있도록 研究도 해서 今後의 經濟協力の 增進에 一層 努力을 傾注해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번 合同會議에 關해서는 第13回째이지만 前例없이 많이 參加해 주셔서 그 數에 있어서나 構成要員에 있어서도 여태까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貴國의 新體制에 即應한 意義가 넘치는 것으로 느껴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무어라 해도 人的交流야말로 經濟協力の 밑바탕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에 의해 相互 理解와 信賴의 程度가 깊어진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事實이기 때문에 이 合同會議는 조금前 共同聲明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來년에는 4월에 東京에서 開催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日本에서는 來年の 일을 이야기 하면 鬼神이 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鬼神이 비웃지 않도록 여러분 多數가 參加하셔서 이번 會議에 못지않는 成果를 올릴 수 있도록 協力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어라 해도 이 第13回 合同委員會 會議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한 成果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兩國 代表團 여러분의 協力の 德이라고 생각하며 閉會에 臨하여서 거듭 感謝드리는 바이며, 經濟情勢가 매우 어려운 環境下에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더욱더한 健勝과 奮闘 努力있으시기를 祈願하면서 閉會辭에 가름할까 합니다.

大端히 感謝합니다.

1981. 6. 12

日 韓 經 濟 委 員 會

委員長 日 高 輝



協會의 沿革

1981年 2月 4日 發起人會 開催

發起人 大韓商工會議所 會長 鄭壽昌  
" 全國經濟人聯合會 會長 鄭周永  
" 韓國貿易協會 會長 金元基  
"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會長 柳埈諤  
"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 會長 朴泰俊  
發起人 代表에 朴泰俊 會長을 選任.

1981年 2月 12日 創立總會 開催

發起人 및 業界 代表 150餘名이 參席 社團法人 韓日 經濟協會를 創設키로 全  
員 贊同하고 다음 事項을 議決하다.  
1. 定款 採擇  
2. 任員 選任  
3. 81年度 事業計劃 確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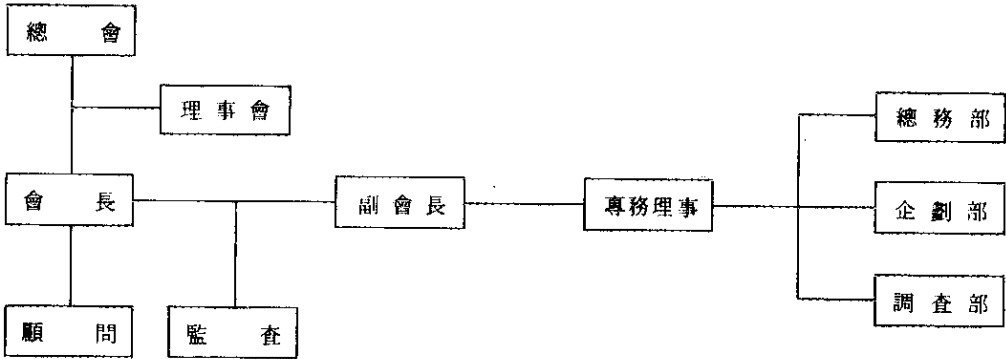
1981年 2月 23日 經濟企劃院 法人設立 承認許可 經濟企劃院 承認 第40號

1981年 2月 23日 서울 民事地方法院 法人設立 登記 完了 第1866號

1981年 2月 26日 事務局 開設

서울特別市 中區 忠武路 3街 60-1 (極東빌딩 24層 2405~6호)  
電 話 : (02) 261-7191(代)~5  
〒100 중앙사서함 8964

事務局 機構表



# 定 款

## 第一章 總 則

第一條【名稱】 本協會는 社團法人 韓日經濟協會(英文: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라 稱한다.

第二條【目的】 本協會는 韓日兩國經濟界의 相互理解와 親善을 增進하며, 特히 兩國經濟의 提携를 圖謀함으로써 相互繁榮과 世界平和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三條【事務所】 本協會의 主事務所는 서울 特別市에 둔다. 但, 理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는 國內外에 支部를 둘 수 있다.

第四條【事業】 本協會는 第二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行한다.

1. 兩國經濟協力을 爲한 調查 研究 및 資料 交換
2. 兩國經濟 提携에 關한 政策立案
3. 韓日 民間合同 經濟委員會 年例會議 開催
4. 兩國間 民間經濟 및 通商 使節團의 派遣, 迎接 및 實業人, 技術者, 專門家 등의 交流를 爲한 相互協力
5. 會員 相互間의 親睦 增進과 啓發 向上
6. 前 各號外에 本協會의 目的 達成에 必要한 事業

## 第二章 會 員

第五條【會員】 本協會의 會員은 協會의 目的에 贊同하는 國內 個人, 法人 및 團體로 한다.

第六條【入會】 本協會에 入會하고자 할 때는 會員 二人以上의 推薦으로 入會 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하며,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入會한다.

第七條【會費】 ① 本協會는 事業費用에 充當하기 爲하여 會員으로 부터 會費를 徵收한다.

② 會費의 分担基準, 金額, 徵收方法, 其他 必要한 事項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八條【脫退 및 除名】 ① 會員은 本人의 申請으로서 脫退할 수 있다.

② 會員으로서 會費를 滯納한 者, 또는 本協會의 名譽를 毀損케 한 者는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除名할 수 있다.

③ 脫退 및 除名의 경우, 既 納入한 會費는 返還하지 아니한다.

## 第三章 任 員

第九條【任員】 本協會에 다음 任員을 둔다.

會 長	一 人
副 會 長	若 干 人
專務理事	一 人
理 事	若 干 人
監 事	二 人

第十條【任員의 選任】 ① 會長, 副會長, 理事 및 監事는 總會에서 選任한다.

② 專務理事는 會長の 提請으로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會長이 任免한다.

第十一條【任期】 ① 任員의 任期는 三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② 補闕로 選任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③ 任員의 任期가 定期總會 前に 滿了될 때에는 定期總會時 까지 延長한다.

第十二條【任務】 ① 會長은 本協會를 代表하며, 總會 및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되며 會務를, 總括한다.

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는 會長이 指名한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③ 專務理事는 常勤으로 會務를 管掌하며, 會長 및 副會長 有故時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④ 理事는 理事會에 參席하여 本協會 運營에 관한 事項을 審議 決定한다.

⑤ 監事는 本協會의 財産狀態를 監査하고, 總會에 參席하여 이를 報告하며, 理事會에 出席하여 그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十三條【顧問】 ① 本協會에 顧問 若干人을 둘 수 있다.

② 顧問은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 中에서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會長이 推戴한다.

③ 顧問은 會長の 諮問에 應하며 會議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十四條【報酬】 ① 本會 任員中 專務理事는 有給으로 하며, 그 報酬는 理事會의 定하는 바에 의한다.

② 非常任 任員의 業務遂行에 必要한 經費는 實費로 支拂할 수 있다.

## 第四章 總 會

第十五條【總會】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눈다.

② 定期總會는 每年 二月中에 召集한다.

③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와 理事會 決議에 依할때, 또는 會員 三分之一 以上の 書面 要求가 있을 때 召集한다.

④ 總會의 召集은 會議 開催 七日前까지 議題, 日時 및 場所를 記載하여 書面으로 會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十六條【議決】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本協會의 解散 및 合併
2. 定款의 制定 및 變更
3. 事業計劃 및 報告의 承認
4. 豫算 및 決算의 承認
5. 會長, 副會長, 理事 및 監事의 選任 및 解任
6. 其他 重要事項

第十七條【議決方法】 總會의 議決은 會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하고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議決權을 갖는다. 但, 定款의 改正은 會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會員 3 分之二 以上の 贊成으로 한다.

第十八條【議決權의 代理行使】 總會에 出席할 수 없는 會員은 代理人을 選定하여 議決權을 代理行使케 할 수 있다.

第十九條【議事錄】 總會의 議事に 對하여 經過 內容과 結果를 議事錄에 記載하고, 議長 및 議長이 指名한 出席會員 三人이 署名하여 保存한다.

## 第五章 理 事 會

第二十條【理事會】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專務理事 및 理事로서 構成한다.

第二十一條【議決】 ① 理事會는 定款에서 規定된 事項 및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本會 運營의 基本的인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② 理事會 밑에 運營委員會를 두어 總會나 理事會에서 委任한 事項을 審議 議決케 할 수 있다.

第二十二條【議決方法】 理事會의 議決은 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하고 可否 同數인 경우에는 會長이 議決權을 갖는다.

## 第六章 會 計

第二十三條【經費】 本 協會의 經費는 入會金, 會費, 補助金, 贊助金 및 其他 收入으로써 이를 充當한다.

第二十四條【會計年度】 本 協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一月 一日부터 十二月 末日까지로 한다.

## 第七章 事 務 局

第二十五條【事務局】 本 協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둔다.

第二十六條【職員 및 職制】 ① 事務局의 職員은 會長이 任免한다.

② 事務局의 職制와 重要規程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制定한다.

## 附 則

1. 本 定款은 經濟企劃院 長官의 本 協會 設立認可日로 부터 施行한다.
2. 本 協會의 發起人 및 創立 會員은 第六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第五條의 會員이 된다.

## 附 記

1. 經濟企劃院 長官의 法人認可: 1981年 2月 23日 第 40號
2. 法院의 社團法人 設立登記: 1981年 2月 23日 서울 民事地方法院 登記 第1866號

〈가나다順〉

會社名	職位	代表者	業種	住 所	電 話
江原産業株式會社	社長	鄭寅旭	製造・販賣・貿易	鍾路區新門路2街6	720-7111
建設實業株式會社	"	金光均	貿易・製造	中區小公洞51(KAL 신관(17層)	22-9568
京畿化學工業株式會社	"	權達顏	肥料・製造	京畿道始興郡蘇萊邑玉吉里山103	(613)0071/5
(株)高麗貿易	"	金鎮河	貿易	鍾路區堅志洞68	722-9676/9
高麗製鋼株式會社	"	洪鍾烈	製造(鉄鋼)	中區忠武路2가64-5	776-4131/5
高麗合纖株式會社	會長	張致赫	合成纖維製造	京畿道始興郡鐵旺面古川里61	서울)28-1251/5 안양)2-0101~6
光進電子工業株式會社	社長	趙漢英	通信機器製造業	中區會賢洞1街194-15(인송BLD)	23-6610
國際商事株式會社	社長	係尚模	綜合貿易	鍾路區鍾路1街1-1	771-81.61
金星計電株式會社	"	尹煜鉉	電氣機器製造	中區忠武路3街60-1	260-4337
(株)金星社	"	許愼九	電氣・電子機器製造	中區南大門路5街537	23-4023
金星電線株式會社	"	許準九	製造・판매	中區南大門路5街537	23-2810
錦湖實業株式會社	"	朴三求	綜合貿易	中區會賢洞1街194(인송빌딩)	771-71
起亞産業株式會社	會長	金相汶	自動車製造販賣	中區義洲路1街1	722-1611
南鮮物産株式會社	社長	李範魯	貿易	中區小公洞51(KAL빌딩)	778-0411
(株)南洋社	會長	李鍾國	水産・遠洋	龍山區梨泰院洞104-1	795-2115
南榮産業株式會社	社長	南相水	製造輸出人	中區明洞2街52-7	776-1112/5
(株)大農會	會長	朴龍學	貿易・纖維・製造	忠武路4街125-1	266-6111/7
大林産業株式會社	社長	李竣鎔	建設	鍾路區壽松洞146-12	720-8221/9
大林水産株式會社	"	金命年	水産業	中區武橋洞11	777-1751/5
大成酸素株式會社	"	金壽根	工業用化學製造販賣	鍾路區貴鐵洞43-4	725-5671/5
大宇實業株式會社	會長・社長	金宇中・朴世永	綜合貿易商事	中區南大門路5街541	771-91
大英商社株式會社	"	李春福	完成自轉車Tire Tube製造	京畿道城南市新興洞2463-3	(254)-1226 (1342)2-0013
大韓貿易振興公社	社長	張盛煥	國營輸出有關機關	中區會賢洞2街10-1	22-6220
大韓商工會議所	會長	鄭壽昌	經濟團體	中區小公洞111	777-8043
(株)大韓石油公社	社長	崔鐘賢	石油製石油化學製品生産	中區南大門路2街10-1	776-0051
大韓船洲株式會社	會長	尹錫民	海上運送業	中區乙支路1街188-3	771-16
大韓藥品工業協同組合	理事長	魯浚善	各種藥品生産	鍾路區貴鐵洞19-20	724-8905
大韓印刷工業協同組合聯合會	會長	蔡福基	印刷業	中區忠武路3街58-10	266-7451
大韓電線株式會社	"	薛元亮	電線及電子電機器製造	中區會賢洞1街194-15	778-0231

會社名	職位	代表者	業種	住 所	電 話
大韓證券業協會	會長	白慶福	協 會	中區明洞2街31-1	776-5030
大韓織物工業協同組合聯合會	"	鄭相溶	協 會	中區會賢洞1街33	778-4295
大韓紡毛工業協同組合	理事長	李長雨	纖維製造業	中區忠武路4街120-3	260-0677/9
大韓投資金融株式會社	社長	朴大振	短期金融業	中區明洞1街54	771-06
大韓投資信託株式會社	"	柳惇佑	證券保險業	永登浦區汝矣島洞1-124	783-0401
大韓광업工業株式會社	"	宋正範	製 紙	中區水標洞47-6	267-1515
(株)大韓航空	"	趙重勳	航空運送業	中區南大門路2街118	771-66 832-0191/5
大和物産株式會社	"	金福基	製造及輸出業	永登浦區大林1洞971-1	832-0191/5
德盛貿易株式會社	"	金鍾洙	輸出及纖維製造	恩平區驛村洞57-5	388-8241/50
東國貿易株式會社	"	白永基	都賣製造業	中區忠武路2街64-5	771-15
東國製鋼株式會社	"	張相泰	製造(鐵鋼)	中區水下洞50番地	776-6121
東亞製藥株式會社	"	姜信浩	製 藥 業	東大門區龍頭洞252	93-1201
東亞貿易株式會社	"	羅翼鎮	製造·都賣·서비스	中區南大門路5街120	28-8145
東洋나이론株式會社	"	趙錫來	化學纖維製造	中區西小門洞21-1	771-13
東洋錫飯工業株式會社	社長	孫烈鎬	錫鍍鋼飯·製造	永登浦區堂山洞4街93	633-3311/5
東洋사멘트工業株式會社	會長	李洋球	사멘트製造販賣	中區義洲路1街1番地	720-8791
同和産業株式會社	社長	文炳赫	貿易·不動產·貸貸	中區西小門洞58-7	777-9931/8
斗山産業株式會社	"	朴容旻	貿 易	鍾路區壽松洞108-4	724-0016
(株)럭키	會長	具滋暻	石油化學製品·洗劑	中區南大門路5街537	22-8481
롯데機械工業株式會社	社長	趙鳳植	公害防止施設	龍山區元曉路1街104	714-0111/9
롯데製菓株式會社	社長	辛俊浩	製 菓 業	龍山區葛月洞98-6	793-9311
(株)롯데호텔	會長	辛格浩	觀光·호텔業	中區小公洞1	771-10
味元株式會社	社長	洪鍊錫	食品·製造業	江西區嘉陽洞52-1	66-3391/6
半島木材株式會社	"	鄭海德	合板製造·海運	中區武橋洞45(코오롱BLD 505)	776-7352/4
半島商事株式會社	"	文 樸	綜合商事	中區南大門路5街537	771-32
邦林紡績株式會社	"	朴宗華	製 造 業	永登浦區文來洞3街54	633-5111/8
汎洋專用船株式會社	會長	朴健碩	海 運 業	中區乙支路2街9-10	778-6811/9
(株)부산파이프	社長	李運珩	鋼管製造	鍾路區貫鐵洞19-1	720-9411

會社名	數位	代表者	業種	住 所	電 話
產業基地開發公社	社長	安京模	產業基地建設・水資源開發	中區貞洞11-3(서울事務所)	23-0491/2
三寶證券株式會社	"	姜聲振	證 券 業	中區明洞2街50-15	776-3440
三都物產株式會社	會長	金萬重	輸 出 人	永登浦區汝矣島洞1-500	782-0011
三扶士建株式會社	"	趙鼎九	律 設 業	中區會賢洞1街181-1	22-5364
三星物產株式會社	副會長 社長	李健熙 景周	綜 合 商 事	中區太平路2街250	771-33
三星電管工業株式會社	社長	崔 塘	T.V.부라 등 管 生 産	中區太平路2街250	22-6013
三星電子工業株式會社	"	姜晋求	電 子 ・ 電 氣	中區太平路2街250	22-7257
三星造船株式會社	"	李殷澤	造 船	中區太平路2街250	23-5057
三星綜合建設株式會社	"	金振九	綜 合 建 設	永登浦區汝矣島洞1-620	782-5573
三星製紙工業株式會社	"	朴允甲	라이너原紙生産 및 加工	中區明洞2街33-1	776-4329
(株) 三 養 社	"	金相廈	化 纖・製 糖・製 造	鍾路區蓮池洞263	763-7711
三養食品工業株式會社	會長	全仲潤	食 品 製 造 業	鍾路區壽松洞51-1	725-8951
三榮電子工業株式會社	社長	邊浩成	콘덴서製造 및 輸出業	鍾路區壽松洞12番地	722-4377
三益樂器製造(株)	社長	李孝益	樂 器 製 造	仁川市北區曉星洞316-48 (서울) 62-4347/9 (인천) 92-3333	
三正通商株式會社	社長	魏孝懋	毛皮 및 皮革・縫裁業	九老區九老洞197-28	855-9050/5
三陟產業株式會社	"	黃慶老	合 金 鐵・線材・貿易	中區草洞21-9	260-3121/9
三華實業株式會社	"	金基鐸	輸 出 人 및 生 産 業	中區水標洞27	261-9700
三華化成株式會社	"	金斗河	塩基性耐火物製造	中區會賢洞194-15	778-9441/4
三煥企業株式會社	會長	崔鍾煥	建 設 業	鍾路區雲泥洞98-5	765-0151
삼표食品工業株式會社	社長	朴承復	食 品 製 造 業	道峰區倉洞647-2	992-7114
서울鑄鐵工業株式會社	"	李鍾壽	鑄 物・鐵 鋼・製 造	京畿道富川市素砂洞37	612-7401/4
(株) 鮮 京	"	劉碩源	貿 易 業	中區南大門路2街5-3	771-88
鮮京合纖株式會社	"	鄭燦周	化 學 纖 維 製 造	中區忠武路3街60-1(極東 BLD)	260-3131(代)
世大製紙工業株式會社	"	高判南	新 聞 用 紙 製 造 業	群山市助村洞2番地	군산 ②5111
(株) 雙 龍	"	禹容海	貿 易 業	中區亭洞2街24-1	266-8212
雙龍洋灰工業株式會社	"	金錫元	시멘트 製 造 業	中區亭洞2街24-1	266-7284
新星貿易株式會社	"	金八淑	製 造 ・ 세 비 스	中區忠武路2街645	776-2631/5
聯合鐵鋼工業株式會社	"	鄭昇翼	鐵 鋼 製 造 業	鍾路區鍾路1街1(教保BLD)	720-8061
(株) 永 豐	"	李雨龍	貿 易 業	鍾路區瑞麟洞33番地	723-5311

會社名	職位	代表者	業種	住 所	電 話
利川電機工業株式會社	社 長	張炳贊	電氣機器製造	中區小公洞72-2	22-2467
仁川製鐵株式會社	"	李明博	鐵 鋼 業	仁川市東區松賢洞1番地	724-3112 인차)73-0081/90
日新製鋼株式會社	"	朱昌均	鐵 鋼 業	鍾路區壽松洞51-8	720-6611
全國經濟人聯合會	會 長	鄭周永	經 濟 團 體	永登浦區汝矣島洞1-124	782-1028 783-0821/6
(株) 全 紡	"	金龍周	紡 績 業	鍾路區貫鐵洞10番地 (3·1BLD. 12~13層)	720-8872/6
正友開發株式會社	會 長	閔錫源	建 設 業	龍山區桃洞1街2-10	779-3141
第一毛織株式會社	社 長	李洙彬	毛 紡 製 造	中區太平路2街250	28-1344
(株) 第 一 銀 行	銀行長	李弼善	金 融 業	中區忠武路1街53-1	771-70
朝鮮耐火化學工業株式會社	社 長	李勳東	耐 火 物 製 造 業	中區會賢洞1街194-15	778-2002
朝鮮麥酒株式會社	會 長	朴敬福	麥 酒 製 造 業	永登浦區永登浦洞640	833-5111/25
朝陽商船株式會社	社 長	朴南奎	海 運 業	中區小公洞51	771-43
(株) 鍾 根 堂	會 長	李鍾根	藥 品 製 造 業	九老區新道林洞410	62-3841/9
中小企業振興公團	理事長	李經植	團 體	中區雙林洞151-11	265-6533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會 長	柳 琦 諄	經 濟 團 體	鍾路區公平洞138-1	724-2731/4
中央投資金融株式會社	社 長	金敏鎬	短 期 金 融 業	中區明洞1街65-2	771-17
(株) 眞 露	"	張翼龍	酒 類 製 造 業	永登浦區新吉洞170-8	828-6941
普州耐火株式會社	社 長	金善根	CHAMOTTE 製造業	中區西小門洞58-7(同和里812)	22-0698
天馬物産株式會社	會 長	金鳳學	輸 出 入 · 牧 畜 業	鍾路區堅志洞65-1	723-8801
(株) 天 友 社	社 長	全賢宰	貿 易 業	中區小公洞81	777-9111/5
忠南紡績株式會社	"	金炯德	綿 紡 業	中區太平路1街62-4	723-9341
코리아 라인株式會社	"	李孟基	海 運 業	鍾路區壽松洞51-8	725-0371/5
코리아 XEROX株式會社	"	李東煥	複寫機製造 · 세미스	中區西小門洞58-7	23-0261/5
코오롱商事株式會社	"	李相喆	貿易 · 內 需 · 製 造	中區武橋洞45番地	771-57
太原物産株式會社	"	朴魯聖	製 造 業	鍾路區堅志洞68	723-8241/5
太平開發株式會社	"	權赫重	觀 光 · 立 項 業	中區太平路2街23番地	771-22
太平洋化學工業株式會社	社 長	申東寬	化粧品及醫藥品製造	龍山區漢江路2街181	792-8351/9
浦項綜合製鐵(株)	會 長	朴泰俊	鐵 鋼	慶北浦項市東村洞5	포항2-3891/6
豐山金屬工業株式會社	社 長	柳續佑	製 造 業 · (金 屬)	中區忠武路3街60-1	269-1533
韓國鋼管株式會社	"	尹相俊	鋼 管 製 造 業	永登浦區文來洞4街41	267-2181/7



會社名	職位	代表者	業種	住 所	電 話
韓國科學技術院	院長	李柱天	研究機關	城北區下月谷洞39-1	967-8681
韓國金屬工業協同組合理事長	孫元學	組 合	永登浦區汝矣島洞1-643	783-7811/5	
韓國機械工業振興會會長	金連珪	團 體	永登浦區汝矣島洞1-643	782-5611/4 782-5811/4	
韓國機械工業協同組合聯合會	“	高應振	“	龍山區葛月洞66番地	794-1829·1859
(株)韓國叶一盟	“	金容太	電子部品製造業	九老區九老洞235-3	855-0311/7
韓國貿易協會	“	金元基	經濟團體	中區會賢洞2街10-1	771-41
韓國放送公社社長	李元洪	放 送	永登浦區汝矣島洞1番地	7803-200	
韓國生產技術事業團理事長	韓準石	生產技術指導	永登浦區汝矣島洞1-643 (機械工業振興會館59)	783-5535/9	
韓國生產性本部理事長	李恩馥	技術·學術·研究用役	中區簗洞2街10	266-2235	
韓國纖維產業聯合會會長	朴龍學	團 體	中區會賢洞2街10-1 (貿易會館139)	778-0821/4	
韓國스리트工業株式會社會長	金仁得	製 造 業	中區乙支路3街296-2	266-7048 261-9091	
韓國染色工業協同組合聯合會會長	李昇柱	“	鍾路區苑南洞194	763-8385/6	
韓國玩具工業協同組合理事長	金基命	“	龍山區漢江路2街361-1	792-9505·9818	
韓國外換銀行銀行長	鄭春澤	金 融 業	中區乙支路2街181	771-46	
(株)韓國長期信用銀行銀行長	金奉殷	金 融 業	永登浦區汝矣島洞1-60	782-0111/8	
韓國電氣工業協同組合理事長	梁在港	組 合	龍山區東子洞14-26	793-8332	
韓國電子株式會社社長	郭泰石	電子製品製造業	九老區九老洞189-2	853-3161/5	
韓國綜合展示場理事長	白行傑	輸出入商品展示	江南區三成洞65	52-1625	
韓國綜合特殊鋼(株)會長	金顯哲	特殊鋼製造業	鍾路區貫鐵洞10番地	725-6911	
韓國綜合化學工業(株)社長	盧載鉉	肥料及石油化學製品	鍾路區堅志洞68	722-2047	
韓國住宅銀行銀行長	鄭英模	金 融 業	中區太平路1街61-1	725-5621/9	
韓國證券金融株式會社社長	張在澈	金 融 業	永登浦區汝矣島洞1-154	783-0521	
韓國投資信託株式會社	“	金洪錫	金 融 業	中區忠武路1街25-5	778-1250/9
韓國케인트링크工業協同組合理事長	安都賢	組 合	江南區論賢洞174-1	555-3635	
韓國푸라스틱工業株式會社社長	徐載軾	合成品製造業	中區西小門洞58-7	777-9141/5	
韓國푸라스틱工業協同組合理事長	申正休	組 合	中區雙林洞146-2	261-7991/4	
韓國被服工業協同組合	“	朴信默	“	麻浦區共德洞105-238	713-3191/5
韓國合金鐵工業株式會社社長	徐廷翰	合金鐵製造	九老區高尺洞141	612-0161/4	
韓逸開發株式會社	“	趙重建	建 設	中區蓬萊洞1街132-4	22-9211

會社名	職位	代表者	業種	住 所	電 話
(株) 韓 一 銀 行	銀行長	安永模	金 融 業	中區小公洞76	771-20
韓一合成纖維工業株式會社	社 長	金翰壽	纖 維 製 造 業	中區西小門洞58-7	771-08
한태製菓工業株式會社	"	朴健培	菓 子 · 飲 料 製 造 業	永登浦區楊平洞5街86	633-0111
現代自動車工業株式會社	"	鄭世永	自 動 車 製 造 及 販 賣	鍾路區桂洞140-2	763-0211
現代綜合商事株式會社	"	朴永郁	貿 易	江南區新沙洞485-1	52-4141/70
現代重工業株式會社	"	李春林	機 械 製 造 業	鍾路區世宗路178	720-7711/5
(株) 協 進 洋 行	"	李龍鎬	纖 維 製 造 及 貿 易	九老區加里峯洞470-1	856-5921/7
湖南에탈렌株式會社	"	金昌圭	石 油 化 學 工 業	永登浦區汝矣島洞1-423	782-4142
湖南精油株式會社	"	具平海	石 油 精 製 業	中區忠武路3街60-1	771-55
曉星機械工業株式會社	會 長	金鍾大	모터사이클製造業	中區會賢洞1街194-15	771-12
曉星物產株式會社	社 長	李忠善	貿 易 業	中區忠武路4街17-7	771-11
和信產業株式會社	"	朴興植	"	鍾路區公平洞5-1	725-0141/9
興亞海運株式會社	"	姜泳琇	海 運 業	釜山市中區中央洞4街89	(051)23-0211(代) 서울사무소 771-56
興和工業株式會社	"	楊昇龍	鐵構造物製造及建設業	中區忠武路1街24-31	776-3271/4

## 任 員 名 單

〈가나다順〉

會 長 朴泰俊

顧問 金元基 金永善 金容完 柳琦諄 劉彰順 李秉喆 鄭壽昌 鄭周永

副會長 金宇中 朴大振 朴龍學 李健熙 李孟基 鄭世永 鄭寅旭 鄭春澤

" 趙重勳 許愼九

監 事 金萬重 禹容海

專務理事 李尚秀

理 事 姜晉求 姜信浩 高應振 具滋暉 金基鐸 金命年 金鳳鶴 金相廈

" 金相文 金錫元 金連珪 金禹根 尹泰葉 金鍾大 金鎮河 金昌圭

" 金八淑 金翰壽 金炯德 羅翼鎮 文 樸 閔錫源 朴南奎 朴三求

" 朴容旻 朴允甲 朴宗華 徐成煥 辛格浩 朴健培 薛元亮 孫尚模

" 柳續佑 辛俊浩 尹錫民 尹柱元 李相喆 李洙彬 李昇柱 李殷澤

" 蔡福基 李鍾根 李竣鎔 李載沆 李春林 李忠善 李勳東 洪鍊錫

" 張炳贊 張相泰 張盛煥 張致赫 全仲潤 鄭相溶 趙錫來 趙鼎九

" 朱昌均 崔鍾賢 韓在烈